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2-02-04(9)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대응 종합연구

정정숙

#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02-04(9)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연주 연구보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기은 교수 (공동연구)
세명대학교	문효진 교수 (공동연구)



## 국문요약

<b>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b>	<b>1</b>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필요성	4
<b>II. 연구 범위와 방법론</b>	<b>8</b>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b>III.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의 현황 조사 및 분석</b>	<b>11</b>
1.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의 역사적 추이와 맥락	13
2. 2010년대 한·중·일 문화교류의 환경	16
(1) 문화교류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16
(2)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18
(3)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수요	23
3. 2010년대 한·중·일 문화교류정책	30
(1) 한국	31
(2) 일본	42
(3) 중국	47

4. 한·중·일 양자·다자간 문화교류 협력 현황 .....	53
(1) 다자 간 문화교류협력: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	53
(2) 양자 간 문화교류 협력 .....	60
(3) 한국 공공·민간 부문의 일·중과의 교류 현황: 서베이 조사 · 89	
<b>IV.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망과 전략 .....</b>	<b>101</b>
1.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	103
2.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략 .....	112
(1)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협력의 거시적 전략 및 원칙 ···	112
(2) 특수성을 고려한 한·일, 한·중 양자간 문화교류전략 .....	118
<b>참고문헌 .....</b>	<b>125</b>
<b>Abstract .....</b>	<b>129</b>
<b>부록 .....</b>	<b>131</b>
1. 설문조사 개요 .....	133
2. 설문조사 결과 .....	133
(1) 한·중·일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 여부와 빈도 .....	133
(2) 한·중·일 국가와의 문화 교류협력 실태 .....	137
(3) 한중일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만족도 .....	140
(4) 일본과 문화교류를 통해 얻는 효과 .....	141
(5) 중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얻는 효과 .....	145
(6) 일본과 문화교류를 통해 느끼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148
(7) 중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느끼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151

## 표 차례

〈표 1〉 한중일 관련 기사 부문별 분포 .....	19
〈표 2〉 권역별 지원 및 활성화 필요한 국제문화교류 분야 .....	26
〈표 3〉 기관성격별 향후 일본·중국과의문화교류협력 의사 .....	29
〈표 4〉 기관별 향후 문화교류협력 우선 추진 희망 대상국 .....	30
〈표 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관련 비전 및 청책과제 추이 ..	32
〈표 6〉 외교통상부 국제문화교류 관련 비전 및 정책 과제 추이 ..	33
〈표 7〉 문화부·외교부 국제문화교류 예산 비교 .....	34
〈표 8〉 외교부 동북아 교류 예산 .....	34
〈표 9〉 국제문화교류 사업 내 중국관련 예산항목(사례) .....	35
〈표 10〉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권역별 문화교류량 .....	36
〈표 11〉 해외소재 국제교류거점 현황 .....	37
〈표 12〉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 사례의 2011년 사업성과 및 프로그램 .....	39
〈표 13〉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 2012년 경영목표 .....	41
〈표 14〉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2011) .....	42
〈표 15〉 일본외무성 외교전략 .....	43
〈표 16〉 일본 문화청의 교류 사업 .....	45
〈표 17〉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및 목적 .....	46
〈표 18〉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사업방향과 내용 .....	46
〈표 19〉 중국 국제문화교류 담당 부서 및 산하 조직 .....	48
〈표 20〉 2011년 문화부문 6대 중점추진사항 .....	50
〈표 21〉 재외 중국문화원 현황 .....	51

〈표 22〉 주한 중국문화원의 설립 목적 및 전략 .....	52
〈표 23〉 2012년 주한 중국문화원의 사업방향과 내용 .....	52
〈표 24〉 1, 2, 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선언문의 정책지향 ..	55
〈표 25〉 제 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액션플랜’ 내용 .....	55
〈표 26〉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권역별 문화교류량 .....	61
〈표 27〉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형태별 국제문화교류 현황 .....	61
〈표 28〉 문화부 산하 기관 별 국제문화교류 현황(단위: 건수) .....	64
〈표 29〉 2012년 국가별 공연예술마켓 개최 현황 .....	65
〈표 30〉 한국공연단체의 중국공연(2008~2010) .....	69
〈표 31〉 중국공연단체의 한국공연(2008~2010) .....	69
〈표 32〉 세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상위국 .....	71
〈표 33〉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	72
〈표 34〉 2010-2011 한국영화 수출 비중 .....	72
〈표 35〉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한국 이미지 상관수준 .....	73
〈표 36〉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주변인의 한국 이미지 상관수준 ..	73
〈표 37〉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 현황 .....	79
〈표 38〉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요 현황 .....	80
〈표 39〉 한·일 관광교류 실태 .....	80
〈표 40〉 방한 관광객 현황 .....	82
〈표 41〉 방중 관광객 현황 .....	83
〈표 42〉 한·중·일 문화교류의 정책기조와 환경의 비교 .....	84
〈표 43〉 설문조사 개요 .....	90
〈표 44〉 응답자 개요 .....	90
〈표 45〉 기관성격별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형태 .....	93
〈표 46〉 일본과의 문화교류협력관계 시 불만족 이유 .....	96
〈표 47〉 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관계 시 불만족 이유 .....	96



〈표 48〉 중국 유학생 수 증가 추이 .....	104
〈표 49〉 중국인 국내체류자 현황 .....	104
〈표 50〉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SWOT .....	106
〈표 51〉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전망 및 예측 .....	107
〈표 52〉 특수성을 고려한 한·일, 한·중 간 문화교류전략 .....	119

## 그림 차례

[그림 1]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문화교류 추이와 제도 변화 흐름도	15
[그림 2] 단계별로 확대되는 한류의 콘텐츠와 영향력	18
[그림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신지역에 따른 한국문화 영역별 선호도	27
[그림 4] 향후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 의사	29
[그림 5] 향후 문화교류협력 우선 추진 희망 대상국	29
[그림 6] 2011 방송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72
[그림 7]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 실태	91
[그림 8] 기관별 일본, 중국과의 교류협력 평균 횟수	92
[그림 9] 일본·중국과 문화교류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	92
[그림 10] 일본과의 문화교류 장르	94
[그림 11] 중국과의 문화교류 장르	94
[그림 12]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관계 만족도	94
[그림 13]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에서 만족하는 이유	95
[그림 14] 일본,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효과	96
[그림 15] 수행기관 별 일본과의 교류협력 시 교류효과	97
[그림 16] 수행기관 별 중국과의 교류협력 시 교류효과	98
[그림 17] 일본,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99
[그림 18] 수행기관 별 일본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99
[그림 19] 수행기관 별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100
[그림 20]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의 전략	116
[그림 21]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의 삼각 완성형 구상과 세계로의 확산	117

## 국문요약

21세기 국제사회의 정신적·문화적 동력 축이 기존의 서구지역 일변도에서 아시아 권역을 포함하는 형세로 이동하고, 산업의 주력부문은 제조업 일변도에서 지식·감성산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권역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호기심 표명이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 권역 내부에서의 한류, 화류, 일류와 같은 상호적 문화소통과 공감현상도 확산일로에 있다.

본 연구는 최근 2010년 이후의 정부와 민간레벨의 한·중·일 간 문화교류협력 현황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고, 2015년을 전망하며, 그에 따른 적정 전략을 제시한다.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정치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주는 편의성의 뒷면에 불안정하게 동반되는 위기감을 완화시켜주는 일시적인 완화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경쟁관계로 인해 통합의 비전을 수립할 수 없는 아시아 권역에서, 상호 간의 문화 감상·체험·소통·이해를 통한 문화적 공감·유대의 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권역의 통합체 구상에 단초를 놓는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이다.

2012년 현재, 아시아 권역 주요 국가들의 정치 지도부의 재편으로 행정체제 및 대외전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적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문화교류 협력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현재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 전

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문화교류 전략은 근본적으로 상호이해와 상호 창조적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국 공동의 문화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과는 차별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현황자료와 문헌중심의 일차적 연역추론을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에서 나타난 역사적 추이와 맥락을 서술하고, 삼국의 양자·다자 간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실태를 조사·분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는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만을 근거로 무전략적인 현상유지형 방임적 태도를 지닌 채 긴장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3국 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문화교류협력관계마저도 경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호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3국 모두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보장될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3국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지속과 강화를 위한 전략은 3국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각 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자 간 관점으로 나누어 구상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동반되고 있는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단순히 국가우호적인 혹은 국가공존적인 상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가능성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양자간, 다자간의 기존 문화교류협력관계 방안을 답습하고 단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비전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연구의 목적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이 2005년 G2(Group of Two)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고, 3년 후인 2008년에는 Foreign Affairs의 기고문에서 중국을 국제경제체제의 책임 있는 주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다가오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1)</sup> 경제대국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새로운 등장이 도전적 요소로 인식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대국화와 동북아 상호의존성의 심화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으며, 이 변화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기회 요소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2003년부터 이미 최대수출시장이 기존의 미국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고, 정치체제의 상이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어, 이 상호의존성이 어느 일 국가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역의 정치·경제적인 역동성과 능력이 제고됨과 동시에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관광 자원 및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정신적·문화적 동력 축이 기존의 서구지역 일변도에서 아시아 권역을 포함하는 형세로 일부 이동하고, 산업의 주력부문은 제조업 일변도에서 지식·감성산업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권

---

1) Fred Bergsten,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2008(July/Aug), p.64

역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호기심 표명이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 권역 내부에서의 화류, 일류, 한류와 같은 상호적 문화소통과 공감현상도 확산일로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2010년 이후) 정부와 민간레벨의 한·중·일 간 문화교류협력 현황을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유형과 수준을 파악하고, 2015년을 전망하여, 그에 따른 적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정치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주는 편의성의 뒷면에 불안정하게 동반되는 위기감을 완화시켜 주는 일시적인 완화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경쟁관계로 인해 통합의 비전을 수립할 수 없는 아시아 권역에서 상호 간의 문화 감상·체험·소통·이해를 통한 문화적 공감·유대의 강화를 기반으로 아시아 권역의 통합체 구상에 단초를 놓는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의 필요성

한·중·일 삼국은 아시아의 질서와 협력을 결정짓는 주요 의사결정자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관계를 형성하는 패턴이 곧 동아시아의 질서를 경쟁적 혹은 협력적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3국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갈등과 경쟁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부문이 있다면 문화교류 협력관계일 것이다. 협력의 수준에 따라 문화섹터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영역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적 파급효과(혹은 spillover effect)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포괄적인 Crosscutting형 가치재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2015년, 아시아 권역 주요 국가들의 정치 지도부의 재편으로 행정체제 및 대외전략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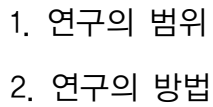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문화교류 협력 현황과 전략을 점검하고,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현재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문화교류 전략은 근본적으로 상호이해와 상호 창조적 자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국 공동의 문화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과는 차별성이 있다.

한·중·일 삼국 간 문화교류협력 분야는 각 국가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고,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경연장임과 동시에 협업도 가능한 영역이며, 다른 무엇보다도 창조성이 요구되는 대외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경우 각각 자기부처의 고유업무 영역에 따라, 자체 교류 사업들을 분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문화교류협력 관계의 수준이나 현황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나 판단은 쉽지 않다. 민간 부문의 교류는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대표사업들이나 일부 교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사업이나 성과의 특징을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교류 사업이라 할지라도, 비록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사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교류사업의 결과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삼국 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한·중·일 3국 간의 문화교류실태를 실제 서베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현황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적 배경으로서의 각 국가의 문화교류 정책과 문화교류 조직들에 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한다.







## II. 연구 범위와 방법론

### 1. 연구의 범위

문화교류의 영역은 첫째, 행정·국방·시민·교육·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수행되는 교류의 문화적 방식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때의 문화적 방식이란 상대방의 문화와 관점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교류 동기와 교류 과정 자체를 중시하고 우선시하는 등 결정적으로는 교류 주체의 자율성에 근거한 교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거하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류가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해서 연구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둘째, 교류 내용 중 문화유산·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관광 부문과 같이 정치·행정·과학·군사·경제적인 영역과 구별되어 문화정책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방식의 교류가 아닌 문화부문의 교류 사업과 교류 정책을 조사와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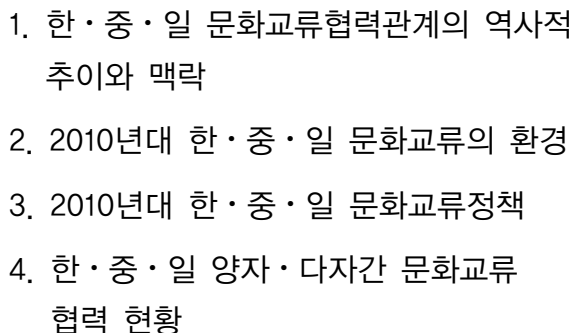
### 2. 연구의 방법

우선적으로 기존의 현황자료와 문헌중심의 일차적 연역추론을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에서 나타난 역사적 추이와 맥락을 서술하고, 삼국의 양자·다자 간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실태조사는 자료접근이 용이한 공적레벨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각각 추구해온 2000년대 후반 이후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전략을 조사하여 각국 정부의 문화교류협력

비전 및 사업의 고유성과 공통성을 추출한다. 민간레벨 교류는 단체나 기관들이 수행한 3국 간 문화교류협력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교류협력 현장의 주체와 콘텐츠 현황,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3국 문화교류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검토하여 3국 간 문화교류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각 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결론에서는 위의 방법들을 통해 파악한 현재의 한·중·일 3국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성과와 한계를 감안하여 앞으로의 문화교류 환경과 문화교류 주체들의 의지 등을 전망하여 보고, 미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바람직한 모델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중·일 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권역 안에서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의의를 규명하고, 이 교류협력관계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비전과 그 비전의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 Ⅲ.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의 현황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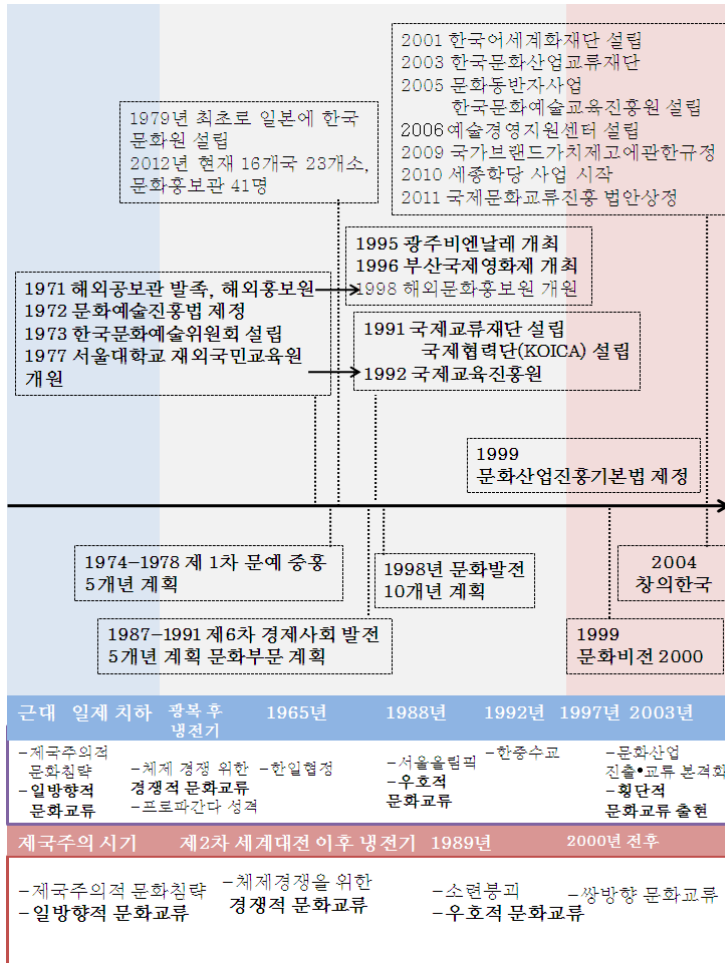
#### 1.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의 역사적 추이와 맥락

한·중·일 삼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고대 이래 다양하고 풍부한 교류의 역사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개항기 이전에는 문화교류가 정기적인 사신파견 등 정치적 관계에 부수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문화교류 환경이나 맥락과 전혀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개항기 이후 문화교류의 역사적 추이와 패러다임으로부터 서술을 시작하겠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내용과 형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선행환경으로서의 특성을 추출해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지니기 보다는 거대 담론적 성격을 갖게 된다.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의 역사적 패러다임은 세계적 문화교류 패러다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정치적 지배를 위해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지배적 교류단계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가 이에 속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자들은 피지배 국민들을 지배국가의 체제와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문화 수용을 강요하였고, 피지배국의 문화를 말살시키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치하를 겪으면서 동화 정책과 민족말살정책 등으로 인하여 우리 문화를 상실하고 자기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의 교류는 지배국가 중심으로 문화가 피지배국가에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강제수용패턴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단계는 문화외교적 관점이 주류를 형성하여 체제 과시형 교류가 이루어진 냉전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자기 진영의 체제 우월성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프로파간다로서의 성격을 띤 과시형 문화외교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우리 체제의 우월성 홍보를 위한 문화교류에 중심을 두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체제가 같은 강대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혼용하는 시기였다.

셋째 단계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문화교류라고 할 수 있는, 수신·발신 주체가 유연한 ‘횡단(traverse)형’ 문화교류 단계로, 탈냉전 이후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교류의 확산기이다. 냉전의 와해와 통신 및 교통의 발전으로 정치체제의 차이와 무관하게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상호 문화이해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자문화의 해외 발신과 타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과 초청의 다각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된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1997년 대만에서 시작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문화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문화교류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1

[그림 1]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문화교류 추이와 제도 변화 흐름도

## 2. 2010년대 한·중·일 문화교류의 환경

### (1) 문화교류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

문화교류의 역사는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방적 진출과 지배를 통해 자국문화를 보편문화로 강제한 제국주의형 단계로부터, 동맹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세력 팽창에 주안점을 두었던 외교수단형 단계를 거쳐 왔다. 그리고 이제 상호 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기초로 자율적인 수신과 발신을 통해 문화향유와 공감,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성취하는 횡단형 문화교류 단계로 진화해 가고 있다. 즉, 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방향적 교류가 쌍방향적 횡단형 교류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며, 문화교류의 주체가 양국 중심 일변도에서 다국 중심의 활성화로,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교류콘텐츠도 전통예술영역으로부터 현대문화, 정통예술 뿐 아니라 관광과 문화산업상품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이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등의 발달을 가져와 이제는 전 세계가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면 대 면 방식 이외에도 전 세계인들과 실시간으로 대화와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문화교류의 개념과 방식에도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고 있을 정도이다. 디지털화, 국가 단위와 지리적 경계를 넘는 쌍방향, 실시간 상호 문화 교류와 소통의 가능성은 문화교류의 형태, 영역, 시스템 등 문화교류 협력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개념 규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상화는 누구나 시공간을 초월해 상대 문화 정보를 검색하고 습득, 전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문화교류 환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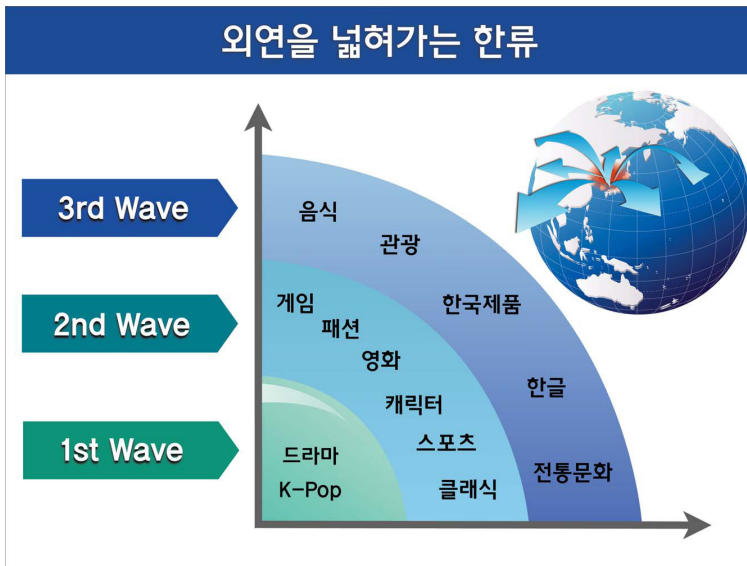
이끄는 핵심적 주체로 부상되도록 하였다. 또 문화교류 매체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걸친 경제의 세계화와 정치의 민주화로 기존의 독과점적이고 수직적이었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가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즉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의 협치 방식이 선진적인 방식으로 공인되고 있다. 즉,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가 교류주체를 다양화시키고, 정부와 민간의 협치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류모델, 교류매체, 교류주체의 변화는 현대 대중문화의 급속한 성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제 문화예술 작품과 상품들이 희소성이 있는 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현대적인 것으로, 비경제적인 분야에서 경제·산업의 한 분야로, 특정계층만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공유물이 된 것이다. 각 국의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떤 문화예술 작품이나 상품보다도 높고,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시키는 ‘문화산업’분야는 창조적인 문화예술분야와 상생을 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한·중·일 3국의 대중문화에 있어서는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와 열정을 반영하는 열풍으로 묘사될 정도로 신조어로 지칭되고 있는 한류(韓流)<sup>2)</sup>, 한풍(漢風), 일류(日

2) 1997년 중국에서 <사랑이 뭐길래> 이후 대중가요가 들어가면서 한류라는 용어가 중국청년보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한류파급효과를 수치로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2조(2012년 매경 네모파트너즈 추정)로, 자동차 2.7조, 식음료 1.8조, 관광 1.2조가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가치는 2020년에 이르면 57조(생산유발효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20의 3배, 여수엑스포 5배, 평창올림픽 3배 등이다. 그러나 상업주의적 효과에 주목하는 것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과 함께 정부는 shadow striker가 되어야 한다는 문화교류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담론이다. :매경, 비전코리아 19차 보고대회, '한류본색' 발표자료 pp.8-14

流) 등이 존재할 정도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문화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류는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의 성공 모델로 여겨질 만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문화교류의 한 축을 명실상부하게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 매경, 비전코리아 19차 보고대회, '한류본색' 발표자료 pp.8-14 중 참조.

[그림 2] 단계별로 확대되는 한류의 콘텐츠와 영향력

## (2)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인식<sup>3)</sup>

한·중·일 간 문화교류 협력에 대한 인식은 언론의 보도 내용과 빈도 등을 통해 일정부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3국 간의 문화교류협력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으며, 얼마나 주목을 받았고, 문화교류 협력관계에 대한 기대 수준은 어떠한가에 초점

3) 동아일보 201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검색포털을 통해 검색하여 재분류하였음.

을 맞추어 2011년 한 해 동안 보도된 한·중·일 관련 기사를 검토하였다.

〈표 1〉 한중일 관련 기사 부문별 분포

구분		한-중	한-일	중-일	한-중-일	계
문 화	전체	32	15	—	15	62
	보도	28	12	—	1	41
	사설/칼럼	4	3	—	14	21
정치		43	48	9	17	112
경제		16	5	7	18	46
사회		3	9	2	2	16
안보		11	2	—	—	13
환경		4	2	2	5	13
계		109	81	21	56	267

주: 한국언론진흥재단(www.kinds.or.kr) 동아일보 2011.01.01~2011.12.31일까지의 기사검색결과 (2012.09.17.검색)

### ① 문화부문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한·중·일 문화교류와 관련된 기사는 한·중·일, 한·일, 한·중, 중·일을 합해 62건으로 112건의 정치부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문화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한 언론보도는 공공, 민간 등 주체나 학술, 예술 등의 장르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사례보도 위주로 정치부문과는 달리 우호적으로 기술되고 있어 문화가 3국 간 관계의 윤활유 혹은 완충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는 3국 간 공통성과 특수성을 비교하고 공감시키기 위한 행사들이 다수 개최되고 있었다. 차 문화와 음식문화 등 비슷하면서도 다른 삼국의 생활 문화를 비교

하며 체험할 수 있는 교류행사,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 사람들이 상대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삼국 마음지도’에 관한 기획기사, ‘그리움’, ‘도시-성(性)’을 공통주제로 삼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보는 전시와 문학 프로젝트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기사들은 모두 동북아 3국의 문화적 동질감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다양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자는 관점이 반영된 보도이다.

한·일 간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례로 보도된 ‘한일차세대포럼’과 ‘다문화·문화상대주의에 관한 포럼’ 등은 양국 간의 갈등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행사로 역사논쟁과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 문제 등의 양국 간 난기류를 문화로써 풀어보기 위한 노력이 일각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보도였다. 이외에 한·일 간 문화분야에 있어서의 활발한 교류는 주로 K-pop 등 대중문화교류에 대한 것으로, 이는 양국이 서로의 대중문화에 상호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간 문화교류는 학술과 예술부문 교류 기사가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인 학생이 한국 내 유학생 비율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을 통한 인바운드형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언론인포럼, 불교문화포럼, 문화소통포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교류와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국 모두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예술 부분에서는 공동전시회, 공동출간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히 보도되고 있었고, 관광분야에서는 부산, 인천 등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중국과의 협약을 맺어 특화된 관광교류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 반한류’를 주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던 포럼에 관한 기사와 중국의 한국문화원 개소 불허 논란 기사 등은 한중 문화교류의 장애요소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는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적이고, 국수적일 수 있는 3국 관계의 민감성을 앞으로 어떻게 상생(win-win)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② 정치부문

정치부문에서는 3국의 갈등상황이나 경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가장 멀다고 할 만큼 복잡한 갈등요소들을 내포한 3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분야의 한·중·일 3국 다자간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속성장과 일본 경기의 장기침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동북아 3국의 상황과 이에 따른 경쟁,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중점이슈로 다루어졌는데, 일본의 태도와 한국정부의 대응을 보도하고, 사실과 칼럼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방안이 제안되었다. 한·중 관계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현황에 대한 보도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 중국의 성장에 따른 경쟁구도 속 새로운 갈등 현안들이 주로 다루어졌고, 중·일 관계는 중국의 세력 팽창에 대한 일본의 적대감과 그 대응에 관해 보도되었다.

이렇듯 정치부분의 동북아 3국에 대한 우리의 언론보도는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혹은 대처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경쟁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이 부각되었으며, 협력과 우호적 문화교류 활동에 관심을 기

올이는 문화분야의 보도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③ 경제·환경·안보 부문

경제부문을 삼국 간 경제협력사업에 관한 보도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한·중·일의 경제 협력 관계에서는 삼국 FTA 추진을 위한 각국의 노력 혹은 입장 등 대해, 한·중, 한·일 양자 간에는 개별 협력사업들에 관한 소개가 우리의 입장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되었다. 경제협력관계는 경쟁적인 측면이 고려되긴 했지만, 대체로 ‘협력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도되었으며, 한·중, 한·일 간 관계에 비해 중·일 관계가 더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외에 2011년 기사에서는 환경과 관련하여 일본 동북부 지진과 동북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친 이 메가급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3국 협력과 앞으로의 대비 공조체제 구축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보적 측면에서 3국 공통의 과제인 대북정책에 관련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 ④ 언론을 통해 본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우리 언론을 통해 본 3국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타부문의 인식을 종합·정리해 보면, 문화적 측면에서는 우호관계에, 정치적 측면에서는 갈등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교류협력은 경쟁적 관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상대국과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고, 환경이나 안보부문은 3국이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영역인 만큼 대체로 협력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보도를 단순히 긍정적인 보도와 부정적인 보도로 구분할 경우, 갈등 이슈가 부각된 정치부문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3국 관계가 대체로 비협력적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이러한 갈등관계 해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완화시켜보려는 문화 부문의 움직임과 하나의 권역으로서 동북아 지역을 인식하고 협력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환경이나 안보 부문 주체들의 움직임을 읽을 때, 3국 모두 다방면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발전시킬 의지가 일부 발현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 간의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이러한 협력의 잠재성과 필요성에 의거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 요소가 표면화되지 않는 부문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여 공존공생을 넘어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특히 세계적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추세를 선도해나가는 문화적인 권역으로서의 아시아 권역의 이미지와 실체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수요

#### ① 문화교류협력 수요 조사의 필요성과 파급효과

문화교류의 핵심적 요소는 질 높은 문화콘텐츠 자체와 동시에 상대국가의 주민·예술가들이 해당 콘텐츠를 통한 교류를 원하는가 하는 수요의 존재 여부이다. 따라서 문화교류의 지속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교류 시에 가지고 가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국인 만큼 수시로 접촉해 온 역사로 인해 문화교류의 측면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축적된 역사가 있고, 그 결과 ‘한자문화권·유불선 문화권’을 비롯한 의식주 생활문화권 등 전통적인 공통의 문화기반을 공유한다. 따라서 다른

권역과의 교류협력에 비해 상호이해가 용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근·현대를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정치적 갈등은 이러한 상대적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3국 간 우호적인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심리적·주관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경쟁 관계의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일 뿐 아니라, 미래의 협력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갈등의 주요 주체가 ‘국가’라면, 문화적 교류의 주요 주체는 민간의 예술단체들이며, 그들의 교류 콘텐츠는 진·선·미와 상생과 평화라는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류애와 생명을 살릴 각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이해에 입각한 문화교류 사업은 갈등의 이슈들을 성찰하는 기회가 될 뿐, 갈등을 재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교류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그러한 사업 결과들이 축적된다면 다른 분야의 양자, 다자간 교류 협력 관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교류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자기 문화를 객관화시켜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체험은 상호 문화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심도있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국과 상대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효과는 정치·경제적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문화의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이제 보편적으로 긍정되는 바이며, 이로써 문화가 소프트파워로써 미래사회의 주요한 교류협력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교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 동력으로서 문화 자체가 가지는 힘이란 결국 교류콘텐츠의 질과 교류 상대국의 수요이다. 앞서 문화교류의 패러다임과 환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은 웹망과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만 있으면 타 문화권에서도 그 문화를 접하는 개인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과 공감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이러한 환경변화의 힘을 한류의 확산과 성공이라는 현상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 ② 한·중·일 지역 문화교류 콘텐츠 예상 수요<sup>4)</sup>

한·중·일 권역에서 수요가 예상되는 문화교류콘텐츠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기획하거나 전개하고 있는 전문가가 예상하는 권역별 수요, 두 번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문화장르에 대한 조사결과, 세 번째는 국내 문화교류 단체들의 현재 가장 활성화 된 교류분야와 희망하는 교류 대상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이다.

첫째, 국내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권역별 우리 문화 수요결과는 현장·이메일·전화·팩스를 통해 현재 각 권역별로 지원 및 활성화가 요청되는 문화교류 분야 1, 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우 1순위로 전통문화(24.0%), 2순위로 드라마(22.4%)가 선정되었다. 1, 2순위 간 비율차가 1.6%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 집단은 동북아 지역의 수요에 있어서 콘텐츠 영역 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집단은 동북아 지역에는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 교류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4)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67-68

〈표 2〉 권역별 지원 및 활성화 필요한 국제문화교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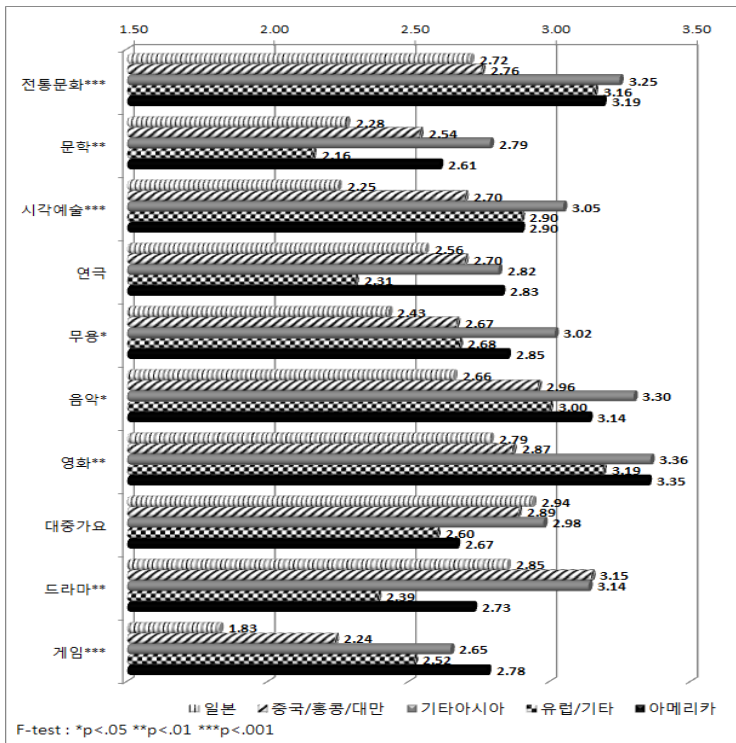
응답내용	1순위		2순위	
	장르	비율(%)	장르	비율(%)
동북아시아	전통문화	24.0%	드라마	22.4%
동남아시아	대중가요	32.4%	드라마	30.2%
중앙아시아	전통문화	27.7%	드라마	26.5%
중동	드라마	30.5%	대중가요	18.1%
북미	전통문화	29.7%	대중가요	15.6%
중남미	대중가요	32.8%	드라마	23.7%
서유럽	전통문화	26.0%	문학	15.8%
동유럽	전통문화	29.1%	대중가요	21.5%
아프리카	전통문화	32.8%	드라마	23.8%
오세아니아	전통문화	33.7%	대중가요	19.0%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7.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한국문화 분야를 조사한 결과 동북아 권역의 일본과 중국의 외국인들은 타 권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순수예술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전통문화와 영화, 대중가요, 드라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문학, 시각예술, 무용, 음악 등 순수예술분야의 선호도가 최하위였다. 순수예술분야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이 분야들이 가지는 전문적인 특성 때문에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일본에 비해서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타 권역에 비한다면 높지 않았고, 역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았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한국대중가요였으며, 이는 언론보도에서도 주지되었듯 일본에서의 현재의 K-Pop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에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다만, 교류시의 콘텐츠 발신과 관련해서 수요조사 결과를 참조할 때, 수요조사 결과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화교류 콘텐츠에 대한 흥미는 현재 수요를 고려하되 미래의 수요에 대한 유인 전략으로서 새로운 교류 콘텐츠의 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들의 문화적인 선호나 취향은 정지된 것이 아니며, 늘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문화교류 콘텐츠는 현재 수요에 높은 비중을 두되, 미래 수요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접붙여 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국민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와 수요를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작품, 상품들의 교류 방식과 접점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신지역에 따른 한국문화 영역별 선호도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6.

전문가와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선은 전문가 조사 결과와 같이 전통문화의 교류를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영역별 우리나라의 문화 선호도에서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영역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에 반해 실제 교류는 한류 현상에서 보듯 대중문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수요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취약한 전통문화 분야에서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교류로 연결시킬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인 순수예술분야 역시 낮은 수요의 이유를 분석하여 매력요소 개발에 힘쓰고 교류루트를 발굴해야 한다. 이로써 3국은 문화 전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미래 문화 교류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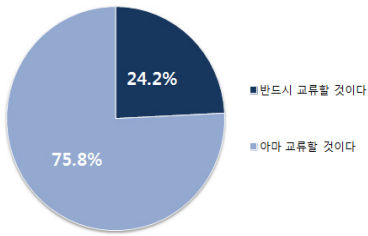
세 번째 설문조사는 위의 교류 콘텐츠 수요와 관련된 두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것으로, 국내 문화교류 단체들을 대상으로 교류대상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요와 현재 그들과의 교류에서 가장 활성화 된 분야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sup>5)</sup>

먼저 교류희망 대상국으로서 향후 일본과 중국에 대해 응답자 모두가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일본과 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이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조사에서 반드시 교류할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전통문화 관련 단체가 32.7%, 예술전반이 25.9%로 전통문화와 예술전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5) 이 설문조사 개요와 대상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III장 4절의 (3)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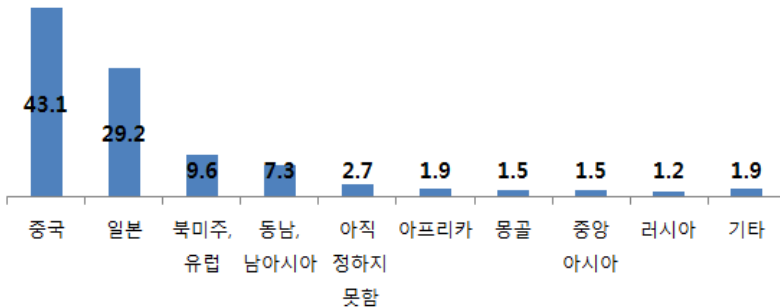
〈표 3〉 기관성격별 향후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 의사



[그림 4] 향후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 의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반드시 교류할 것	아마 교류할 것
전체		260	24.2	75.8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0	100.0
	전통문화	49	32.7	67.3
	예술전반	112	25.9	74.1
	문화산업전반	51	23.5	76.5
	교육	9	22.2	77.8
	기타	3	.0	100.0

세계의 타 권역을 포함하여 향후 우선 문화교류 협력 대상국을 질문한 결과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각각 43.1%, 29.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한국의 문화교류단체들에게 일본과 중국은 교류대상 국가로서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향후 문화교류협력 우선 추진 희망 대상국

이 조사에서 중국과 일본을 꼽은 기관들의 성격은 양국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에 대해서는 문화재와 전통문화 분야의 교류기관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예술전반과 문화산업 분야 기관들의 교류의사가 높았다. 이는 양국 간 교류콘텐츠의 수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문화재 복원기술이나 전통문화의 현대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분야에 교류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국은 아직 우리에게 비해 예술이나 문화산업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아 문화상품의 시장으로서 진출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앞서는 것으로 유추된다.

〈표 4〉 기관별 향후 문화교류협력 우선 추진 희망 대상국

응답자 특성		사례수	중국	일본	북미주 유럽	동남 남아시아	미정	아프 리카	몽골	중앙 아시아	러 시아	기 타
전체		260	43.1	29.2	9.6	7.3	2.7	1.9	1.5	1.5	1.2	1.9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36.4	54.5	.0	.0	.0	.0	.0	.0	9.1	.0
	전통문화	49	34.7	42.9	6.1	8.2	2.0	.0	.0	.0	.0	6.1
	예술전반	112	47.3	24.1	10.7	4.5	5.4	1.8	3.6	.9	1.8	.0
	문화산업전반	51	43.1	29.4	5.9	11.8	.0	2.0	.0	3.9	.0	3.9
	교육	9	22.2	11.1	11.1	33.3	.0	22.2	.0	.0	.0	.0
	기타	3	33.3	.0	.0	33.3	.0	.0	.0	33.3	.0	.0

### 3. 2010년대 한·중·일 문화교류정책

2015년의 3국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문화교류 현황을 파악하기 이전에 해당 국가의 문화교류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정부의 문화교류정책에는 각 국 문화교류 부문의 현황과 현안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대응책 그리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거시적인 계획까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의 문화교류를 위한 정책과 인프라 및 지금까지 추진해온 문화교류 협력 사업들을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고찰해보겠다.

## (1) 한국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의 문화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물론 이 두 부처의 문화교류의 목적과 의도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간 우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문화교류 목적에 있어서의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문화부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발굴된 문화예술 작품과 자원과 상품을 그 창작주체인 예술가·단체를 중심으로 교류를 수행하고 그들을 통해 국내의 문화발전과 상대국의 문화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반면, 외교부는 문화단체를 활용해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적 관점을 가진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의 진정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과 문화창조성을 공유함으로서, 상호 문화발전과 우리나라의 국가 품격 제고를 모색하려는 목적적 관점에서, 외교부에서는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적인 힘’에 주목하여 외교적 성취를 위해 문화를 활용하는 수단적 관점에서 각각 문화교류를 수행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sup>6)</sup>는 우리 내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시민 모두가 우리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에 기초할 수 있도록 ‘문화가 창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교류 비전 역시 이와 같은 국가의 문화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된다고 하겠다.

2010년대 문화부의 문화교류정책 기조도 이와 같은 큰 흐름 안에 있으며, 세부과제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한 우리문화 알리기, 해외홍보인프라 확충 및 교류 확대, 국가의 대표 문화공간

---

6) 이하 문화부로 지칭.

조성 등 세계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접촉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해외거점 기구의 확대와 우리 내부의 문화적 인프라의 내실을 기하는 정책 수행이 요청되고 있다.

〈표 5〉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관련 비전 및 청책과제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전체비전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국제문화 교류비전	우리문화의 위상제고	문화한국의 브랜드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위상제고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정체성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li> <li>-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li> <li>- G20 대비 문화 교류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홍보인프라 확충 및 교류확대</li> <li>-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대표 문화 공간 조성</li> <li>- 주요국제행사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li> <li>- 우리문화의 전략적 해외진출</li> <li>-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li> </ul>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107

외교통상부<sup>7)</sup>는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선진문화외교, 공공외교, 매력국가로서의 한국이미지 확립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선진국형 문화외교, 소프트 파워 강화, 공공외교 추진 등의 세부과제에 따른 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대 외교부의 국제문화교류는 해외 거점 인프라나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해 문화를 발신하는 쪽으로 세부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콘텐츠는 한식, 스포츠, 한류 등 세계가 관심을 가지는 우리문화로써 이를 통해 외교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7) 이하 외교부로 지칭.

〈표 6〉 외교통상부 국제문화교류 관련 비전 및 정책 과제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전체비전	성숙한 세계국가 달성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sup>8)</sup>	글로벌 코리아 실현
핵심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외교 지평 확대</li> <li>○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li> <li>○ 국제 사회 내 역할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체제 구축</li> <li>- 국제평화 증진 활동 확대</li> <li>- 선진문화외교로써 국가브랜드 제고</li> <li>-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li> </ul> </li> <li>○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li> <li>○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li> <li>○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형 선진외교체계 구축</li> <li>- 공공외교<sup>9)</sup>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확대</li> <li>-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li> <li>○ 세계 공영에 기여하는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li> <li>- 개발협력을 통한 나눔과 기여 실천</li> <li>- 매력국가 한국 이미지 확립</li> </ul> </li> <li>○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외교</li> </ul>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식세계화</li> <li>- 스포츠행사지원</li> <li>- 선진국형 문화외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강화</li> <li>- 한류확산 지원</li> <li>- 한식세계화와 재외공간 문화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류확산 등 소프트 파워 강화</li> <li>- 공공외교 적극추진</li> <li>- 여수 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li> </ul>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108

두 부처가 국제문화교류에 두는 비중은 예산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문화부의 국제문화교류 예산이 외교부보다 100배 이상 많으며, 외교부가 문화예술과 문화홍보 부문에 국제문화교류예산을 모두 쏟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및 종교 교류 등 다방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8) 2011년 외교통상부 비전 검색은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검색 불능. 2010년 ‘업무평가’와 ‘2011년 외교환경’ 진단 후 비전 제시 없이 바로 핵심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었음. 2011년 비전은 현재 작업 중일 2012년 외교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됨.

9)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정부만을 상대로 하던 전통적인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예술, 지식, 미디어, 언어, 원조 등을 수단으로 상대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외교를 의미함. ; 외교통상부, 『2012 외교백서』, p.229.

〈표 7〉 문화부·외교부 국제문화교류 예산 비교

(단위: 백 만원)

구분	문화부		외교부	
문화예술 교류	17,334	5.47%	1,231	42.33%
전통문화 교류	4,941	1.56%	0	0.00%
문화산업 교류	41,701	13.16%	0	0.00%
관광 교류	1,011	0.32%	0	0.00%
스포츠 교류	191,357	60.40%	0	0.00%
종교 교류	1,137	0.36%	0	0.00%
문화홍보	56,128	17.72%	1,677	57.67%
문화협력(CODA-Cultural ODA)	3,197	1.01%	0	0.00%
합계	316,806	100.00%	2,908	100.00%

주: 정정숙,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 49.

양 부서의 국제문화교류 예산 중 한·중·일 관련 주요예산은 외교부의 경우 따로 편성된 동북아 교류 예산 안에 책정되어 있어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나, 문화부의 경우 세계 전 권역을 상대로 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어, 3국에 국한된 예산을 파악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표 8〉 외교부 동북아 교류 예산

(단위: 백만)

사업명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예산 대비율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전체 예산	1,999	4,868	4,897	0.6
2012년 ○ 한·일·중 3국 협의체 운영 167 ○ 한·일·중 협력사업 143				

주: 2012 외교부 예산자료 참고.

문화부의 주요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사업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기금의 국제문화교류지원 예산, 문화부의 선진예술교류활성화 사업 예산, 아시아 예술계 인력 양성 및 지원 관련 예산,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예산이 대표적이며, 그 외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들이 있다.

〈표 9〉 국제문화교류 사업 내 중국관련 예산항목(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10	2011	2012
문화예술기금 국제교류지원	총액	6,377	5,539	4,973
	민간국제문화교류지원	4,558	3,100	2,800
	* 2012년 중국 '798예술특구' 거점 개발 관련 한·중 작가 공동특별기획전 개최사업 지원: 40×5회=200			
	국제교류거점프로그램지원	1,245	1,839	1,584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574	600	589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총액	578	522	516
	음악원	108	98	96
	무용원	87	78	76
	연극원	55	50	49
	영상원	63	57	56
	* 2010년 한중학생 합작 단편영화 제작 프로그램 및 Summer Academy 운영			
	미술원	93	84	84
	전통예술원	30	27	27
	* 2010년 북경 한국문화원 주최 '한국 미식의 밤 행사' 참가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대외협력과	142	128	128
	총액	722	686	686
	AMA(Art Major Asian Scholarshp: 장학생 제도)	645	613	613
	*2007년부터 중국 장학생 선발			
	AMFeK(Art Major Faculty explore K'Arts: 거점대학 교수 초청 한국문화예술 연수)	77	73	73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총액	3,320	1,800	5,980
	* 한중수교20주년 행사 1,500 (CIS-420, 베트남-550, 뉴질랜드-510, 중남미-514 등 여타국가의 3배 수준 예산 편성)			

주: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예산자료 참고

개별 사업이 한·중·일 간의 교류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중·일에 한정하여 예산 총액을 도출하기 어렵지만, 그 세부 내용에서 한·중·일 교류 활성도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수교기념 행사 예산에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중국과의 수교기

년 행사 예산이 일반적인 5억원 수준보다 3배가 많은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시사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문화교류 협력관계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국제문화교류지원 예산이 2010년 대비, 2011년, 2012년에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선진예술교류활성화 사업 예산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민간 중심의 국제문화교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예산정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국제문화교류에서 일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권역별 문화교류량 비교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전체 대비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교류 비율에서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 정도이며, 이를 다시 아시아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거의 30%에 이른다.

〈표 10〉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권역별 문화교류량

(단위: 건, %)

분류		건수	백분율(%)
세계 전체		1245	100
아시아	전체	563	61.59
	일본	172	18.82
	중국	159	17.40

주: 2009~2011년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국제문화교류 포털 구축을 위한 사전 데이터 수집 결과를 정리한 내부자료 재구성.

이러한 경향은 문화부 산하 주요 국제문화교류 거점 인프라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해외소재 문화원과 문화홍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일본과 중국에 전체 시설의 약 25%(20개소)가 위치해 있다. 전 세계 영역에서 두 개국의 인프라 거점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대륙별로 한 개소만 존재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가 중국과 일본에는 나라별로 각기 한 개소 씩 배치되어 있고,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가 일본에 4개소, 중국에 9개소나 진출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문화교류 상대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해외소재 국제교류거점 현황

구분	일본	중국	기타아 시아	미주	유럽	중동/아프리카
한국문화원/ 한국문화홍보관	2	3	8	7	11	5
한국콘텐츠진흥원 지부	1	1	-	1	1	-
한국관광공사 지부	4	9	6	3	14	2

주1: 2012년도 기준

주2: 해외문화홍보원(<http://www.kocis.go.kr>),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 한국관광공사(<http://www.visitkorea.or.kr>) 홈페이지 자료(검색 2012.10.26)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은 우리의 대 일본, 대 중국 문화교류정책의 주안점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거점시설이다.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은 각기 일본과 중국 주민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문화 사업을 전개하며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상황이 각각 다르며, 일본 및 중국 내 한국의 이미지와 그 위상도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 내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일본인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한다.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제공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성격의 문화행사와 한국어 보급 사업으로,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를 통해 타문화인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최근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기금 마련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일본의 협력자·동반자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는 명실상부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주중 한국문화원의 경우 수교 역사가 짧은 만큼 주로 단기간 내 중국 내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 혹은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제공하여 아직은 낯선 한국 문화를 중국인들에게 친숙하게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인 태권도, K-POP, 한국 영화, 복식 문화 혹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중국과 다른 한국만의 독특성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 문화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중국과 다른 한국 문화만의 독자성과 우수성 및 유구한 역사성을 중국인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최근 한류를 억제하려는 중국 내 분위기로 인하여 다소 위축된 중국 내 한류 분위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주중과 주일 한국문화원은 모두 일본과 중국 현지에서 우리문화를 알리고,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일 한국문화원은 한국과 일본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와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만들고, 일본의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나누며, 역사·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관계와 이미지를 근린국으로서의 우호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주중 한국문화원은 중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의 수요를 지속시키

고 반한감정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중국문화와는 다른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전통과 현대의 생활문화에서부터 중국민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두 나라에 대한 한국 문화원의 사업 방향은 역사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어 온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상대국 내에서 우리 문화콘텐츠가 충분히 이해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콘텐츠에서부터 현대문화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제공해주는 수요자 중심의 현지 문화교류 거점 역할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12〉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 사례의 2011년 사업성과 및 프로그램

기관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주일 한국문화원 (도쿄)	문화 소개	문화홍보활동	■한일축제한마당 2011 in Tokyo (2011.10.01-02)를 통하여 한국 문화 홍보	■ 2011년도 총 79건 언론 보도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2011 개최	■ 문화교류, 시민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 ■ 사업비: 약 1억 878만 엔 -국제교류재단: 약 1,795만 엔 -문화청: 약 1,994만 엔 -기부금: 약 7,089만 엔	■ 전야제 및 본 행사: 약 62,000명 참여 ■ 동일본대지진 복원기원 기부금 전달
	언어	한국어 보급사업	■ 한국어 교사 지방 순회 연수 ■ 한국어 교사 주말 연수 ■ 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연수 ■ 〈말해보자 한국어〉 대회 개최	■ 한국어학습자의 질적 향상 ■ 한국어 교사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
주중 한국문화원 (베이징)	행사	2011 한중 태권도 한마당대회/한중 태권도 문화제	■ 2011.09.10-12 (2박 3일) ■ 주중한국문화원, 대한태권도 협회, 중국태권도협회 주최 ■ 중국 우한시공안국 지원 ■ 사업비: 약 7천만 원	■ 중국 중서부 내륙지방에 태권도 보급 ■ 우한시 공안국 지원으로 중국 공공기관 내 태권도 보급에 기여 예상
		K-POP 콘테스트	■ 예선: 2011.10.22 본선: 2011.11.05 ■ 2005년 이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위축된 한류 지속 기여	■ K-POP의 예술성과 가능성 제고 ■ 중국 내 K-POP의 위상을 제고
		Fabulous Korea @	■ 2011.11.04-05 (1박 2일) ■ 한복패션쇼 +국악공연	■ 한국 전통 문화 체험 기회 제공

기관	분야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Marrio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약 5천5백만원</li> <li>■ 이리자한복전시관, 국립부산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의상의 멋과 한국 전통국악 및 퓨전국악을 동시에 소개하는 복합 문화행사</li> </ul>
	언어	한국어 강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중 한국문화원 내 한국어 강좌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해 신청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512회 12,438명</li> <li>- 2011: 519회 13,078명</li> </ul> </li> </ul>

주: 문화부, 「주중한국문화부 성과평가최종」(2011, 내부자료); 문화부, 「동경문화원 성과평가서」(2011, 내부자료) 재구성

각 국 한국문화원은 주재국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들을 구상하면서 그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할 지표도 사업 기획단계에서 확정하고 있다. 주중 한국문화원의 경우 주로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의 개최 횟수 혹은 그에 대한 참가 인원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원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반면, 주일 한국문화원은 방문자들에 대한 수치 조사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문화 프로그램 혹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수치적인 결과와 질적인 결과 모두를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평가지표 역시 행사 횟수, 참가자 및 협력 단체의 수 등과 같은 수치적인 조사 뿐 아니라, 참가자 및 참가 단체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질적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그에 대한 성공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주일 한국문화원은 사업성과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어 우리와의 교류성공을 가늠하는데 더 용이하다.

〈표 13〉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 2012년 경영목표

기관	분야	경영목표	평가지표	실행계획
주일 한국문화원 (도쿄)	문화소개	문화원 방문 및 참여 확대	문화원 방문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문화행사 상시 개최</li> <li>■ 도서관 활성화</li> </ul>
	행사	한일마츠리 행사 개최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rea Week 방식 채택</li> <li>■ 한일문화예술인의 공동 퍼포먼스 추진</li> <li>■ 다양한 부대 행사 추진</li> </ul>
	언어	한국어 보급 활성화	만족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해보자 한국어〉 대회 실시</li> <li>■ 세종학당 운영의 충실화</li> <li>■ 한국어 강사 연수회 실시</li> </ul>
주중 한국문화원 (베이징)	문화소개	한국문화 소개 강화	개최 횟수, 참가 인원, 언론 보도 횟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강좌수료자 비율 증대 및 성적 향상 지원</li> <li>■ 한중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및 활동 활성화</li> <li>■ 세종학당에 문화 지원</li> </ul>
	행사	한중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횟수 및 참가 인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교 20주년 폐막식 지원</li> <li>■ 한중우호주간 개최 지원</li> <li>■ 특별행사 개최 지원</li> </ul>
		문화산업 교류 및 협력 확대	행사 횟수, 참가자 수 및 협력 횟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사와의 분야별 협력 행사 증대</li> <li>■ 대형 문화산업행사 주빈국 또는 일 반 참여국 역할 증대</li> <li>■ 한중수교 다큐 제작 및 영화제작 협력 증대</li> </ul>

주: 문화부, 「주중한국문화부 성과평가최종」(2011, 내부자료); 문화부, 「동경문화원 성과평가서」(2011, 내부자료) 조합

주일,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마련해 놓은 교류성과지표는 해외 다른 권역의 한국문화원의 교류성과지표와 비교를 통해 우리와 일본, 중국의 문화교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게 해준다. 해외 한국문화원 중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엔젤리스의 한국문화원이지만 단순한 방문자를 넘어, 한국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내용의 참가자 수는 일본의 오사카 한국문화원의 한국어와 문화 강좌 사업이 가장 많은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도쿄 한국문화원의 경우에도 영화 상영과 전시회 개최에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으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베이징 한국

문화원은 견학을 통한 단체 방문자들의 수가 L.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상하이는 비록 공연 개최횟수는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보다 적지만 25회의 공연에 약 6만 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공연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려준다. 상하이의 한국문화원의 영화상영회는 152명만이 참가하여, 도쿄, 오사카, 베이징, L.A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가율을 보였지만, 상영회가 오직 1회만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호응도 면에서는 41회 개최에 2,315명이 참석한(1회 당 약 56.46명) L.A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각 데이터별 수치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교류의 성과는 단순히 정량적 평가로만 파악할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표 14〉 해외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2011)

문화원	방문자 (명)	한국어 강좌 (회/명)	문화 강좌 (회/명)	영화 상영 (회/명)	전시회 (회/명)	공연 (회/명)	홈페이지 접속(명)	기타 (견학회 등 /명)
도쿄	66,729	493/7,267	201/2,291	19/6,150	29/10,520	64/21,665	1,151,346	18,836
오사카	49,371	1,781/24,183	413/4,572	24/310	7/2,613	28/11,360	333,465	6,333
베이징	73,168	519/13,078	149/3,186	51/2,307	13/1,647	34/7,113	255,742	47,637
상하이	46,019	174/12,462	74/1,478	1/152	10/991	25/57,388	82,240	11,159
LA	98,284	47/ 9,368	15/1,044	41/2,315	12/9,450	23/6,664	367,928	69,443

주: 문화체육관광부, 『2011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P. 151.

## (2) 일본

일본은 일본문화의 발신 및 국제문화의 교류활동이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국제문화교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정책 주무부처는 문화청이며, 국제문화교류정책 역시 문화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외무성이나 경제산업성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기도 하며, 이렇게 관련부서 간 연계 속에서 일본문화 발신과 외국과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청은 ‘문화예술입국(文化藝術立國)’을 비전으로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 상호 간에 연대감을 창출하며, 보다 질 높은 경제활동을 실현하는 사회,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문화예술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문화교류정책 역시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수립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근린국가로서 미래지향적인 중층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는 정치적 상이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먼저 고위층 레벨에서 빈번한 교류를 통해 전략적 호혜 관계를 심화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 대하여 문화면에서는 서양문화를 동북아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받아들인 일본 자국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아시아와 서양 문화의 융합이 가장 잘 된 선진국의 이미지로 다가가 교류하고자 하는 것이 외무성의 전략이다. 여기에 국민 협조방식의 스포츠, 청소년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의 심화를 지향한다.

〈표 15〉 일본외무성 외교전략

아시아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적인 다층적 네트워크 형성 필요 지역</li> <li>- 풍부한 인재, 높은 성장률(전 세계 70억 인구 중 48.1%가 아시아에 거주)</li> <li>-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성장의 기회와 위기의 증대를 동시에 수반</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근린국가</li> <li>- 미래지향적인 중층적 관계구축 노력</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층 레벨의 빈번한 교류(전략적 호혜 관계 심화)</li> </ul>
문화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동서문화의 유연한 수용을 통한 융합국</li> <li>- 아시아적 가치에 기초를 두고 서양의 가치를 수용</li> <li>- 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서 최초도입</li> <li>- 영국 BBC에서 실시한 국가 호감도에서 항상 1위를 차지</li> <li>- 일본에 대한 신뢰와 일본적 가치를 활성화</li> <li>- 국민 협조로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상호이해의 심화를 지향</li> </ul>

주: 일본 외교청서 일본어판(2012), p.13-14

2011년을 기준으로 각 부처의 국제문화교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산업성에서는 해외에서 인기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등 문화관련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도에 전문부서인 ‘쿨 저팬’을 신설하고,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의 시장을 조사하여 각 시장에 따라 의복, 가전제품, 애니메이션, 일본 특산물 등의 해외진출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백화점에서의 판매 착수 및 판로 상담 등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크리에이티브 일본 발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일본문화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마련을 위해 해외예술가의 일본 내 거주를 통한 창조 및 제작사업을 일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을 기획하였다.

외무성은 해외 홍보 업무와 해외와의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등의 매력을 해외로 전파하는 ‘쿨 저팬’전략의 사령탑으로서 특정부서를 신설하는 방침을 발표하여 세계 주요 국가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호감도를 높이고 ‘소프트 파워(soft power)’ 외교를 강화하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이 중국어 전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당’이나 한국의 ‘한류’ 등의 성공에 자극받은 것으로, 일본대사관의 ‘광보문화원’을 통해 일본요리교실, 일본 술 시음회, 일본패션 세미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현지의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접촉을 강화하여 일본 문화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일본문화발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일본 문화청에서는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2012) 등 굵직한 계기를 통해 더욱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문화교류사’ 사업에 있어서 전통부문을 강조하고,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표 16〉 일본 문화청의 교류 사업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포럼 참가 (4차 일중한 문화장관회의, ASEAN+3 장관회의, 5차 ASEM 문화장관회의)</li> <li>- 일본문화의 해외 발신을 위한 ‘문화교류사’ 파견</li> <li>-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동아시아 공생회의</li> <li>- 예술의 국제교류: 현대 일본문학 발신 등</li> <li>- 문화재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li> </ul>
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년에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수행: 일·중 국교정상화 40주년 (2012)</li> <li>- 아시아 국가에 파견한 ‘문화교류사(전통부문을 강조)’: 한국·중국 등</li> <li>- 동아시아 문화교류 추진 프로젝트 사업: 공생회의 개최, 문화도시 준비사업</li> </ul>

주: 『일본의 문화정책』(2012), 일본문화청, pp.54-61 참조

해외 현지에서 일본문화교류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문화센터들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세계 각처에서 일본 문화가 보급되고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물질·인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허브(herb)의 역할을 한다.

서울에도 일본국제기금 서울문화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 기구로서 한국에서 일본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문화센터는 문화 행사, 교육 및 교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일본어 보급과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알리는 고 있다.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일본 이미지 제고뿐만이 아닌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신장과 기여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및 목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에 본부를 두고 21개 해외 사무소에서 국제 문화교류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조성된 단체</li> <li>■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제 19번째 해외사무소</li> </ul>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에 대한 이해와 국제 상호이해 증진</li> <li>■ 문화 뿐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신장</li> <li>■ 더 좋은 국제 환경 정비에 이바지</li> <li>■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데 기여</li> </ul>
운영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출자금의 운용수입과 정부 교부금 및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li> </ul>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지식인·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기금 사업 실시</li> <li>■ 효과적인 기금 사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li> <li>■ 문화정보실(도서관), 세미나실 과 같은 각 중 문화시설 확보 및 제공</li> </ul>

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www.jpfo.or.kr/aboutus/intro\\_history.html](http://www.jpfo.or.kr/aboutus/intro_history.html) (검색일: 2012. 11. 14)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사업은 언어뿐만 아니라 미술, 무대예술 등의 예술 행사, 영상문화, 출판과 학술 사업,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재원과 시설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교육, 문화 행사, 문화 교류, 대관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뿐 아니라 후원 사업까지 행하고 있다는 점인데, ‘일본국제교류기금’이라는 기구를 통해 일본문화의 발신뿐 아니라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도까지 고려하며 운영되는 만큼 한·일 간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관계를 통한 세계로의 움직임까지도 염두에 둔 사업 기획력은 앞으로의 우리 국제문화교류에 있어서도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 18〉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사업방향과 내용

사업분야	사업 내용	전개방향	특이사항
교육	일본어 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기 후반기 각각 3개월간 운영</li> <li>- 전기: 3월~5월,</li> <li>- 후기: 9월~11월</li> <li>■ 상급과 중급레벨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코스당 20회 수업</li> <li>■ 고급 일본어 구사 만 18세 이상 일 반인</li> <li>■ 일본어능력시험 1급이나 2급 수 준 대상</li> </ul>
교류	조형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전통 및 현대미술 소개</li> <li>■ 세계 각국의 조형미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전: 4건</li> <li>■ 도자기전: 1건</li> </ul>
	무대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전통 및 현대 무대예술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서트: 1건,</li> </ul>

사업분야	사업 내용	전개방향	특이사항
		■ 세계 각국의 무대예술 소개	■ 연극: 2건, 축제: 1건
	영상미디어	■ 일본 영화 상영, 비대중적 외국영화 ■ 일본 관련 영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일본 내 영화제 지원	■ 무료영화: 2건, 영화제: 1건, 시사회: 1건 ■ 특별전: 3건, 심포지엄: 1건
	출판	■ 일본문학 번역, ■ 외국어일본서적 출판	■ 도서전: 2건
	학술	■ 일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 일본연구기관 지원, 연구 네트워크 지원 ■ 일본연구정보 제공, 일본연구자 지원
센터조성	경비지원	■ 일한문화교류에 이바지할 단체 지원 사업	■ 전시회·공연·영화제·학술대회 · 강연회·시민청소년교류·일본어교육사업
기타	시설대여	■ 양국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에 기여할 단체에게 총 3개의 세미나 실 대관 사업 - 대 세미나실: 1실, - 소 세미나실: 2실	■ 다음과 같은 사업 개최 시 - 한일 양국의 문화 소개, 학술 교류 활동 - 일본어 학습 활동, 국제교류 활동

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 [http://www.jpof.or.kr/aboutus/intro\\_history.html](http://www.jpof.or.kr/aboutus/intro_history.html)  
(검색일: 2012. 11. 14)

### (3) 중국

중국에서 문화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은 문화부, 교육부, 중국사회과학원, 라디오와 TV부(廣電부), 국가체육운동위원회와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 국가여유사업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은 문화부이며, 중국 국제문화교류정책 역시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표 19〉 중국 국제문화교류 담당 부서 및 산하 조직

구분	조직	기능	비고
문화부 내 교류부서	대외문화 연락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문화 교류 및 홍보사업관리</li> <li>- 중국주외문화중심사업 관리</li> <li>- 중외문화합작사업 담당</li> <li>- 대형 대외문화교류활동 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하조직</li> <li>- 의전처, 번역처, 아시아처, 대외 문화전파처, 대외문화무역처, 문화센터처(중국문화원)</li> </ul>
문화부 산하단체	중국대외문화 집단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 위탁으로 중국과 세계 각국 정부간 문화교류 프로젝트 실시</li> <li>- 국내외 공연 및 전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li> <li>- 국내외 공연전시 자문</li> </ul>	
	중외문화교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예술단체의 중국내 공연과 전시회 개최 지원</li> <li>- 국제회의의 조직, 국제간 학술교류 및 방문 등 지원</li> <li>- 각종 예술단체의 해외공연과 전시회 개최</li> <li>- 정부 및 민간의 문화예술교류활동 및 국내외 대형활동 홍보</li> </ul>	

주: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부 내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은 대외문화연락국이며, 이 곳은 아래 권역별, 기능별로 특성화 된 부처를 두고, 대외문화교류 및 홍보사업, 중국 주외문화 중심사업, 중외문화합작사업, 대형 대외문화교류활동 등을 관리, 지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문화정책과 국제문화교류정책은 2011년 초에 발표된 제12차 5개년 계획(十二五)<sup>10)</sup>에 나타나 있고, 2010년대 전반을 관통할 중국의 문화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문화교류정책인 ‘대외문화교류와 무역 강화’가 6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문화중국’ 사업 전개 △해외 중국문화원 건설 △대외문화산업과 무역 촉진 사업, △홍콩·마카오·타이완 중화문화전승사업’이라는 4가지 주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2015년까지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10) ‘오년계획(五年计划)’은 중국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주로 전국 차원의 주요 건설 항목, 생산력분포와 국민경제중요비율관계 등에 관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경제발전의 청사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이다. 1953년 제1차 5년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십이오(12차 5개년계획)’이 시행중이다. 출처: 중국 百度百科 (바이두 백과 온라인) <http://baike.baidu.com/view/29796.htm>

‘해외 중국문화원 건설사업’은 태국,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세르비아, 나이지리아 등에 문화원 설립을 진척시키고, 시 차원의 합리적이며 완비된 기능을 갖춘 해외 중국문화원의 네트워크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문화와 문화우수상품 및 작품을 보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중국문화원 국가도서관 분관 계획, 문화원 현대매체응용계획, 중국문화 단기과정 개발계획, 문화체험 시연기지 계획 등의 구체사업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대외문화산업과 무역 촉진 사업’은 중국문화의 해외보급을 문화산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계획으로, 중화문화우수상품 및 작품 보급계획, 대외문화무역정보 서비스계획, 외향성 문화기업지원과 상품 육성·보급계획, 대외문화무역 플랫폼 건설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중화문화전승사업’은 중화권의 통합체제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이며, 중화문화 지식·기술의 지속적 전승계획, 문화우수상품 및 작품과 브랜드 교류·보급 계획, 홍콩·마카오·타이완에 대한 문화예술과 산업협력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2011년 문화부문 계획은 ‘십이오(12차 5개년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중국문화 해외보급을 위한 내부 조직 체계의 정비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하겠다. 문화교류사업 시스템 개선과 함께 중앙-지방 간, 국내-외 간, 문화부-중앙정부 유관부문 간, 문화부-직속기관 간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협력체제 구축, 대외문화교류조례 입법 검토 등의 계획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쌍방교류정신에 입각한 제11차 베이징 회의 등 중대 문화활동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는 내용은 중국이 국제적인 문화교류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20〉 2011년 문화부문 6대 중점추진사항

6대 중점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문화활동의 철저한 준비 및 조직</li> <li>○ 문화관련 시스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개혁 추진</li> <li>○ 일반인들이 중심이 되는 공공문화서비스 시스템 구축 가속화</li> <li>○ 문화산업 발전 플랫폼 건설의 가속화</li> <li>○ 대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문화교류 및 협력 심화</li> <li>○ 문화법률체계의 개선</li> </ul>
-----------	--

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여유국 홈페이지(<http://www.cnta.gov.cn>)

그러나 ‘십이오(12차 5개년 계획)’에서의 중국 국제문화교류정책 기조에서 보듯 중국의 정책은 그 기저에 중화적 문화의식이 내포된 것으로, 쌍방향적 교류를 지향하는 새로운 선진적 세계문화교류패러다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문화산업분야에서 최근 몇 년 간 수립되고 시행된 규제정책이다. 중국은 외국 문화산업으로부터 자국 문화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 문화산업 상품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저작권 보호에 관심을 쏟고,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자국 문화산업 수출 활성화에 힘을 쏟는 반면, 외국 문화상품에 대해서 음악콘텐츠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수입 허가증을 획득한 중국기업만이 문화상품을 통한 경영이 가능토록 하거나, 라이선스와 관련한 모든 모바일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업과 투자에 있어서 외자 기업 개입 불가 방침을 세우는 등 타국 문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해 문화교류 상대국으로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교류에 장애가 되는 자국중심적 정책들로 현대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에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부에서 결정된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사업을 중국 밖에서 수행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기관은 재외 중국문화원이다. 중국이 세계 각 권역과 수교관계를 맺은 역사가 짧은 만큼 재외 중국문화원의 수는 적은 편으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중국문화원의 수는 9개원이다.

그런데 해외 소재 중국문화원 현황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가장 이른 진출 권역이 아프리카의 두 나라인 점이다. 이는 모두 공산권 국가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본격적으로 수교관계를 맺기 이전 정치적으로 유사한 체제를 가진 국가에 대해 체제 우호적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중국문화원을 시작하였음을 알려준다. 이어서 200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중국문화원의 해외진출이 시작되었는데, 역시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가장 먼저 개원하였고, 그 다음은 유럽 문화의 정통적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파리에 진출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 일본보다도 훨씬 먼저 개원하였다.

〈표 21〉 재외 중국문화원 현황

건립연도	소재지(소재국)	권역
1988	모리셔스	아프리카
	베냉	아프리카
2002	카이로(이집트)	아프리카
	파리(프랑스)	유럽
2003	몰타	유럽
2004	서울(한국)	아시아
2008	베를린(독일)	유럽
2009	도쿄(일본)	아시아
	울란바토르(몽골)	아시아

주: 2010년 기준 ; [http://www.chinaculture.org/focus/node\\_50003919.htm](http://www.chinaculture.org/focus/node_50003919.htm)

주한 중국문화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문화교류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 기구이다. 한국에 소재하여 중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이해하려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에 대한 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중·한 문화 인사들이 교류할 장을 마련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22〉 주한 중국문화원의 설립 목적 및 전략

목적	전략
■ 중국문화와 현대 중국의 발전상에 대한 정확한 소개	• 중국을 이해하려는 한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 서비스 제공
■ 중한 양국의 문화교류 강화에 기여 및 양국 국민의 이해와 친선 도모	• 중국어 포함 중국 문화 강좌 및 여러 문화 활동 개최
■ 중한 양국 문화에 대한 협력관계 증진	• 문화교류를 하는 각 계 인사들에게 교류와 친선의 장을 제공

주: 주한 중국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http://www.cccseoul.org/main/main.php> (검색일: 2012. 11. 14)

주한 중국문화원은 문화 교육, 행사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 교육을 통한 자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해도 증진에 주력한다. 언어 외의 문화프로그램으로는 태극권 강좌와 민속무용 공연 등 중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전통 문화 보다는 중국현대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표 23〉 2012년 주한 중국문화원의 사업방향과 내용

분야	내용	전개방향	특이사항
교육	중국어 강좌	■ 총 17개 강좌 운영 ■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운영 중	• 10주 과정 • 대부분 강좌 신청 전 레벨테스트 실시. • 주중 및 주말 반 개설. • 중·고급 레벨부터는 중국어로만 수업
	중국 문화 강좌	■ 총 3개의 강좌 운영 ■ 중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추구	• 중국어로만 진행 • 중국어 강좌의 일환으로 시행 중
	태극권 강좌	■ 총 2개의 강좌 운영 -태극권1(8식): 1 강좌 -태극권2(24식): 1 강좌	• 주말반(토요일)만 운영 중
행사	전시	■ 총 9개의 전시 실시 -회화전시: 3건, 사진전시: 5건, 조각전시: 1건	
	공연	■ 총 5개의 공연 실시 -콘서트: 2건, 연극: 1건, 민속무용 및 현대무용: 2건	
	강연	■ 총 4개의 강연 실시	
	체험 및 발표회	■ 총 2개의 체험 및 발표회 실시 -체험: 1건, 발표회: 1건	
기타	대관사업	■ 지상 2층의 기획전시실과 지하 1층의 다목적 홀에 대한 대관 사업 진행 -대관 기준 ① 중국 관련 행사 개최 여부 ② 비영리 순수 공익 문화 예술행사의 경우	

주: 주한 중국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http://www.cccseoul.org/main/main.php> (검색일: 2012. 11. 14)



#### 4. 한·중·일 양자·다자간 문화교류 협력 현황

2000년대 이후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 사업은 정부와 공공부문과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2015년 3국 문화교류 협력 관계를 전망하기 위해 양자, 다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사업의 현황 조사는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협력을 다자, 양자 간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활성화 정도와 주요 교류콘텐츠, 체감효과, 만족도, 장애요인 등의 구체적 현황을 서술하고 분석한다.

먼저 다자 간의 교류 사업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각 국가 정상급과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삼국 문화교류 협력 관계에 대한 거시적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양자 간 교류 현황을 살펴본 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교류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관계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 (1) 다자 간 문화교류협력: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한·중·일 3국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중·일 문화산업콘텐츠 포럼,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를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각 분야의 교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3국의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수장과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문화교류, 문화산업, 문화관광에 대해 논의하는 세 회의는 3국 간 교류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문화교류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며, 협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주로 정부, 공공,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실질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이 합의되고, 사업의 내용이 제안되며, 안정적으로 교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시적 로드맵이 확정되어, 3국의 교류협력관계를 지속시키는 제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내용으로서의 선언문 등이 발표된다.

### 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문화예술·문화재·문화산업·문화관광 전체를 종합하는 각 국 문화정책의 총괄 책임자 간 만남으로 문화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 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방향타적 회의이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5년 한국의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이 일본 문부과학대신과의 면담 시 제안한 것으로, 당시에는 ‘일본 국사 교과서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2년 후인 2007년 3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한·중·일 문화부장관포럼’ 개최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2007년 9월 중국 남통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문화다양성 원칙에 입각한 3국의 문화적 전통의 보호와 발전, 그리고 동북아문화의 세계권역 발진을 위한 3국 공조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선언문이 공표되었다.

2007년 제1차 남통회의에서는 3국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합의하는 개념적인 협의에 머물렀지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산업 저작권 보호 협력 강화, 한·중·일 문화유산의 보호·전승을 위한 협력 강화, 공동창작 사업의 추진 등 협력의 방향과 구체 사업들이 설정되고, 제3차 나라회의에서는 앞선 결의안들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연대를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고, 제4차 회의에서 ‘액션플랜’이 탄생함으로써 실질적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표 24〉 1, 2, 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선언문의 정책지향

구분		제 1회 공동선언문 (2007, 중국 남통)	제 2회 공동선언문 (2008, 한국 제주)	제 3회 공동선언문 (2011, 일본 나라)
정책적 지향		문화다양성 원칙에 입각한 3국의 문화적 전통의 보호 와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문화예술·문화산업·문 화유산 분야의 교류·협력 내용 구체화와 3국 문화의 대외 홍보를 위한 협력 강화	3국 문화협력에 대한 국민 차원의 상호 이해 증진과 각국에서의 국민문화향유 권 증대
문화 교류 사업 초점	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교류	문학,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에서의 공동창작 및 인적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제작사업 강화</li> <li>- 민간 주도의 문화교류사 업 지원</li> <li>- 3국 각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개최</li> <li>- 관광진흥</li> </ul>
	문화 산업	지적 재산권 보호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보호</li> <li>- 정규 콘텐츠의 유통 촉진 을 위한 협조</li> </ul>
	문화 유산	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문화 및 학술분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 협조</li> <li>- 문화유산 보호기술의 공 동 개발 및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차원의 교류 확대</li> <li>-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 유산 국제센터의 연계</li> </ul>

주: 문화부 내부자료 참고

‘제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동의된 액션플랜에서는 ‘평화 우호, 평등 호혜, 협력강화, 공동발전’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향후 3년간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다.

〈표 25〉 제 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액션플랜’ 내용

구분	내용
문화예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문화예술도시 행사 개최</li> <li>○ 한·중·일 예술제(또는 동아시아 예술제) 개최</li> <li>○ 한·중·일 청소년 예술가 교류행사 적극 지원</li> </ul>
문화산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개최 지원</li> <li>○ 문화기업의 상품개발,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확대 진흥</li> <li>○ 애니메이션, 게임 등 신흥산업 교류협력 강화</li> </ul>
문화유산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의 보호·개발 및 박물관 등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li> <li>○ 무형문화유산 부문의 교류·협력 강화</li> </ul>

주: 문화부 내부자료 참고

우선,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와 ‘한·중·일 예술제’ 또는 ‘동아시아 예술제’(가칭)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는 3국 국민에게 다양한 타국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개최도시의 문화적 발전 및 인지·영향력 제고, 도시경제의 번영을 이룩함과 동시에 3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3국은 ‘동아시아 문화예술 도시’에 자국의 우수한 예술가, 연출단체, 전시작품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감상’의 정신을 발현시킨다는 취지에 합의하였다.

‘한·중·일 예술제’ 또는 ‘동아시아 예술제’는 전 세계에 3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의 발전성과를 알리려는 사업이다. 3국은 이 행사를 다른 권역 국가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데 동의하였고, 전 세계 국민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동아시아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고, 문화 다양성과 문화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문화유산분야에서는 3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호 및 개발하는 동시에, 보호방법·자료정리·정보공유·홍보소개·대중개방 및 전시 등의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별 박물관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상대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각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연구, 인재교육, 정보네트워크 등의 업무를 상호 지원할 것을 재차 표명했다.

문화산업분야에서는 각국이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관련 기업과 기관이 본 포럼을 정보교환과 협력도모, 공동발전의 무대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또 문화기업이 상품 개발,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교

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진흥정책 수립 및 실시를 통하여 3국의 문화산업 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특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신흥산업을 3국 문화산업 분야의 새로운 협력 포인트로 삼을 것에 동의하였다.

제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액션플랜은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산업 분야에서 3국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각국 국민들이 3국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서로의 이해를 돕고, 유연한 관계와 연대형성의 기반을 만들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통해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브랜드를 구축하여 세계로 발신시키고자 하는 의도 역시 엿보인다. 특히 문화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최대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최대 교역국이 될 수 있는 3국의 관계를 인식하여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② 한·중·일 문화산업콘텐츠 포럼

‘문화교류 추진과 3국 문화산업 발전 증진’이라는 주제 하에 미디어·엔터테인먼트·애니메이션·인터넷·온라인게임·TV산업 관련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에 최초로 한중일 문화산업콘텐츠 포럼이 개최되었다.

2003년 제주에서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3국의 정부대표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지역 문화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후 고위 정부 관리뿐만 아니라 3국의 산업대표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럼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이 포럼은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예술 및 음악, 촬영기술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와 각 시기마다의 이슈를 3국 정책실

무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눔으로써 3국 문화산업의 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각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9년에는 <부산선언문>을 채택하여, 국제문화산업을 위한 정부 간 협력기반 설립의 새로운 시도으로써,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를 시행하는 문화산업협력 대책위원회, 즉 한중일 콘텐츠산업 협력 TF팀을 발족하기로 하고, 제1차 <한중일 콘텐츠산업 협력 TF> 회의를 2010년 5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삼국은 한·중·일 콘텐츠 산업 분야 협력사업 개발 및 세부추진 계획과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운영 실무협의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산업 협력분야와 관련해 한중일 콘텐츠시장 통계 및 비즈니스 기반 정보 공동조사 사업 실시, 인터넷상의 지식재산 침해 대책 연계, 문화산업분야 인재·학술교류, 공동제작사업 추진 및 해외 시장 공동개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MOU 체결과 한중일문화산업콘텐츠 포럼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한·중·일 문화산업콘텐츠 포럼의 최근 안건들은 3국이 문화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성장을 위해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분야 가운데에서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분야로 시장개발을 위한 정보 공유와 지적재산권 보호가 꼽히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③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2003년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3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2006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제1회 회의를 시작

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매년 한·중·일 3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업계, 학계 대표 등이 참가하여 3국의 관광교류협력을 통한 발전적인 미래의 동북아 관광 시대 구현을 목표로, 3국 간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 관광교류협력 확대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한·중·일 관광교류의 미래비전에 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2010년에는 3국 관광장관회의, 관광업계교류, 청소년교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여 3국간 관광분야 교류·협력 메커니즘의 강화·지속, 입국수속 간소화 등을 논의하고, 3국 관광교류의 확대,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협력 및 친환경 녹색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저탄소관광 이니셔티브’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항주선언’을 채택하였다.

2011년 5월 29일 강원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관광위기상황에 대한 3국 공동대응체계 구축, 2020 한·중·일 관광교류 2600만 명 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한중일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체결 추진, 한중일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광교류계획'과 '한중일 관광골든루트 10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평창선언’을 채택하였다. 또 '투어리즘 비전(Tourism Vision) 2020'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는 데도 합의하였다.

이렇듯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의 최근 결의 내용들에는 최대 교류국이며, 또 상호 시너지 효과의 수혜국이기도 한 3국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분야 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각 국별이 아닌 상호 간 연계 속에서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환경의 변화와 위기상황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이나, 공정관광 이니셔티브의 체결, 한중일 관광골든루트 10선 사업 등은 동

북아를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인식하는 공통의 입장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 (2) 양자 간 문화교류 협력

한·중, 한·일 양자 간 문화교류협력은 정부, 공공, 민간 차원 할 것 없이 다방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활성화 된 3국 간 문화교류협력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의 전체적 상황과 개별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연계해 살펴보겠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관광 부문의 3국 간 교류협력 현황을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요추진사업들의 목적과 특징, 그리고 진행현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① 문화예술 부문 교류협력

#### ○ 한·중, 한·일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전체적 현황

문화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문화 교류 건수를 조사한 결과, 61.59%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권역의 국가를 상대로 한 교류였다. 아시아 권역 내부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30.55%, 28.24%로 평균 30%에 가까운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세계 전체에 대한 비율로 환산해 보면, 일본과의 교류가 18.82%, 중국이 17.40%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류에 있어 한·중, 한·일 간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6〉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권역별 문화교류량

일련번호	분류		건수	백분율(%)
1	유럽		201	21.99
2	북아메리카		93	10.18
3	남아메리카		25	2.74
4	아 시 아	전체	563	61.59
		일본	172	대 아시아 30.55 대 세계 18.82
		중국	159	대 아시아 28.24 대 세계 17.4
5	아프리카		17	1.86
6	오세아니아		15	1.64
합계			1245	100

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포털 구축 예비조사', 2012년 내부자료 참고

교류 형태별로 살펴보면, 세계의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빈도로 교류된 것은 축제/행사였다. 이는 아시아를 벗어난 세계권역에서는 아직 우리문화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계기별 행사나 문화축제를 통해서 문화교류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문화동반자사업이나 펠로우쉽 등 공적원조 공여국으로서 인력을 파견하거나 연수인력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적교류 형태가 다수였다.

〈표 27〉 문화부 산하 기관들의 형태별 국제문화교류 현황 (단위: 건, %)

일련 번호	분류	전체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1	공연/전시	76	8.32	15	19.74	11	14.47	27	35.52
2	학술행사	85	9.30	19	22.35	14	16.47	29	34.12
3	국제회의	121	13.24	17	14.05	26	21.49	24	19.83
4	견본시	30	3.28	2	6.67	7	23.33	2	6.67
5	인적교류	82	8.97	15	18.29	14	17.07	49	59.75
6	대회/경기	18	1.97	5	27.78	4	22.22	4	22.22

일련 번호	분류	전체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7	협약	125	13.68	22	17.6	28	22.4	32	25.6
8	조사/답사	135	14.77	35	25.93	24	17.78	24	17.78
9	축제/행사	176	19.26	32	18.18	23	13.07	33	18.75
10	기타	66	7.21	10	15.15	8	12.12	16	24.24
합계		914	100	172	18.82	159	17.40	240	26.25

주1: 백분율은 세계 전체 건수에 대한 비율임.

주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포털 구축 예비조사', 2012년 내부자료 참고

일본과는 대회/경기를 통한 문화교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의 경우 견본시(見本市)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하는 교류의 형태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의 정치체제의 특성,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구조나 상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를 향하여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개방되어 있는 제한적인 요소로 인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활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다원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과의 공식적 수교의 역사도 짧다. 따라서 민간이 주체가 되는 교류를 지향하는 선진적 국제문화교류의 패러다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문화 분야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육성책을 펴는 등의 국가적 관심을 보이고 있어 다른 양상을 띤다. 견본시가 가장 활성화된 교류형태로 나타난 것이 그 예로 아직은 세계의 선진 문화산업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후진적인 중국이 견본시라는 형태를 통해 세계의 선진문화산업 시스템을 접하고, 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일본은 대회/경기 형태의 교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조사가 문화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

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 즉 정부와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류만이 정량적으로 수합된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양적인 교류 수치에 가려진 교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98년에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양국 간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써 개방 이후 우리와 일본은 상당히 활발한 문화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이제는 정부나 공공적 차원을 넘어 민간차원에서도 교류가 활성화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특히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공공차원의 교류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본과의 문화교류로 국가·공공적 차원에서 가장 큰 행사로 매해 치러지고 있는 ‘한일축제한마당’이 풀뿌리 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트마켓 사업 네트워크의 지속 등 민간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기관 별 교류 건수는 중국과 일본 모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간 교류가 가장 많았다. 이는 박물관, 미술관이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인프라로 교류를 위한 전문인력을 상비하고 있는데다가 문화재 혹은 예술작품을 통해 비교적 쉽게 서로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원과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이할 점은 중국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통한 교류도 일본에 비해 훨씬 많은 수를 나타냈는데, 뒤의 구체사업에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청소년 교류를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교류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28〉 문화부 산하 기관 별 국제문화교류 현황(단위: 건수)

구 분	전체	일본	중국
국립국어원	41	8	10
공연단체(음악, 무용, 극예술 등)	43	6	7
박물관 및 미술관	335	94	63
교육기관	60	6	15
도서관	78	6	6
문화체육관광부	318	50	54
해외문화홍보원	34	2	4
합계	909	172	159

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포털 구축 예비조사’, 2012년 내부자료 참고

아직 한·중, 한·일 간 문화예술교류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각국의 문화수준과 취향, 향유실태가 각기 다른 수준에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트마켓’ 사업이다. 유럽과 북미, 호주, 싱가포르의 공연예술마켓과 비교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트마켓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공연예술교류의 장으로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한·일 간의 경우 아트마켓이 시작된 다음해인 2006년부터 MOU를 맺어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데 비해 중국 아트마켓과는 아트마켓 초창기인 2005년과 2006년 이후 연계를 지속하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 아트마켓이 일본보다 규모는 크지만, 실제 문화예술교류 성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의 내부적인 견해에 의하면, 중국 아트마켓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서커스 등 공산권 국가에서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공연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선호화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중국 아트마켓을 통한 해외 홍보효과도 떨어져 교류협력을 지속할 의미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교류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한다.<sup>11)</sup>

11) 문화부의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계 특정 산하센터의 국제교류부 전(前) 부장과의 전화 인터뷰(2012년 10월)

중국 아트마켓의 전반적인 수준은 아직 사회주의체제 속에 갇혀 있던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제문화 페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오히려 정부나 대기업을 통해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 성장세와는 달리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세계와 쌍방향 교류를 하기까지 아직 더 많은 변화와 투자가 요구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중·일 3국 간에도 문화적 격차로 인해 서로 자유롭게 교류를 수행하는 수평적 관계가 구축되기에는 약간의 장애가 동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29〉 2012년 국가별 공연예술마켓 개최 현황

국가	마켓	개최 시기	마켓 규모
중국	SPAF	매해 10월 개최	400여명 참가
일본	TPAM in Yokohama	매해 2월 개최	20개국 200여명 참가

\* 기타

- 독일(International Tanzmesse NRW, 2012.8.29~9.1) : 42개국 1,000여명 참가(230개 기관 및 단체 참가 102개 부스 운영/29개국 60개 쇼케이스 공연)
- 스페인(Fira Tarrega, 2012.9.6~9) : 스페인, 유럽, 중남미 800여명 (공식 쇼케이스 60여편)
- 미국 뉴욕(APAP Conferenc, 매해 1월 개최) : 27개국 3,400여명 참가(389개 부스/588개 쇼케이스)
- 캐나다(CINARS, 짝수년 11월 개최) : 40개국 1,090여명 참가(121개 부스 / 공식 쇼케이스 27개, 오프 쇼케이스 51개)
- 싱가포르(Live! Singapore, 매해 6월 개최) : 52개국 1,300여명 참가
- 호주(APAM, 짝수년 2월 개최-2012.2.26-3.1) : 25개국 600여명 참가(해외참가자 165명)

주: 「서울아트마켓 사업계획서」, 2012, 문화체육관광부

### ○ 한·일 간 주요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한일문화교류회의(일본은 ‘일한문화교류회의’라고 호칭)‘는 1998년 10월 한일정상회담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과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문화교류 전반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회의체이다.

한·일 양국 간의 문화·예술교류를 촉진하여 양국 국가 간·

국민 간의 문화교류를 폭넓게 증진시킴으로써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 내의 협력자로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사회에 공헌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99년 시작 이래 한일 양국의 문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교류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문화단체들이 추진하는 교류사업을 지원하기도 하며, 미술전시, 전통음악회 등 서로의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한일지방자치단체간 교류실태’ 조사, 일본에 ‘한국문학소개’ 등의 학술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해왔다.

올해(2012년) 열린 회의에서 양국 작가를 장기 초빙해 공동문학작품을 집필하게 하는 ‘대학 상주작가 프로그램’ 도입과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면제의 확대와 간소화, 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되는 양국 공동 방송국 개설 등을 의제로 논의가 있었다.

2005년부터는 한·일 양자 간 뿐 아니라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 포럼도 개최하여 3국의 지식인과 문화인들이 매년 상호국을 방문하여 한·중·일 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교류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의 기회도 마련함으로써 한·중·일 다자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한일문화교류행사이다. 교류 콘텐츠는 순수예술과 대중문화까지 포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주체는 청소년, 일반시민 등 민간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일관계 증진 및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관료 중심으로 시작되었지

만, 점차 풀뿌리 교류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우호와 협력의 분위기가 돈독해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011년의 ‘한일축제한마당’의 서울 관객 수가 45,000명에 달했으며, 일본에서도 하루 평균 30,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양국에서 많은 관심 속에 행사가 치러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9월 말에서 10월 초 행사가 열려 많은 기업,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 집계된 수가 300명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후원 속에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졌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9년부터 추진한 ‘일본근대 미술 자료조사’ 사업이나 국립대구박물관과 오사가 박물관의 인적교류,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교류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의 ‘한·일 고문헌 연구교류’ 사업과 문화재 보존 처리를 위한 협력 사업 등 다각적으로 문화교류가 수행되고 있다.

### ○ 한·중 간 주요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문화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다. 1994년 문화예술, 언론, 학술, 교육, 영화, 텔레비전, 출판, 체육 및 청소년 분야를 포괄하는 ‘양국 정부 간의 문화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체결된 이래, 1997년 한국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 소개되면서 우리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에 양국 문화교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사업은 ‘한중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으로 대표된다. 중국 내 한류(韓流)와 한국 내 한풍(漢風)의 지속적

인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한·중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의 중국 유명 인사 초청 미래지향 교류사업 등 주로 인적교류에 치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국악고, 전통예술중고등학교 등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문화탐방사업, 양국 청소년 대표단 상호방문 사업과 같이 미래에 양국 간 교류의 주체가 될 청소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한중 우호주간 사업은 중국문화의 일부로서 한국문화를 인식하는 중국내의 잘못된 우리문화에 대한 인식과 오류를 바로잡고, 최근 유행하는 한류에 대한 문화잠식 우려로부터 비롯된 반한류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우리문화를 알리고, 한류에 대한 반감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동시에, 우리 측의 중국에 대한 문화교류 정책(쌍방향 문화교류)을 인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K-pop 경연대회, 한식 세계화 행사 등 중국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문화 행사나 음식 등 친근한 콘텐츠로 접촉지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해외문화홍보원 등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 및 이슈를 고려 해 중요 이해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단기 체류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 및 대중문화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체험과 한국경제 및 사회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할 기회를 갖는다.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깊이 있게 통찰하기는 어렵지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한국 모습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진행하여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해 가졌던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향후 한국문화의 정확한 문화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한 교류 사업이다.

이 외에도 미술부문의 문화교류로서 해외예술교류거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798예술특구 거점개발 관련 한·중 작가 공동특별기획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영상부문의 문화교류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주관하는 한·중 간 영상물 공동제작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0〉 한국공연단체의  
중국공연(2008~2010)

(단위: 건)

연도	건수	장르	소속
2008	12	-패션쇼: 1 -무용: 1 -음악: 1 -음악+무용: 1 -연극: 6 -기타: 2	-국립: 3 -공공: 1 -민간: 7
2009	6	-연극: 1 -인형극: 1 -무용: 3 -B-Boy: 1	-국립: 3 -민간: 3
2010	7	-무용: 2 -음악: 1 -연극: 2 -기타: 2	-국립: 2 -민간: 5

〈표 31〉 중국공연단체의  
한국공연(2008~2010)

(단위: 건)

연도	건수	장르	소속
2008	2	-연극: 1 -무용: 1	-국립: 2
2009	5	-뮤지컬: 1 -연극: 2 -기타: 3	-공공: 5 -민간: 1
2010	5	-연극: 2 -음악: 1 -기타: 2	-국립: 1 -공공: 3 -민간: 1

주: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pp. 49~56.

아트마켓 교류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와 중국의 간양자 간 문화예술교류에서 가장 빈도가 낮아서 교류활동이 저조한 분야는 순수예술, 그 중에서도 공연예술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과의 공연예술 교류는 주로 극예술에 치중된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파견하여 실시하는 방문공연 교류 횟수가 더 많고, 공공과 민간의 비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의 공연이 많은 반면 중국은 체제 특성에 기인한 공공단체,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 산하 예술단체들의 공연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문화예술교류협력은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2년이 매우 중요한 해였다. 2011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우리와 중국은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러 양국 간 문화동반자 관계 구축 및, 민간교류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감 조성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수교기념 행사의 3배에 가까운 15억 원의 예산을 중국과의 수교기념행사에 편성하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중국문화 관련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지원하였다.

문화제 및 순수예술 교류로는 국립경주박물관의 ‘당 기념전’, 국립현대미술관의 ‘중국현대미술전’을 비롯하여 베이징 수도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시대 사람들의 한평생’ 전시 등 양국에서 상호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대중문화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와 중국의 ‘국가 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약칭 ‘광전총국·廣電總局’)이 공동 주최하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한국 영화제’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각각 열려 2000년 이후 한국 영화의 대표작들이 중국 관객들에게 소개되었다. 이외에도 K-pop 콘서트, 서울시에서 개최한 한·중 보도사진전 등 수교를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활발한 문화예술교류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중국과의 대대적인 수교기념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지금 당장의 교류규모 확대효과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두 나라 간 교류의 기회가 되어, 교류협력관계가 좀 더 밀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② 문화산업 부문 교류협력

### ○ 한·중·일 문화산업 교류협력의 전체적 현황

한일, 한중 양자 간 문화산업부문에서의 협력은 1990년대 일류를 거쳐, 2000년대 한류로 이행되며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동북아 3국의 문화콘텐츠산업 시장 잠재력은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의 증가율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시장규모는 세계 2위, 중국이 4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고 있어 미래 문화산업교류에 있어 중시해야할 상대국임에 틀림없다.

〈표 32〉 세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 상위국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06	2009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06~09	10~15
1	미국	455,520	429,912	443,144	555,277	-1.9	4.6
2	일본	164,687	172,768	174,036	197,035	1.6	2.5
3	독일	81,733	85,106	87,296	103,010	1.4	3.4
4	중국	47,583	75,085	85,543	148,229	16.4	11.6

주: PWC(2010),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0~2014〉

(대상 장르가 영화, TV, 음악, 라디오, 옥외광고, 인터넷광고, TV광고, 인터넷접속, 신문, 잡지, 서적, B2B출판 등 내수(소비) 시장규모로 국내 콘텐츠산업통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2000년 이후 한국 문화산업 교류는 꾸준한 상승추세이지만, 초반 성장세를 이끈 영화는 2005년부터 거품이 빠지면서 해외에서의 인기가 급락하여 수출액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교류 건수가 아닌 편당 단가의 하락이 원인으로 수출편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방송수출은 2008년 이후 증가폭은 다소 저조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음악시장은 최근 K-pop 인기의 영향으로 2009년 대비 약 2배 가량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문화산업 교류의 이러한 성장세가 일본, 중국과의 교류 증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2009년에 이미 우리문화산업의 최대수출대상국 1, 2위를 일본(27.2%)과 중국(23.9%)이 차지했고,<sup>12)</sup> 2011년에는 방송수출액 중 39%가 일본, 12%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확보된 것이었으며, 영화수출에 있어서도 일본이 23.1%의 비중을 차지하며 교역량 1위를 차지했다. 중국으로의 영화수출액 비중은 수치상 6.3%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전년대비 약 2배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표 33〉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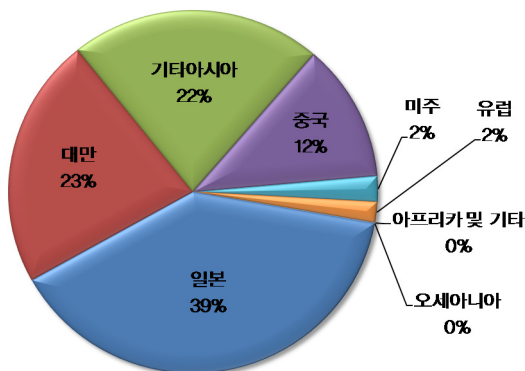
구분	음악	방송	영화
2006	188	1,669	277
2007	157	1,837	276
2008	186	2,036	238
2009	353	2,083	160
2010	940	2,583	153

〈표 34〉 2010-2011 한국영화 수출 비중

순위	구분	2010	2011
1	일본	16.6%	23.1%
2	미국	10.5%	10.4%
3	독일	6.5%	9.4%
4	중국	3.8%	6.3%

주: 〈문화콘텐츠 수출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05~2012 〈콘텐츠산업통계〉 재구성

<2010-2011 한국영화 수출 비중>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센터, 2011 <한국영화산업결산>



[그림 6] 2011 방송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주: 문화체육관광부, 「2011 방송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콘텐츠산업통계』, 2011

12) 2012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예산자료, p. 497.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은 한국의 문화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한국문화상품인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게임 등이 한국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지의 일본인의 86%, 중국인의 70.7%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본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파급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본인의 80%, 중국인의 63.4%가 한국문화상품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한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데 동의했다.

〈표 35〉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한국 이미지 상관수준      〈표 36〉 한국문화상품에 대한 주변인의 한국 이미지 상관수준

구 분	중 국	일 본	구 분	중 국	일 본
매우 긍정적	6.9	52.0	매우 긍정적	6.7	22.0
긍정적	63.8	34.0	긍정적	56.7	58.0
보통	27.6	14.0	보통	35.0	20.0
부정적	1.7	0.0	부정적	1.7	0.0
매우 부정적	0.0	0.0	매우 부정적	0.0	0.0

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08),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조사연구〉

최근 3국 간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사실도 3국의 문화산업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데 대한 반증이다. 한·일, 한·중 간에 이미 2009년부터 저작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한중저작권포럼’과 ‘한일저작권포럼’이 개최되고 있었고, 2010년부터는 동북아 3국이 중심이 되어 범아시아 저작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2011년에 이 계획을 구체화 하여 기술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 한·일 간 주요 문화산업 교류협력 사업

양국 간 문화산업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도 도쿄에서 열린 ‘한일영상비즈니스포럼’이 있다. 현대 문화산업의 중심

부문인 영상산업분야에서 양국의 위치를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학술행사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일본영상산업진흥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일 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 가능성 고찰 및 검증을 시도한 회의로 양국 문화산업계 전문가 124명이 참가해 발표 및 토의를 진행했다.<sup>13)</sup>

한·일 문화산업 교류협력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계 배우나 가수가 일본 기획사에 소속 되어 현지에서 활동하거나 반대로 일본의 문화산업계 관계자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형태를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보아가 일본에 첫 공식 진출한 이래 동방신기가 2009년 일본에서 CD와 DVD 등 음악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판 가수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최근까지 한국의 여러 K-pop 가수들이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일본 측 대중문화예술가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외에 한국과 일본이 영상물을 공동제작하는 형태로도 양국 간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한국의 삼화네트웍스와 일본의 일본방송작가협회가 협력한 ‘텔레시네마 7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일본 최고수준의 현역 각본가 7명이 2008 한일특별기획 『텔레시네마』의 공동 참가를 결정하고, 각본을 집필하여 삼화네트웍스가 저예산 TV영화 7편을 제작했다. 텔레시네마 제작사는 일본 측 작가들의 시놉시스와 시나리오 집필 일정에 맞춰 한국의 연출자와 연기자를 캐스팅했는데,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연출력이 검증된 한국의 TV드라마와 영화 감독들이 각각 자신의 컬러에 맞는 작품을 연출하고 아시아권에서 팬을 확보하고 있는 한류 스타들을 캐스팅 해 한국, 일본 시장을 비롯해 범아시아 시장을 겨냥 하여 제작하였다. 일본 국내와 아시아 각국에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TV 영화 각본가 7명이 동일 프로젝트를 위해 동시에 참가하는 것은 전례를

13)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문화산업백서』, p.127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이 드라마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한·일, 나아가 동아시아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새로운 협력방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텔레시네마를 통해 한·일간 나아가 동아시아 드라마 창작자들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창작의 리소스가 확대됨으로써 드라마의 질적인 향상과 아시아콘텐츠 시장의 통합의 가증성을 보여주었다.

### ○ 한·중 간 주요 문화산업 교류협력 사업

한국과 중국 간 문화산업 교류는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01년 9월 문화부 산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북경에 중국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중국사무소는 양국 간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중국의 문화산업시장 환경을 분석해 문화산업계에 실질적인 중국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중국 잠재 시장을 목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계에 도움을 제공하고 자 중국 문화산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하는데 중점을 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국사무소는 진흥원이 해외에 가장 먼저 개소한 지사이며, 가장 많은 상주직원을 배치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문화산업 교류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 문화산업 포럼’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2년부터 매년 중국(북경)에서 개최한 행사로 한중 교류와 협력에 있어 쟁점사안에 대한 이슈로 기업교류에서부터 공동제작 및 합작, 지적재산권 등 문화산업계 전 분야를 관심영역으로 삼고 있다.

문화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이니만큼 시기별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는데, 가장 최근 열렸던 2011년 포럼에서는 반한류로 드러난 한중 문화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한중 문화산업 현안 및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최근 한중간 정

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불기 시작한 양국 간 교류협력을 문화 산업 분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한국과 중국 간 문화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수렴하는 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초청사업”은 차세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반(협)한류가 조성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차세대 언론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학보사 기자단을 초청하여 젊은 세대들에 의해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슈화 되어 확대·재생산되는 반(협)한류 기류를 완화하고 양국 간 우호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서울대학교 학보사 기자단과의 간담회와 한류콘서트 현장 체험,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교류활동을 통해 양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다.<sup>14)</sup>

공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중 문화산업교류는 미래의 전도유망한 시장으로서 중국 문화산업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최적의 진출과 한류의 대대적 유행으로부터 비롯된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 해소라는 두 가지 축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민간차원의 중국과의 문화산업교류는 그 시장의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의 기대가 있지만, 실제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국의 정치·산업적 장벽에 부딪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가 잦다. 중국 정부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체제유지에 문화산업 개방이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자국문화산업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해외미디어기업에 의한 문화시장 잠식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광전총국은 2006년에 한국 드라마 수

14)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0 콘텐츠산업백서』, p.184



입을 제한하고, 2012년에는 황금시간대 외국드라마 및 영화 방영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하여 양국 간 문화산업교류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위성방송, 동영상사이트를 통한 시청은 증가해 실질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매체의 첨단화로 시청 연령층이 지속적 소비가 기대되는 계층인 10~20대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당분간 한류의 확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 측면에서도 좋은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루트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중 문화산업교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인 완성된 드라마 수출보다 합작드라마 제작, 포맷판매 등 그 형태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공동제작 형태의 협력 사업은 주목해 볼 만한 교류형태이다. 영상산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제작 초기 형태였던 로케이션 촬영에서 최근의 공동 투자, 인력교류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장동건이 출연 해 화제가 되었던 <무극>은 국제시장 개척을 목표로 한 한·중 간 첫 공동제작 영화였다. <무극>은 중국의 차이나필름과 홍콩의 성카이필름에서 80%, 미국의 몬스톤엔터테인먼트와 한국의 쇼이스트가 각각 10%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을 취했다. 장동건이 중국에서 한류배우로 가지는 인지도로 인하여 중국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부문과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투자비중이 높은 쪽의 문화적 취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타깃을 다각화하지 못했던 데 실패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공동제작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중 공동 제작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국제공동제작 형태로 제작된 영화는 규제조치와 부가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

나라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각 국가의 영화 지원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영화제에 참가하거나 중국 영화상 등을 수상할 수 있으며, 중국 내 세금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갖는다. 또한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는 중국 내에서 중국 국산영화의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영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당분간 중국의 문화산업규제정책 하의 교류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가운데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③ 문화관광 부문 교류협력

한·중·일 삼국간의 역내 관광 교류는 최근 중국 관광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삼국 관광협력을 위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2006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중일 역내관광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아웃바운드관광 정책규제의 완화 및 경제발전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확대는 중국 아웃바운드관광 시장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의 관광시장 발전과 확대는 지리적으로 탁월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삼국이 각각 추구해온 2000년대 이후 거시적인 관광정책 틀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제관광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중, 한일 양자 간 국제관광 교류의 발전현황 및 발전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 ○ 한·일 관광교류 현황

문화관광분야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외래객의 약 33%를 차지하는 제 1 인바운드 시장이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 대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0~2011년 증가율이 8.8%

였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매월 20~30%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원화대비 엔화강세에 의한 쇼핑관광의 증가, 한-일 간 항공노선의 확대, 한류확산,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사회분위기 침체로 위축되었던 일본의 해외관광활성화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5)</sup>

〈표 37〉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023,009 (-1.0)	3,289,051 (8.8)	244,370 (24.5)	294,317 (33.0)	360,719 (34.4)	298,656 (35.7)	316,598 (34.9)	302,383 (18.6)	299,477 (8.8)

주1: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한국관광동향」; 이성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가치와 전망』 제7호(2012.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 재인용

방일 한국인 관광의 경우도 일본 전체 외래객의 35%를 차지하는 제일 관광교류국이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후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여행은 매월 평균 30%씩 감소하여 2011년 전체 전년 대비 -32.0%의 감소율을 보였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는 일본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일본정부는 위기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정상선언을 통해 2015년까지 3국간의 인적교류 규모를 260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2011년 8월에는 일본 재건을 위한 전략을 수립, 이를 해외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발신하고, 해외 관광당국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PR활동의 강화, 직장인의 휴가취득 분산화를 통한 국내관광 수요촉진 등을 추진하였다.

2012년 일본의 주요 국제관광 정책은 지진피해로 인해 급감한 외

15) 이성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가치와 전망』 제7호(2012.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

국민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실현하여 향후 2019년까지 외래관광객 2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지원, 강력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 때문인지 한국의 방일 관광은 2012년 3월부터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상황이다.<sup>16)</sup>

〈표 38〉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요 현황

(단위: 명)

2010	2011	20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439,816 (53.0)	1,658,073 (-32.0)	173,397 (-35.0)	169,206 (-27.0)	150,722 (-27.0)	152,722 (139.4)	157,400 (87.3)	152,100 (46.5)	189,700 (35.4)

주1: (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2: 일본정부 관광국(JNTO) : 이성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가치와 전망』 제7호(2012.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 재인용

한·일 관광교류는 20~30대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행목적은 주로 여가와 위락, 쇼핑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본 여성 관광객의 경우에는 환율차를 이용한 저렴한 쇼핑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관광객이 많아 쇼핑관광이 주요한 관광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또 이들은 재방문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다녀갈 수 있는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양국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으로, 이는 방한 일본인 관광객 체류기간이 방한 외래객 평균인 7.5일 보다 짧은 4.2일인 것에서도 나타난다.

〈표 39〉 한·일 관광교류 실태

구분	방한 일본인 관광객	방일 한국인 관광객
성별	여성 59%, 남성 41%	여성 비중 증가
연령	20대 21%, 40대 19%	25~29세 증가, 30~40대 감소
목적	여가/위락 50.8%, 사업 23.6%	여가/위락 45.8%, 사업 28.5%
횟수	1회 49%, 4회 이상 21.2%	1회 33.9%, 3~5회 22.1%
체류기간	평균 4.2일	평균 3.5일

주: 한국관광공사, 「2011 방한관광시장 분석」; 일본정부관광국(JNTO), 「主要訪日旅行市場の基礎データ」, 2010; 이강욱, 이성태/쿠로스 히로시, 손용훈, 「한·일 관광시장 영향요인 분석 및 중장기 전망」, 2009; 이성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가치와 전망』 제7호(2012.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6 재인용

16) 이성태(2012), p.4

일본과 한국의 관광교류는 지금까지 상호 최대 시장으로서 활발한 전개를 보였다. 최근 독도문제 등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는 정치적 이슈들이 많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개별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나 천재지변 등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로 도출된 바 있다.<sup>17)</sup> 그러나 일본의 2011년 동북부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와의 관광동향에서 보듯 천재지변도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 지속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양국 간 관광교류의 열쇠는 관광대상국의 콘텐츠와 이미지가 좌우하는 것이며, 이에 국가차원의 국가이미지정책과 홍보 그리고 민간차원의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요망된다.

### ○ 한·중 관광교류 현황

2000년 중국국민의 방한관광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래 SARS가 발생했던 2003년을 제외하고 방한 중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방한 중국인의 수는 약 44만 3천명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래 관광객의 8.3%를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약 222만명으로 약 22.7%를 점유했다.

특히 2011년 방한 중국인이 전년대비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안화 절상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중국 관광객의 해외여행 증가 및 구매력 상승,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일본 방문이 우리나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비자발급 완화 노력으로 중국인 단체관광뿐만 아니라 개별여행 비자까지 완화되었고, 겨울연가, 대장금 등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가 K-POP으로까지 발전한 것 역시 중국 관광객 증가의 원인이라 하겠다.<sup>18)</sup>

17) 이성태(2012), p.7.

18) 정광렬, 조현성, 김희수(2011), 「중국 관광객 특성 및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4~5.

순수관광목적의 중국인 수는 2000년 약 19만 4천명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1백만 명을 넘어서 중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율로 보아도 2000년 순수관광목적 방문비율이 43.8%였음에 비해 2011년에는 59.1%로 나타나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국인의 전체적인 방한과 함께 순수관광객 역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중국인의 방한관광을 살펴보면,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중에 약 1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다. 특히 올해는 중국 중추절(9월30일)과 국경절(10월1일)이 겹치고 중국과 일본 간의 센카쿠 열도 분쟁까지 겹쳐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약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들의 경쟁이 치열하였다. 중국관광프로그램에서도 일본처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더불어 기업 인센티브 투어와 회의 단체 및 청소년 교류단체 등의 관광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40〉 방한 관광객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방한외국인		방한중국인	
	전체	관광목적	전체	관광목적
2000	532.2	387.4	44.3	19.4
2005	602.3	434.7	13.2	31.4
2010	879.8	636.7	39.7	101.2
2011	979.5	720.3	18.4	131.3

주: 최경은, 「한중수교 20년, 관광교류 현황과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2012.8.22), p.9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는 2000년 134만 5천여 명에서 2005년 3백만 명을 넘어서 2011년 418만 5천여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순수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005년 176만 3천명, 2011년 196만 3천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에게 중국은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겠다. 이는 전체 방중외국인 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봐도 드러나는데, 인접국으로서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중국방문은 2000년대 초반의 15%내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도 2003~2007년까지는 16~18%로 약간 증가했던 것이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15.4%를 기록했다.

〈표 41〉 방중 관광객 현황

(단위: 만 명, %)

구분	방중외국인		방중한국인	
	전체	관광목적	전체	관광목적
2000	1,016.0	-	134.5 (13.2)	-
2005	2,025.5	934.5	354.5 (17.5)	176.3 (49.7)
2011	2,711.2	1,221.8	418.5 (2.7)	196.3 (48.1)

주1: ( ) 안의 숫자는 전체 방중외국인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주2: 자료출처: 중국국가여유국의 2001~2011 자료를 활용한 최경은, 『한중수교 20년, 관광교류 현황과 시사점』, 『KCTI 가지와 전망』(2012.8.22), p.11 표 재구성

한·중 관광교류는 양국 상호 관광객 증대를 위한 협력, 국가적 차원에서는 방문허가제의 완화, 민간차원에서는 상대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등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교계기 행사 등 여러 요인들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인의 방한관광은 수적인 면에서 2010년대 들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고, 앞으로 한·중 관광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하려면 현 시점에서 장·단기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관광지원 정책과 참신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④ 한·중·일 문화교류 정책기조·현황·환경의 종합적인 비교분석

종합적으로 한·중·일 삼국의 교류정책과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류·비엔날레 등·현황과 환경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적인 면에서 한·중·일 3국은 모두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 문화의 발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국의 문화발신을 적극 주도하는 교류 주체로서는 일본은 정부와 민간의 협치를 근간으로 하되, 문화예술 분야는 민간이 중심이며, 중국은 전체적으로 정부 중심이고, 한국도 정부와 민간이 협치하는 형태이되, 문화예술 분야는 민간이 점차 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히, ‘자국 문화 발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3국 모두 자국 언어의 해외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점은 공통점이며, 물론 이는 유럽 등의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이를 ‘세종학당’과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자학당’은 2002년 국무회의에서 제안되어 2004년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2006년 베이징에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그 운영을 본격화하였다. ‘공자학당’은 2010년 10월까지 91개국에 314개소의 분원을 건립하였다. 한국의 ‘세종학당’은 2001년에 설립된 한국어세계화재단을 뒤이어 2012년에 세종학당으로 개명된 기관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2년 국제문화교류기금이 설립되면서부터 일본어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러한 공식적인 루트 외에 민간차원에서도 언어 발신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42〉 한·중·일 문화교류의 정책기조와 환경의 비교

구분		문화예술 분야 교류	문화산업 분야 교류	문화관광 분야 교류
한국	정책	- 기조와 교류수행 주체: 문화강국, 정부·민간 협치 - 한국어 발신(1990~ ) : 세종학당 2012년 현재 43개국 90개소 <sup>19)</sup>		
	현황 (대표)	광주 비엔날레(1995~) <sup>20)</sup>	K-pop, 드라마, 영화	아시아 중심의 교류
	환경	-서구형 보편예술 추구+전통발신 -국가브랜드 순위: <div>전통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33위, 32위 현대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9위, 20위</div>		



구분		문화예술 분야 교류	문화산업 분야 교류	문화관광 분야 교류
일본	정책	- 기초와 교류수행 주제: 문화 발신국, 민간 중심 - 일본어 발신(1972~ ): 국제문화교류기금 2012년 기준 21개국 22개소 <sup>21)</sup>		
	현황 (대표)	아시아 미술전 (1979~ ) <sup>22)</sup>	J-pop, 패션, 음식	재해로 마이너스 상황
	환경	- 서구형 보편예술 추구+전통발신 - 국가브랜드 순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전통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10위 권외, 7위            현대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2위, 4위         </div>		
중국	정책	- 기초와 교류수행 주제: 소프트파워 강국, 정부 중심 - 중국어 발신(2004~ ): 공자학당 2010년 10월 기준 91개국 314개소 <sup>23)</sup>		
	현황 (대표)	상하이 비엔날레 (1996~ ) <sup>24)</sup>	C-pop, 영화	세계를 대상으로 함
	환경	- 서구형+사회주의 체제에 근간을 둔 개방+전통발신 - 국가브랜드 순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전통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2위, 6위            현대문화의 실체와 이미지: 10위 권외, 5위         </div>		

19) 2008년 대통령 지시로 ‘한글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되었고, 2009년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이 제출되어 세종학당재단 설립이 협의되었다. 이는 2010년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2012년 국어기본법의 발효와 함께 10월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하였다.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www.sejonghakdang.org/nuri/sjc/SJC\\_Main](http://www.sejonghakdang.org/nuri/sjc/SJC_Main)

20) 2년마다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창안되었다. 싱가포르, 상하이 비엔날레와 함께 아시아 3대 비엔날레로 광주를 발진지로 하는 한국-아시아-세계 현대미술의 장이다.

광주비엔날레 사무국 홈페이지 [www.gwangjubiennale.org](http://www.gwangjubiennale.org)

21)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국제 문화교류 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1972년 창설되었다. 세계 시민의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어 강좌프로그램 및 일본문화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국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일본이 세계에 공헌할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더 좋은 국제환경을 정비하여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 국제문화교류기금 홈페이지 <http://www.jpf.go.jp/e/index.html>

22) 후쿠오카시는 예로부터 아시아 문화의 수용창구로 역할해 왔는데, 이를 모티브로 시립미술관을 개장하면서 5년마다 ‘아시아 미술전’을 열어왔다. 1990년대 들어 아시아가 일본 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이곳에서 열린 ‘아시아 미술전’을 1999년부터 ‘후쿠오카 트리엔날레’로 발전시켜 3년 주기로 열게 되었다.

후쿠오카 미술관 홈페이지 <http://fukuoka-art-museum.jp/>

23) 공자학당은 중국어 보급·발신 기관으로 2002년 국무위원 천츠리의 제안으로 기획되어 2004년 서울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2006년 베이징에 본부를 설립하여 중국어의 해외보급을 본격화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교류사업으로는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2,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박람회형 미술축제가 있다. 1990년대 이후 아시아 미술이 주목받으면서 내부적 역량강화와 해외로의 발신을 위해 베니스, 상파울루, 휘트니 비엔날레 등의 서구식 모델을 옮겨 와 마련된 것이다. 아시아에서 이런 형태의 예술 교류의 장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의 문화예술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인 1979년 후쿠오카 시립 미술관에서 시작된 ‘아시아 미술제’이며, 이는 1999년 후쿠오카 트리엔날레로 연결되었고, 그 역사나 내용적 풍부함은 세 국가 중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1995년 광주비엔날레는 2012년까지 9회를 거쳐 오면서, 광주를 예술의 발신지로 삼아 명실상부한 아시아 미술 축제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은 광주 비엔날레 출범 이듬해인 1996년부터 상하이 비엔날레를 개최해 왔으나, 2004년까지는 로컬이벤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따른 세계인들의 중국미술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광주, 싱가포르 비엔날레와 함께 아시아 3대 비엔날레로 급부상하였지만, 아직 운영 면에서나 전시되는 작품의 수준은 여타 국제적 비엔날레에 미치지 못한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세 국가 모두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산업은 ‘한류’라는 고유명사로 지칭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초반에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K-pop이 주된 콘텐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콘텐츠의 확장은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이 한류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J-pop, 패션, 음식 등으로 일본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을 사왔으며, 특히

공자학당 본부 홈페이지 <http://www.hanban.org/>

- 24) 1996년 시작된 상하이 비엔날레는 상하이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미술축제이다.  
상하이 비엔날레 사무국 홈페이지 <http://www.shanghaibiennale.org/>

아시아, 그중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정치·경제적 갈등 상황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1990년대 중화권인 홍콩 영화가 ‘홍콩 느와르’라는 특정 장르로 지칭될 만큼 호황을 누렸지만, 현재는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2011년 발표된 정책안에서 내부적 정비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빠르게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그 시장 잠재력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3국은 최다 교류국으로 서로를 중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주력 대상에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과 중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재해로 인해 관광산업이 주춤한 상황이며, 중국은 보유한 관광자원에 비해 관광시스템의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교류는 그 특성상 수치상으로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각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므로 그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고, 질적인 파악 역시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평가지표로서 국가브랜드 순위를 활용해 3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제문화교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 현대문화의 국가브랜드 순위가 실체 9위, 이미지 20위로 한류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부문에서 비교적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체 순위에 비해 이미지 순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우리 문화가 실제보다 저평가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전통문화의 경우 실체와 이미지 순위가 각각 33위, 32위로 모두 낮게 나타나 한국 전통문화를 아시아와

세계에 좀 더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류와 문화산업교류, 관광교류의 정책적 지원과 전략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 국가브랜드 순위가 가장 높아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인 발전 상태만이 아니라, 문화교류 부문에 있어서도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일본의 현대문화 실체순위는 2위, 이미지 순위는 7위로, 한국과 같이 현대문화에 대한 국가브랜드 순위가 전통문화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체순위가 이미지 순위보다 높아 역설적으로 실체면에서 저평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통문화에 있어서는 실체 순위는 10위권 밖인데 비해 이미지 순위는 7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실체 순위 2위, 이미지 순위 6위인 전통문화가 실체 순위 10위 권외, 이미지 순위 5위인 현대문화보다 높은 순위를 보여 중국 전통문화의 실제적 역량이 높고, 실체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체로 세계인들이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대문화는 실체순위에 비해 이미지 순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 중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가 실체보다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세계인들이 중국을 대체로 문화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 (3) 한국 공공·민간 부문의 일·중과의 교류 현황: 서베이 조사

#### ① 조사개요

##### ○ 조사목적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 실태조사는 2003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2005년(동북아시아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실태조사) 이후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연구가 수행되는 것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통계적 사실과 전문가의 견해에 기반하여 2015년을 대비한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문화교류의 빈도는 어느 정도이며, 교류의 현장에서 직접 교류활동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교류의 효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류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다면, 교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탁상공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실무자들의 현장의 소리가 빠진 그야말로 허구적인 이상적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문화교류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 기반한 자율적 활동이 주목되고 있는바, 설문조사 대상은 정부의 국제문화교류 실무진 뿐 아니라 민간단체 중 국제문화교류 전문단체를 설문대상으로 포함시켜, 관민 간의 협력 양태와 교류의 유형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 ○ 조사설계

〈표 43〉 설문조사 개요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 전화, 이메일, 팩스 조사 (Multi-Method Survey)
조사대상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전문가와 실무담당자 - 민간 국제문화교류 전문단체의 전문가와 실무담당자
표본크기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91개 -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개 - 총합계: 569개
조사기간	2012.10.22 - 2012. 11.06.

## ○ 응답자 개요

조사 대상으로는 교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 비교, 교류 대상국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과의 특성 비교를 목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 전문단체들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문화부문 교류의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의 단체가 민간부문에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대상 집단이 적었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작업은 유의미성이 약한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표 44〉 응답자 개요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569	100.0
기관 소속	광역자치단체	58	10.2
	기초자치단체	12	2.1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3.7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84.0
기관 성격	문화재	25	5.2
	전통문화	96	20.1
	예술전반	217	45.4
	문화산업전반	122	25.5
	교육	14	2.9
	기타	4	0.8

## ② 조사결과

먼저 일본·중국과의 문화예술 교류협력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97%가 넘는 기관이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치 역시 일본 97.4%, 중국 97.3%로 별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일본, 중국의 양국과의 교류협력 관계가 이미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중국 (N=219)



### 🇯🇵 일본 (N=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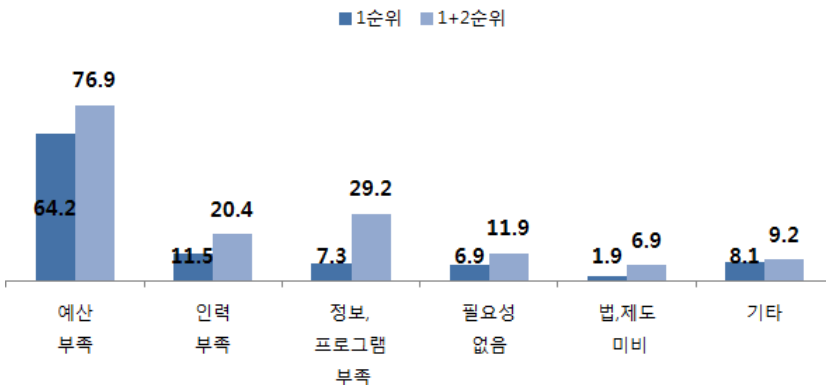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 실태

문화교류 협력 빈도는 일본과는 평균 3.13회, 중국과는 평균 2.49회를 나타내 세계권역 평균 교류 횟수인 1~2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중국을 비교하면 일본이 0.42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일본과의 교류협력 평균횟수가 더 많았기 때문인데, 특히 민간부문 교류협력의 경우, 일본이 3.29회 중국이 2.43회로 거의 일회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교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한지 20년 밖에 되지 않은 중국에 비해 교류가 오래 지속된 일본과 교류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에 따라 민간교류 역시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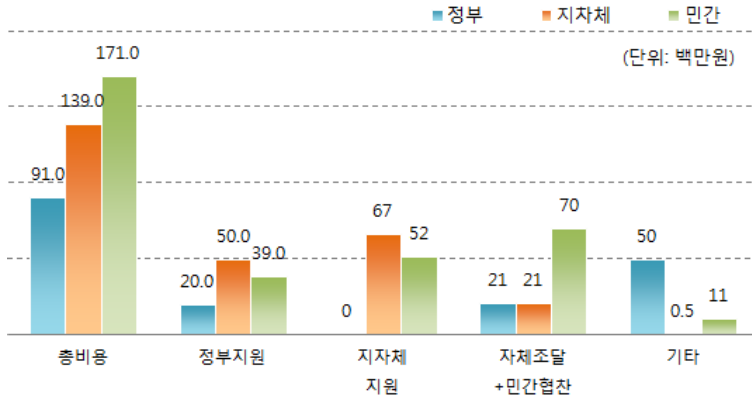
[그림 8] 기관별 일본, 중국과의 교류협력 평균 횟수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가장 큰 이유로 예산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인력부족과 정보·프로그램 부족을 꼽아 문화교류 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이 재원의 확보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대상들은 전체의 3%미만에 해당되는 기관과 단체의 장애요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류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림 9] 일본·중국과 문화교류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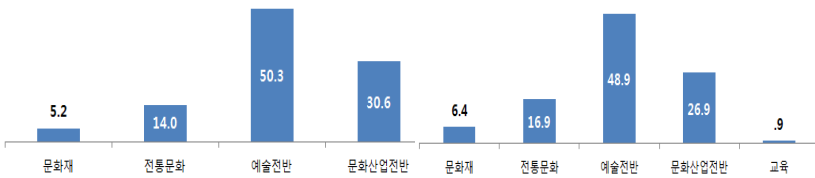


문화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본과 중국 모두 전체적으로는 초청의 형식이 파견보다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국가별, 수행기관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초청비율이 높은 가운데, 전통문화와 문화산업전반을 다루는 기관의 비율이 문화재와 예술전반을 다루는 곳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는 초청이 파견보다 28.2%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국의 경우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다루는 기관은 파견의 비율이, 예술전반과 문화산업전반을 다루는 기관은 초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 분야는 초청보다 파견이 18.2%나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동이 용이치 않은 문화재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초청, 파견 방식의 교류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45〉 기관성격별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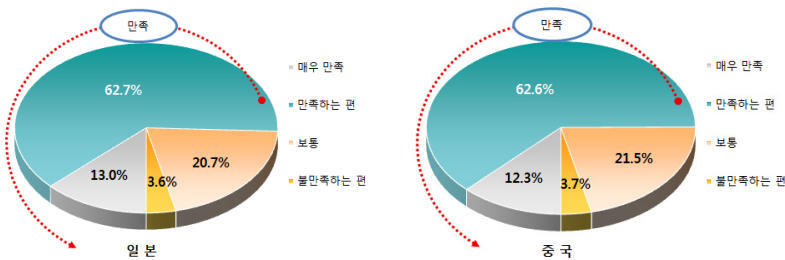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일본		중국	
		초청	파견	초청	파견
전체		44.6	33.7	43.8	35.2
기관성격별	문화재	37.5	37.5	27.3	45.5
	전통문화	43.5	34.8	41.2	47.1
	예술전반	39.7	36.5	42.5	32.9
	문화산업전반	56.5	28.3	45.7	37.0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 협력을 시행한 장르는 두 나라 모두 예술전반이 1순위로 꼽혔고, 2순위로는 문화산업전반이라는 응답이 나와 상대국에 관계없이 예술분야의 문화교류가 가장 활발하고, 문화산업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 샘플이 예술영역의 기관이 높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예술관련 기관이 45.4%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50.3%, 중국과의 48.9%라는 비율은 기타의 영역에서도 예술교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화산업 부문도 조사대상은 25.5%였으나 일본과의 30.6%, 중국과의 26.9%를 보면 높은 편이며, 결과적으로 전통문화 영역이 예술부문과 산업부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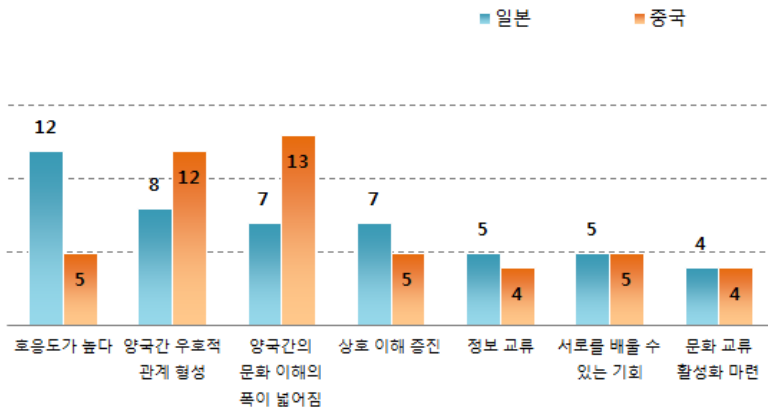
[그림 10] 일본과의 문화교류 장르 [그림 11] 중국과의 문화교류 장르

일본·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일본 75.7%, 중국 74.9%로 나타나 긍정적 수준을 보여주었고, 일본, 중국 사이의 차이도 0.8% 정도여서 국가별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관계 만족도

그러나 만족하는 이유는 일본, 중국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사업 결과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는 점을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양국 간 문화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순위로는 모두 양국 간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1, 2순위로 나타난 만족의 이유들은 양국 간 교류 주체들이 실제로 교류가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우호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13]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에서 만족하는 이유

불만족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었으나, 일본과 중국의 경우, 양측 모두 예산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뒤를 이은 내용으로는 일본의 경우 ‘자체 시스템의 문제’나 ‘지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반한인사들로 인한 원활한 진행의 어려움’이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는 인식적 이유를 들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보 부족’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 소통의 문제와 ‘지원 부족’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등의 구조적 문제, ‘갑작스런 일정 변경’이나 ‘계약의 문제’ 등 신뢰성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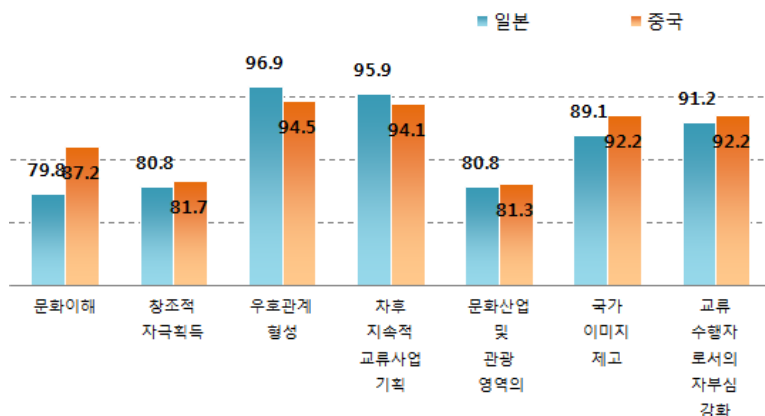
〈표 46〉 일본과의 문화교류협력관계 시  
불만족 이유

일본	
불만족 이유	사례수
예산 부족	3
자체 시스템의 문제 발생	1
정부지원필요	1
지원 부족	1
반한인사들로 인한 원활한 행사 난이	1
보수적 성향으로 인한 난이	1

〈표 47〉 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관계 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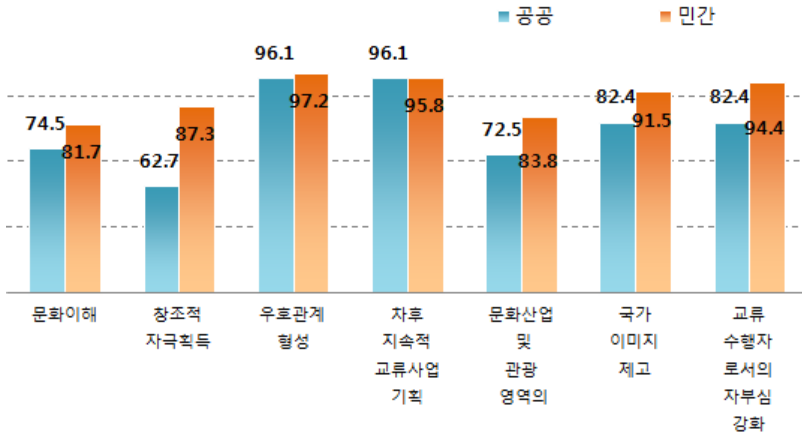
중국	
불만족 이유	사례수
예산 부족	3
정보부족, 언어 소통 난이	각 1
프로그램진행 미숙, 진행부족	각 1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한 난이	1
갑작스런 일정 변경	1
계약 부분에 문제가 많다	1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협력 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 모두 ‘우호관계 형성’과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차순위에서는 ‘교류수행자로서의 자부심 강화’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나란히 꼽았는데, 순위는 양국의 경우에서 모두 같았지만,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여 일본은 1, 2 순위가 중국보다 높게, 중국은 3, 4 순위가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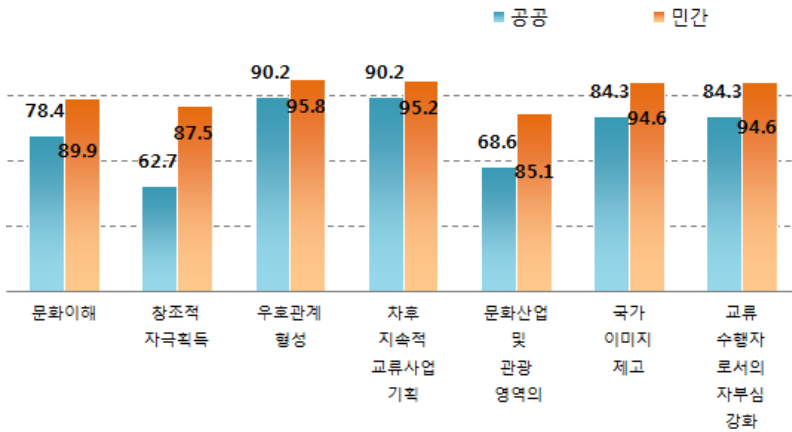
[그림 14] 일본,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효과

일본, 중국과 교류협력시의 효과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라는 수행기관별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두 국가 모두 민간부문에서 더 높은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수행기관 별 일본과의 교류협력 시 교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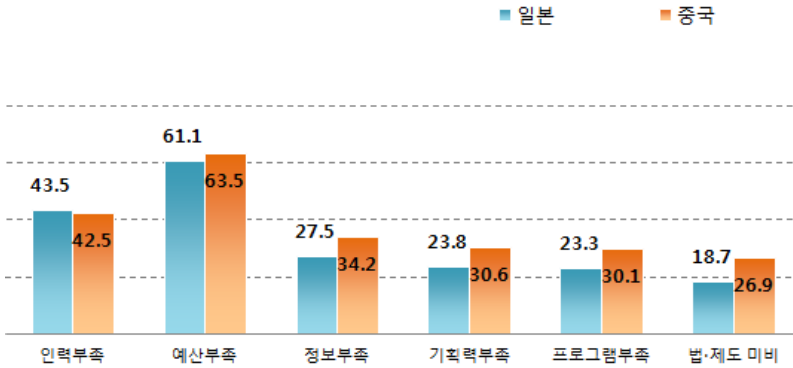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1, 2순위인 ‘우호관계 형성’과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의 경우에는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거의 없었으나, 차 순위로 갈수록 다소 차이가 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창조적 자극 획득’의 면에서 공공과 민간 간 체감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 교류가 공공부문의 교류에 비해 좀 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그림 16] 수행기관 별 중국과의 교류협력 시 교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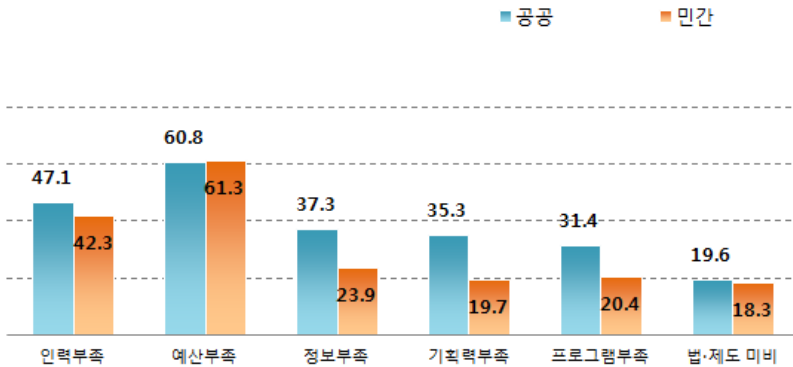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는 1, 2순위에서도 민간교류와 공공교류 사이에 5%의 격차가 있어 민간, 공공 부문에서 느끼는 체감효과가 일본보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적 자극 획득’의 면에서는 일본과 동일하게 민간, 공공 간 차이가 확연하였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에 대해 겪는 어려움은 다르지 않았는데, 양국 모두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고, 차 순위로 ‘정보부족’과 ‘기획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1순위로 나타난 ‘예산부족’의 경우 앞서 교류를 하지 않는 3%의 기관도 1순위로 지적하여, 국제문화교류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그림 17] 일본,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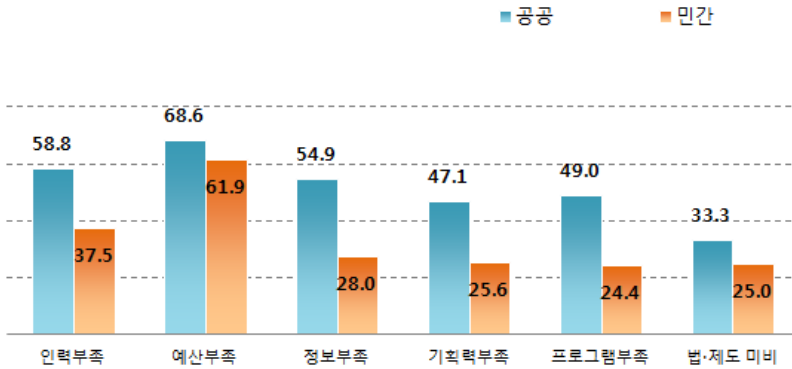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의 차이를 알아보니, 앞선 체감 교류효과와는 달리 1순위인 예산부족을 제외하고는 공공부문 교류에서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격차가 벌어진 영역은 ‘기획력 부족’으로, 앞서 효과에서 가장 많은 격차가 ‘창조적 자극 획득’의 면에 있었던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18] 수행기관 별 일본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일본과의 교류협력에서는 1, 2순위로 지정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그리고 6순위의 법·제도의 미비는 민간, 공공 간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중국은 예산 부족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공부문 교류와 민간부문 교류 간 두 자리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 공공, 민간 교류 간 체감하는 어려움의 격차가 대체로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9] 수행기관 별 중국과 교류협력 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민간주체가 공공주체에 비해 체감효과는 높게 느끼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낮게 여기고 있는 조사 결과는 앞으로 한·중·일 문화교류에 있어 지향해야 할 전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자율주체에 의한 자율교류, 즉 풀뿌리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면서 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미래 한·중·일 문화교류의 주된 흐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2.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략



## IV.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망과 전략

### 1.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본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에서 나타난 특성은 한·중 간의 문화교류가 기존의 한·일 간의 문화교류 이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문화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영화수출도 규모와 비중은 적지만 95%(2010→2011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유학생은 일본에 비해 30배에 달하며, 체류자도 3배이다.

이러한 추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속화로 인한 중산층의 문화·관광 소비 욕구의 증대 및 인접국가에 대한 접근과 인접 문화 상호 접근의 용이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공히 자국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산업의 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대중문화의 교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문화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의 형성과 팬덤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한·중 간 인식과 관심도 한·일 간과 비교할 때 2배 수준이며, 국내 체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전통문화와 드라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교류는 콘텐츠의 다각화를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표 48〉 중국 유학생 수 증가 추이

구분	2001	2005	2011
총계	3,963	15,577	88,468
중국	1,182(1)	9,378(1)	63,059(1)
일본	621(3)	1,061(2)	2,083(5)
기타(차순위 국가)	대만: 626(2)	대만: 678(3)	몽골: 4,958(2)

주: ( )는 순위

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http://cesi.kedi.re.kr/>)

〈표 49〉 중국인 국내체류자 현황

구분	2000	2005	2011
총계	210,249	747,467	1,395,077
중국	26,541(2)	282,030(1)	207,384(2)
한국계 중국인	32,443(1)	167,589(2)	470,570(1)
일본	14,013(7)	39,410(4)	58,169(5)

주: ()는 순위

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http://www.moj.go.kr/>)

한편 ‘문화산업’이 갖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른 나라의 문화 콘텐츠 수용자들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만을 제공하여 한국과 한국문화의 대중문화적 속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불쾌감과 경계심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산업부문에 있어서도 한·중·일간 협력 사업들이 모색되어야 하고, 문화산업의 특성상 일방적 공격성을 탈피할 수 없다면, 그러한 일방성을 다른 방향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화부문의 순수한 인적 교류나 청소년 교류 등의 활성화 정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해외문화교류의 거점 기관 중, 일본의 한국문화원에서 나타난 홈페이지를 통한 접촉 빈도의 폭증을 고려할 때, 새로운 미

디어 매체인 SNS를 활용한 문화교류의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교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자체 지표로서 행사 빈도수 등 정량지표에 치중하고 있는 대중국 문화교류의 경우, 점진적으로 중국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적 측량을 도입해야 한다. 문화교류는 접촉 횟수의 증가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지만, 일정 단계가 지나면 질적 수준이 수반되지 않는 교류는 식상하거나 오히려 부정적 반응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체제와 제도의 이질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민간레벨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의 지속적인 교류채널 유지가 필요하다.

또 중국의 최근 정책문건에서 지역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이 많이 거론되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의 대한, 대일 문화교류는 지금도 지자체 레벨의 교류가 많고, 지역별 격차도 심하다. 예컨대 상해나 광둥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교류 및 호감도가 높는데 이러한 특징은 향후 한국이 중국 문화교류를 진행할 때 참조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대 한국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대두에 따른 전통적인 한일관계의 유지와 발전, 둘째 일본문화의 메신저로서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유도, 셋째 수준 높은 전통문화 및 순수예술문화교류를 통한 일본 내 관련 문화산업의 육성, 넷째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의 확대를 통한 한국 내 반일감정의 완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 정책은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문화상품시장으로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국제문화교류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장기 경기침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내부적 갈등의 발생이다. 최근 일본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적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사회를 ‘일본다움’과 ‘국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약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특히 지자체에서 문화부문 예산을 크게 삭감하였으며, 일본 국제교류기금도 30%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표 50〉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SWOT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의 역사·역동성과 국제적 대중성</li> <li>- 해외동포 약 720만 명의 네트워크</li> </ul> </li> <li>○ 인식: 국가 이미지 제고와 기업 문화마케팅의 파급효과 간의 시너지 발생</li> <li>○ 경험: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와 아시아 국가와의 한류를 통한 정서적 공감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Global Killing 콘텐츠의 부재</li> <li>○ 정책: 문화교류 지원정책의 한계(예산부족, 지속성 미비 등) 및 문화교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통제력행사 시도 부서의 등장</li> <li>○ 인식: 문화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일방적 수출 마인드</li> <li>○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르 및 권역의 편중성</li> <li>- 문화 다양성 및 다원주의에 대한 역사적 체험의 짧은 역사</li> </ul> </li> </ul>
기회요인(O)	위협요인(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환경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단적 교류의 출범과 한류 콘텐츠, 한국문화(한글 등)에 대한 타국의 기대 상승</li> <li>- SNS의 확산으로 인한 쌍방향 교류 기회 확대</li> </ul> </li> <li>○ 내부 환경 및 인식: 문화예술분야 창의성의 국가품격제고 인정 및 문화교류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심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 한국문화에 대한 일시적 호감과 반한 감정</li> <li>○ 외부 환경: 하드이슈(역사 등)가 국제문화교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li> </ul>

중국과의 교류 및 관심 증진 및 일본의 국제문화교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일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SWOT을 참고할 때, 위협적 요인으로 역사 등 하드이슈가 계속 등장한다.<sup>25)</sup> 이러한 위협적 상황은 현재에는 한중 관계에서보다도 중일 관계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p.99.

최근 두 나라 정치권의 동향을 보면 양자 모두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는 인상까지 줄 정도이다. 그 영향으로 중국 내에서는 일본 관련 문화교류와 학술교류에 대한 ‘자숙 무드’까지 일고 있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중국의 정당 차원의 구체적 지침이 나온 상황은 아니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일본문화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 따라서 위협요인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협요인 때문에 문화교류를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위협요인은 근본적으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문화교류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과 유대감이 이러한 외교적 협의를 촉구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위협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문화교류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공공부문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실제 ‘한·중·일 문화교류 실태조사’의 결과 나타난 통계자료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한·중·일 삼국의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 전망 및 예측

한중일 문화교류에 관한 전망 및 예측		
범주	키워드	세부내용
패러다임	문화교류의 다각화	■ 당분간 일방적인 문화교류의 형태(초청 혹은 파견의 일방만 선택한 78.6%) 유지, 쌍방적인 문화교류(초청 및 파견을 동시 실시 비율 21.4% 수준) 활성화 기대됨.
교류주체	수행 주체의 분권화	■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교류의 주요 주체로 활약할 것 예상(교류예산: 지자체 지원액(5202만원)이 중앙정부 지원액(4043만원) 추월)
교류대상	아시아 중심화	■ 아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 확대 전망 (아시아:타권역=147:83.5, 동북아와 동남아 등 아시아를 나누어 복수 선택지로 하여 비율이 100% 상위, 단위: %)
	중국 중심화	■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교류가 강화될 전망 (현재 교류여부=>)중국:일본=43.1:29.2, 단위: %)
교류인식	문화교류 인식 강화	■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필요성 인식 제고 전망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 의사 100%)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형태에 있어서, 당분간 일방적인 문화교류의 형태가 유지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쌍방적인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일본·중국과의 문화 교류는 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초청형 인바운드(in-bound)와 파견형 아웃바운드(out-bound)형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방향성 교류였다. 즉 양국과의 문화교류가 주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수행된 것이다. 반면 쌍방적 교류는 일본과 21.8%, 중국과 21% 수준이다. 따라서 일방적 형태와 쌍방적인 형태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향후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의 형태도 당분간 일방적인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쌍방적 교류가 각각 21%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쌍방향적 문화교류의 비중이 아주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쌍방향 교류의 진정한 의미는 문화의 수신과 발신주체의 고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방적인 수신과 일방적인 발신을 지양하는 것이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타 문화를 수용하고 자국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역사 상의 제국주의적 교류 형태로서의 일방적 교류를 극복하는데 있으며, 교류의 쌍방 주체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지극히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 받는 상호 자극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초청과 파견이라는 교류 방식을 두 가지 모두 사용했다는 것이 수신과 발신의 유연성과 수평성을 성취했다고 단순히 정량화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닌 것이다. 즉 파견의 경우에도 발신이 아닌 수신형 파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쌍방향성이란 최소한 자문화의 발신을 위한 파견과 타문화의 수신을 위한 초청을 전제로 할 때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 초청과 파견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쌍방향성이 높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의 실태조사에서는 초청과 파견이라는 교류의 방식에 대한 질문항조차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7년 후인 2012년에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는 교류의 방식까지도 고려하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 연구가 심화되고 있고, 문화교류 자체도 심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교류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성이 실제 현장에서의 문화교류의 수평성과 쌍방향성을 견인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교류에 있어서의 주요 수행 주체의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향후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수행 주체가 될 것이다. 2005년의 문화교류 실태조사에서도 문화교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26)</sup>

한편, 2012년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 교류에 소요된 총 경비의 조달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이러한 예상에 신빙성을 제공해준다. 민간의 자체 조달을 포함한 총 1억 6169만의 예산 중 지자체 지원 금액이 5202만원으로서 정부 지원금인 4043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곧 중앙정부 보다 지방자치 단체가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수행할 재정적 능력을 구비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문화교류가 어느 지역 혹은 국가와 주로 이루어질 것인

26) 〈2005년 동북 아시아 교류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중앙소속기관, 중앙민간단체 별로 2004년 한 해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횟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다.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164개), 중앙부처 소속기관(34개),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160개) 중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 평균 6.5회가 이루어져 중앙소속기관(5.6회)이나 중앙민간단체(6.1회)보다 조금 더 앞 선 상황이다. 또한 전체 국제교류 중 동북아시아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을 통하여 점차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시대위원회, 『2005년 동북아시아 교류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5, p, 15.

지도 전망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지역과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문화교류 경험 유무에 대한 질의의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문화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 뿐 아니라, 동남 및 남아시아가 28.2%로서 서유럽 23.6%, 북미 20.7%보다 더 높은 교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 중 100%에 해당하는 569개의 단체가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이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및 전 세계와 문화교류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며, 중국이 주요한 문화교류 대상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실시한 단체들 중 일본과의 연 평균 교류는 3.13회이며, 중국과의 교류는 2.49회가 이루어졌다. 반면, 문화교류의 우선 추진 대상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43.1%가 중국, 29.2%가 일본을 꼽았다. 2005년 동북아시아대위원회에서 실시된 <2005년 동북아시아 교류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이 당시에 도 우선 대상국으로서 중국을 꼽은 비율이 전체 응답의 68.83%에 달하며, 일본은 36.5%에 불과하였다.<sup>27)</sup> 이를 통하여, 향후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문화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들 국가와의 문화교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연구 보고서와 2012년 리서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

27) 동북아 시대위원회, 2005, p. 14.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2005년 동북아 시대위원회의 2004년 문화교류 실태에 대한 보고서인 『2005년 동북아시아 교류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결과와 비교하면, 2012년 리서치 결과에는 많은 차이가 일어났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sup>28)</sup> 2005년 동북아 시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과 교류를 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은 예산 부족(51.3%)이다. 반면 ‘필요성 없음’을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의 46.7%에 해당할 정도로 ‘인력 부족(13.2%)’,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16.8%)’보다 높다. 그런데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문화교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 중 예산부족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은 것은 여전했지만, ‘필요성 없음’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이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이들과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대한 효과를 묻는 항목에서 비록 상당수가 교류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에 이득을 주었다고 답하였지만, 경제적 효과 혹은 잠재성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산업 및 관광영역의 파급효과(일본: 80.8%, 중국: 81.3%)라는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각 각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여(일본: 89.1%, 중국: 92.3%)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며, 상대 문화를 통하여 창조적 자극을 얻고(일본: 80.9%, 중국 83.8%) 있었다.

문화교류를 통하여, 창조적 자극을 얻고, 일본 및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다는 본원적이고 비경제적 요인이 문화교류의 중요한 효과이지만, 반면 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혹은 문화 경제적 잠재성도 문화 교류의 주요한 원인이자, 효과

28) 동북아 시대위원회, 2005, p. 24.

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문화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 2.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 전략

앞서 전망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는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만을 근거로 무전략적인 현상유지형 방임적 태도를 지니고 긴장하지 않는다면 한·중·일 3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3국 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문화교류협력관계마저도 경색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호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3국 모두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보장될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한다. 3국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지속과 강화를 위한 전략은 3국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각 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자 간 관점으로 나누어 구상할 수 있겠다.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동반되고 있는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단순히 국가우호적인 혹은 국가공존적인 상태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가능성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히 양자간, 다자간의 기존 문화교류협력관계 방안을 답습하고 단순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력관계의 발전을 위한 비전이 필요하다.

### (1) 한·중·일 3국 간 문화교류협력의 거시적 전략 및 원칙

거시적 전략으로 한·중·일 간의 문화교류 협력관계는 3국만의 관계가 아닌 동아시아 문화교류 협력관계에 대한 구상이 담긴 비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서 ‘공통성과 다양성으로 소통·공동 번영하는 동아시아’가 설정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의 지리적 인접성과 생활·문화의 유사성, 자연환경의 공통성, 역사적 관계로부터 비롯된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중·일 삼국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은 모든 전략이 근본적으로 전략의 내부에 내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요 없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즉, 전략의 바탕이 되는 태도에 대한 것과 궁극적 지향, 그리고 수행주체의 가장 이상적 형태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그 결과 ‘문화다양성의 존중’, ‘민간 풀뿌리 교류의 지향’, ‘유기적 공생 지향’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도출되었다.

첫째, ‘문화다양성 존중’은 3국 간 교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어떤 교류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문화다양성 존중’의 원칙은 문화교류협력관계에 있어 보편·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한·일, 한·중 양자 간 관계에서는 자국 언어 전파, 문화산업 진출 등 다소 경쟁적 교류의 성향이 강한 편인데, 이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하겠다. 한·중·일 다자 간 관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이미 표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둘째, ‘민간 풀뿌리 교류의 지향’은 바람직한 문화교류의 수행주체와 관련된 원칙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교류관계는 효율성 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희생되는 소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강요에

의해 수행되어 극심한 문화적 충돌로 인한 거부감이 형성되거나 오히려 양측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즉 문화교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잠재적 교류가능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적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교류협력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율의지에서 비롯된 민간 풀뿌리 교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민간의 교류역량이 높은 편이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정부의 결정과 실행력에 의해 교류가 좌우되고 있어 교류 일정의 신뢰도나 교류 내용의 자율성이 취약해서 선진적 문화교류 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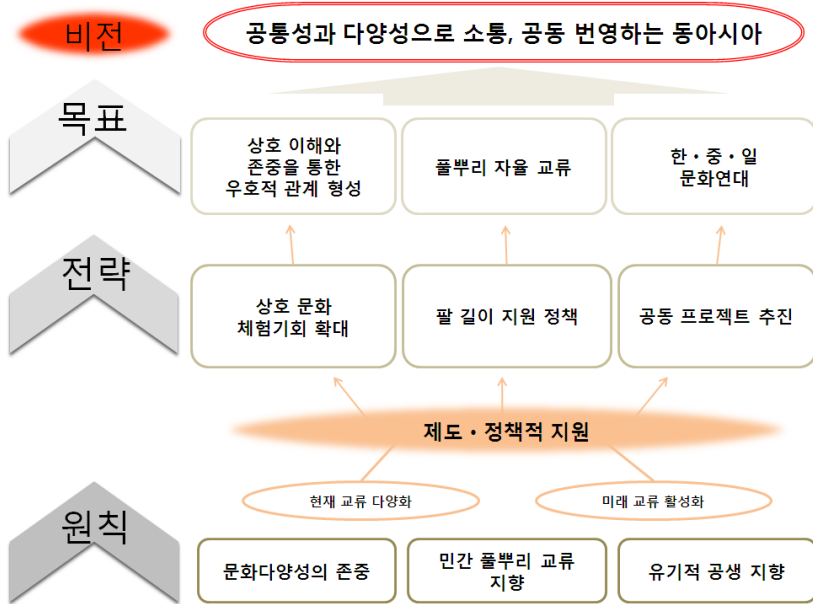
세 번째 원칙인 ‘유기적 공생 지향’은 문화교류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한 미래 지향적 응답이기도 하다. 문화의 이동은 생명체 움직임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우리가 타문화권과 교류협력을 하는 이유는 결국 유동적인 문화의 특성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질서에 동등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함이다. 즉, 문화교류의 주된 목적은 경쟁보다는 수평적 참여를 통한 상생과 공조에 있다. 그러므로 문화교류협력 관계는 상호 간의 공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도·정책적 지원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가진 사업에 의해 준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들이 지켜지는 기초 위에 교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과 목표는 상호문화의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유도하고, 이로써 우호적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기회가 많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상대국을 각자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진 측면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그 문화의 주체가 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문화체험 활동은 한류를 문화침략의 일환으로 폄하하는 관점과 거꾸로 우리의 혐중(嫌中), 반일(反日)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상호 이해 속에서 동아시아의 문화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서구중심의 문화 지배적 추세 속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브랜드를 확립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서의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략과 목표라 하겠다.

두 번째 전략과 목표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통한 ‘폴뿌리 자율 교류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민간 교류의 확대는 곧 문화를 향유하는 이들의 자율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으로, 문화교류 기반을 내실화 함을 의미한다. 향유자 개개인의 자율의지로 상호간 문화교류가 실시된다면 서로에 대한 우호감과 교류의 지속성은 거의 보장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자율이 진정한 자율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 지원 형태가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우선 민간 문화교류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그들의 교류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국제교류 진흥법’ 등을 통해 민간위원과 정부실무자로 구성된 ‘국제교류 위원회’를 설치하여, 스스로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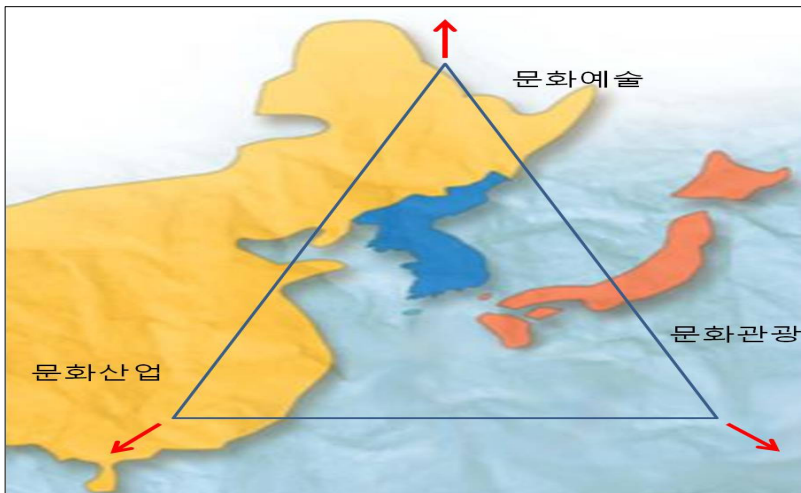
[그림 20] 2015년 한·중·일 문화교류협력의 전략

마지막 전략과 목표는 고정되거나 기계적인 공동프로젝트를 통한 한·중·일 문화연대 형성이다. 이 전략과 목표는 연대체를 만들자는 의미보다는 전략수행의 원칙 중 하나였던 유기적 공생 지향을 염두에 두고, 공동사업을 통해 각기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타날 차이들을 자연스럽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동등한 입장과 수준에서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교류를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은 차치하더라도,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은 분야 특성상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도 수준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수준이 서로 다르다면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교류는 불가능하다. 이에 상호 간 이해를 돕고,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수준을 맞추어 나가는 장이 필요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동프로젝트를 통한 직접 접촉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3국 간 공통성과 차이를 주제로 한 학술행사나 예술행사 또는 공동제작 등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



함으로써 진정한 쌍방향 문화교류로 나아가는 길을 3국이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한·중·일 문화교류협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비전과 전략은 3국 간의 문화교류협력관계를 넘어 동아시아의 문화적 연대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의를 가진다. 동양의 자연관과 세계관,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라 할 문화에 대한 서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양의 가치관과 문화를 올바르게 전함으로써 서구와 동양이 우열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위치를 명실상부하게 획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지구세계의 창조적 질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의 삼각 완성형 구상과 세계로의 확산

끝으로 거시적 전략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중·일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확산만으로 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한·중·일 삼국이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 접촉하기 위해서도 공간적

인 측면에서 북한과의 교류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남북 주민 간의 상호 문화 이해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교류를 누락시킨 한·중·일 삼국 간의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소외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2008년-2012년까지 선진정부가 취해온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경색국면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남북문화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 간의 문화교류 관계는 강대국들의 관점이 중시되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다소 신축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단절의 국면을 전환하여 문화교류의 수준을 회복하고,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문화교류 협력을 견인하여 아시아의 연대가 명실공히 소외된 국가가 없는 연대가 될 수 있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 (2) 특수성을 고려한 한·일, 한·중 양자간 문화교류전략

한·중·일 3국은 모두 동북아를 이끄는 주축국이지만, 그 역사와 체제와 사회상은 각기 상이하다. 중국은 국가의 근간이라 할 정치체제가 일본, 한국과 전혀 다른 사회주의 체제이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며, 일본은 세계 제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가해국이었다. 국가경제력에 있어서도 일본은 1인당 GDP가 4만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경제적 선진국이며, 한국은 1인당 GDP 2만 이상의 경제중진국,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보여주지만, 1인당 GDP가 약 5800달러로 세계 경제권으로 편입된 역사가 30년 남짓 밖에 되지 않은 경제 신흥국, 수원국의 면모를 지녔다.<sup>29)</sup>

정치, 경제적인 상이성은 문화적인 면에서의 차이와도 연결되

---

29) 통계자료는 네이버 국가정보(외교통상부, KOTRA, NAXOS 제공) 검색(2012.11.16.)

어 일본은 이미 문화교류 주체의 풀뿌리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역시 고도로 발달한 현대적 의미의 세계적 문화대국이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한류’의 유행이 현재의 세계적 ‘싸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 대중문화의 싹을 강국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아직까지 예술창작에 있어 정부의 정치적 규제가 남아있고, 문화산업이나 문화관광 시스템 구축에 이제 막 돌입한 국가로, 한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

〈표 52〉 특수성을 고려한 한·일, 한·중 간 문화교류전략

일본과의 교류 전략		중국과의 교류 전략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접근 방식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한 간접 지원 -한국문화 선호층 우선 고려 전략 -쌍방향 동등 교류	접근 방식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류활성을 위한 협의 -공적 차원에서의 교류의 장 마련 -공적 차원에서의 교류 용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프로 그램	-문화예술: 공동창작공간 프로젝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직접교류 프로그램 개발 -문화산업: 특성화분야 교환방식 -문화관광: Travel 개념, 주요 관광층(20~30대 여성) 공략 프로그램 강화	프로 그램	-문화예술: 양국 청소년의 상호문화 접촉 기회 확대 -문화산업: 한국 현대 대중문화 (음악, 영화, 드라마) -문화관광: 가족·집단을 겨냥한 TOUR 개념의 관광프로그램 마련 (가족·집단단위)
기대 효과	-일본 내 높아진 우리문화역량에 대한 제고 기회 마련 -동등한 입장에서 문화교류 기대	기대 효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대 (현재/잠재) -중국 내 우리문화이미지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로의 접근 기대감

현대 문화교류의 패러다임은 제국주의 시대의 동화정책이나 냉전체제의 물개성화와는 다른 ‘다원성’이라는 원칙에 근간을 둔다. 따라서 우리가 구상해야 할 한·일, 한·중의 양자 간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전략은 위와 같이 두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수립해야 한다.

## ○ 한·일 간 문화교류협력관계의 전략

문화교류 협력관계에 있어 일본이 가지는 특수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메이지유신 이래 서구문명을 받아들인 일본은 일찍 동양적 정서와 서구적 문화를 융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여기에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활용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문화산업을 고도화 하였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구가 결합된 독특한 세련미의 현대문화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일본 현대문화의 특수성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며 서구문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전통문화에 있어서도 그 보존에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기술력이라든가 전통문화를 현대화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한국, 중국보다 선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문화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도가 높고, 세계 여러 권역과 문화교류 경험이 많다는 점 역시 한국과 중국의 상황과는 다른 일본의 특수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일본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일본과 그들과 쌍방향적인 문화교류협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접근방식의 원칙과 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용이 요청된다.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일본이 국민 개개인의 문화향유도가 높은 만큼,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공공에서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만을 하는 팔 길이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우리에게 우호적 감정을 가진 일본인들과의 자유훈교류형태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접촉은 서로 간에 경쟁적인 측면 보다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 창조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

국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는 진정한 의미의 쌍방향 문화 교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전략은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공동창작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계 인사들의 직접 교류를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문화산업 부문 역시 민간차원에서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가 필요한 분야, 즉 특성화 분야를 교환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문화재 복원기술과, 우리 한류의 역량을 키운 대중문화육성시스템의 교류가 가능하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문화향유의식이 높은 일본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travel 개념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재방문율이 높은 20~30대 여성층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한·일 예술계 인사들의 직접교류, 특성화 된 문화산업의 동등 교환, 그리고 소비자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 서로의 실체적 문화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일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쌍방향적 문화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 한·중 간 문화교류협력관계의 전략

중국은 체제특성상 일본보다도 더 상이한 특수성을 가진다. 먼저 예술이 자율적이기 보다 체제수호와 홍보의 첨병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역시 자본주의 국가들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80년대 경제개방 이후 예술의 자

울의지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체제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예술가들에 대한 제재 등 아직은 사회 안에서 예술·예술가의 위치가 세계 일반적인 규범 및 상황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적 역량은 누구라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선 그들에게는 양적·질적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 할 만한 전통문화와 자연문화 자원이 존재한다. 또한 이런 자원들이 문화적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할 만큼 아직 정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수행해 낼 인적 자원 역시 풍부하다. 또한 경제 성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도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사회주의 체제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자본주의 체제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우리나라의 현대문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다. 중국인이 만족하는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분야는 TV 드라마 분야였고, 접촉하길 희망하는 상대국 공연과 전시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중음악과 비디오아트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차 순위로 국악이나 고고유물 등에 대한 선호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우리 현대문화를 전통문화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과 문화교류를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sup>30)</sup>

이러한 중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중 간 문화교류 협력관계의 전략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공공주체를 중심으로, 콘텐츠는 현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콘텐츠의 교류로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30)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2012),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69~84.

먼저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공공차원에서의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도록 마당(場)을 마련해주어 그 공통성과 상이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에 호응하여 한·중간 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잠재 인력들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

문화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자국문화 보호정책을 존중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의 발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 문화상품개발에 대한 기술자문이나 투자, 나아가 공동제작을 통해 우리 문화의 출로를 모색하고 중국 문화산업에도 기여할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방한 중국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단체·가족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Travel 개념과는 다른 Tour 개념의 관광 프로그램을 더욱 다각화하여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의 재방문 의사가 높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한국의 이익일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국의 관광객 역시 자극을 받고 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는 길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강상중(200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이경덕 역, 뿌리와 이파리.
- 김경록(2010), 「동북아 문화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유럽연합의 경험과 관련하여(The Necessity and Promotion of Cultural Network Form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 In Relation to Relevant Experiences of the European Union)」,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2007),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의 지원모델 및 교류활성화 기초 조사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김재준 외(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강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동북아시아대위원회(2005), 「동북아시아 교류실태 연구」, 동북아시아대위원회.
- 류지성, 김형수(2008),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A Theoretical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Northeast Asia Cultural Communities)」,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권 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매일경제 한류본색 프로젝트팀(2012), 『한류본색』, 매일경제신문사.
- 백원담(2002), 「진정한 이해와 소통기반 다져나가야 할 때: 한중문화교류: 문학, 출판교류」, 『문화예술』 통권 279호.
- 산업연구원·지식경제부(2011), 「신성장동력의 산업생태계 활성화 연구」, 서울, 산업연구원.
- 양기호(2004), 「한일지방간 교류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일자치단체의 교류 현황과 과제』 자료집, 한일사회문화포럼.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2004),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이원덕 역, 일조각.

- 영화진흥위원회(2012). 「중국 영화산업 현황과 한·중 공동제작」 포럼 발표자료집.
- 이동연(2004), 「동아시아 문화교류를 위한 이론적 모색」, 『동아시아에서 문화교류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 \_\_\_\_\_(2004), 「동아시아에서 문화교류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정례학술대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대중문화교류 프로젝트 중간발표회.
- 이성태,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 및 전망」, 『가치와 전망』 제7호(2012.9.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수훈(2003), 「동북아시대 신구상」,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이주형(2010), 「중국의 대일(對日) 인식과 중일(中日) 관계(關係)(China's policy toward Japan and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大韓政治學會報(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제17권 3호, 한국정치학회.
- 이지원(2004), 「일본의 문화정책」,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세종국가전략 포럼자료집.
- 이희옥(2003), 「동북아시대 시민사회와 문화교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신구상」,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정광렬, 조현성, 김희수(2011), 「중국 관광객 특성 및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기은(2010), 「중국 아웃바운드시장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중국관광객 유치 전략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48권.
- \_\_\_\_\_(2011), 「中国海峡两岸平潭综合实验地旅游发展战略；중국해협양안 평담종합실험지의 관광발전전략」, 『관광레저연구』 제23권 4호, 한국관광레저학회.
- \_\_\_\_\_(2011), 「2011년 중국의 주요 문화관광정책」, 『Webzine Culture & Tourism 문화관광』, 2011년 3월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03), 「중국 관광산업의 환경변화 및 발전추세」, 『문화관광연구』제5권 제1호, 광주 : 한국문화관광학회.
- 정정숙 외(2004), 『동북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_\_\_\_\_(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식경제부(2011),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
- 최경은(2012), 「한중수교 20년, 관광교류 현황과 시사점」, 『KCTI 가치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혜실(2008), 「동북아 사회문화 협력의 초석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역할(The role of cultural contents as the foundation of social and cultu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하영애(2008), 「한,중 간의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양국의 발전방안 모색(Groping for Reciprocal Development through Societ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한국동북아논총』 제49권, 한국동북아학회.
- 한광섭(2012),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아카데미.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2010),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책연구소(2003), 「동북아시아 문화교류 협력 방안 연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 허권(2003), 「한국의 동북아 문화·관광교류 및 협력정책」,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와 문화산업 협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허동현(1996), 「동북아 문화교류사 개관-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 모색을 위한 역사적 배경 고찰을 중심으로」, 21세기 동아시아 사회화 문화 국제학술회의.
- 홍기원 외(2007),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Fred Bergsten(2008),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 Iansiti, M. & Levien, R(2004), "*The Keystone Advantage: What the New Dynamics of Business Ecosystems Mean for Strategy,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榎泰邦(2000), 「文化交流の時代」, 丸善Books.
- 青木保.(2004), 「重層的な ”文化力“ 育む戦略を」, 『外交フォーラム』2004年6月号
- ジョセフ S. ナイ(2004), 「日本のソフト・パワー—その限界と可能性」, 『外交フォーラム』2004年6月号.
- 中国旅游研究院(2009), 『中国出境旅游发展年度报告, 2007, 2008』, 北京: 中国旅游出版社.
- 北京旅游发展究基地 《中国旅游研究2005》委员会编(2006), 『中国旅游研究2005』, 北京: 旅游教育出版社.
- 杜江, 戴斌 等著(2006), 『中国出境旅游发展年度报告2005』, 北京: 旅游教育出版社
- 张广瑞, 刘德谦(2007), 『200年中国旅游发展: 分析与预测』,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高舜礼(2006), 『中国旅游产业政策研究』, 北京: 中国旅游出版社.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http://www.moj.go.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http://cesi.kedi.re.kr/>.
- 주한 중국문화원 <http://www.cccseoul.org/main/main.php>.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여유국 <http://www.cnta.gov.cn>.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www.jpfr.or.kr/aboutus/intro\\_history.html](http://www.jpfr.or.kr/aboutus/intro_history.html).
- 해외문화홍보원 <http://www.kocis.go.kr>.
-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visitkorea.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기사검색 포털 [www.kinds.or.kr](http://www.kinds.or.kr).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ooperation in Cultural Exchang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its Predi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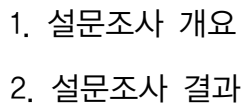
No one could deny the contribution of the Eastern Asia in the cultural enterpris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Korea, China, and Japan are more and more important to stimulate the culture business. Other Asian countries and the Western focus on the mass culture of the Eastern Asia, such as K-Pop, J-Pop, and so on. In this situation,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Eastern Asia improve dramatically.

Thus, in this research, we survey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Eastern Asia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Based upon this survey, we analyze the level of the cultural cooperation for now. Moreover, we foresee the cultural cooperation of the 2015 and make several strategies to aggrandize the coordination. To strengthen the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Eastern Asia would spur not only the mental and cultural relationship among the Eastern Asians, but also the political peace in the long term.

In this study, we can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cultural coordination of the Eastern Asia is in the positive atmosphere, and it would be maintained in years. However, one should not relieve in the positive situation, we should concern and endeavor to keep

the positive situation more and more, and to augment the cultur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ideal relationship in the cultural cooperation, the government of the each country should try to construct the stable political situation. And in the private field, the individuals ought to be more open-minded to understand the other's culture and tradition.

The cultural cooperation of the Eastern Asia aims at not just the coexistence, but at the creation of the Asian cultural community. For pursuing this aim more active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ore vital, systematic, and practical measures to construct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 < 부록: 설문조사 기본 통계표 >

### 1. 설문조사 개요

#### ○ 응답자 특성

〈표〉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569	100,0
기관	광역자치단체	58	10,2
	기초자치단체	12	2,1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3,7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84,0
성격	문화재	25	5,2
	전통문화	96	20,1
	예술전반	217	45,4
	문화산업전반	122	25,5
	교육	14	2,9
	기타	4	0,8

### 2. 설문조사 결과

#### (1) 한·중·일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 여부와 빈도

##### ○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 여부

〈표〉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 여부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임	교류협력이 없었음
전체		569	1,6	52,7	45,7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58	.0	65,5	34,5
	기초자치단체	12	.0	66,7	33,3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0	95,2	4,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1,9	49,0	49,2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25	4,0	52,0	44,0
	전통문화	96	3,1	45,8	51,0
	예술전반	217	.9	47,5	51,6
	문화산업전반	122	2,5	55,7	41,8
	교육	14	.0	35,7	64,3
	기타	4	.0	25,0	75,0

○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문화 교류 미실행 이유

〈표〉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문화 교류 미실행 이유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예산부 족	정보, 프로그램 부족	인력 부족	필요성 없음	법,제도 미비	기타
전체		260	76,9	29,2	20,4	11,9	6,9	9,2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0	100,0	40,0	25,0	.0	.0	.0
	기초자치단체	4	50,0	25,0	.0	.0	.0	5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	.0	.0	.0	.0	.0	100,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235	75,7	28,5	20,4	13,2	7,7	8,9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81,8	18,2	.0	9,1	9,1	.0
	전통문화	49	79,6	28,6	14,3	12,2	6,1	10,2
	예술전반	112	79,5	30,4	20,5	11,6	6,3	8,9
	문화산업전반	51	64,7	25,5	29,4	17,6	11,8	9,8
	교육	9	66,7	22,2	33,3	11,1	11,1	11,1
	기타	3	66,7	66,7	.0	33,3	.0	.0

○ 향후 일본, 중국과 문화 교류 의사

〈표〉 향후 일본, 중국과 문화 교류 의사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반드시 교류할 것이다	아마 교류할 것이다
전체		260	24,2	75,8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20	15,0	85,0
	기초자치단체	4	25,0	75,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	.0	100,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235	25,1	74,9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0	100,0
	전통문화	49	32,7	67,3
	예술전반	112	25,9	74,1
	문화산업전반	51	23,5	76,5
	교육	9	22,2	77,8
	기타	3	.0	100,0

○ 향후 문화관련 교류 시 우선 추진 대상국

〈표〉 향후 문화관련 교류 시 우선 추진 대상국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중국	일본	북미주 유럽	동남 아시아	정하 지 못함	아프 리카	몽골	중앙 아시아	러 시 아	기타
전체		260	43,1	29,2	9,6	7,3	2,7	1,9	1,5	1,5	1,2	1,9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20	55,0	25,0	20,0	.0	.0	.0	.0	.0	.0	.0
	기초자치단체	4	50,0	25,0	25,0	.0	.0	.0	.0	.0	.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	.0	.0	100.	.0	.0	.0	.0	.0	.0	.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235	42,1	29,8	8,1	8,1	3,0	2,1	1,7	1,7	1,3	2,1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36,4	54,5	.0	.0	.0	.0	.0	.0	9,1	.0
	전통문화	49	34,7	42,9	6,1	8,2	2,0	.0	.0	.0	.0	6,1
	예술전반	112	47,3	24,1	10,7	4,5	5,4	1,8	3,6	.9	1,8	.0
	문화산업전반	51	43,1	29,4	5,9	11,8	.0	2,0	.0	3,9	.0	3,9
	교육	9	22,2	11,1	11,1	33,3	.0	22,2	.0	.0	.0	.0
	기타	3	33,3	.0	.0	33,3	.0	.0	.0	33,3	.0	.0

○ 지난 1년간 모든 국가와 국제 교류 횟수

〈표〉 지난 1년간 모든 국가와 국제 교류 횟수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1~2회	3~4회	5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경험 없음	평균 회수
전체		569	32.0	11.8	11.6	7.6	6.5	30.6	7.73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58	37.9	12.1	10.3	15.5	6.9	17.2	6.83
	기초자치단체	12	25.0	16.7	8.3	.0	16.7	33.3	7.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19.0	14.3	19.0	19.0	23.8	4.8	11.26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32.0	11.5	11.5	6.3	5.4	33.3	7.67
기관성격별	문화재	25	36.0	8.0	4.0	.0	8.0	44.0	5.57
	전통문화	96	33.3	11.5	10.4	5.2	5.2	34.4	4.84
	예술전반	217	31.8	11.1	11.1	6.9	4.6	34.6	10.36
	문화산업전반	122	32.0	13.1	13.1	7.4	5.7	28.7	5.77
	교육	14	21.4	14.3	14.3	7.1	14.3	28.6	7.89
	기타	4	25.0	.0	50.0	.0	.0	25.0	4.33

○ 지난 1년간 일본과 국제 교류 횟수

〈표〉 지난 1년간 일본과 국제 교류 횟수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1~2회	3~4회	5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경험 없음	평균 회수
전체		569	25.7	3.7	3.3	.5	.7	66.1	3.13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58	32.8	5.2	5.2	1.7	1.7	53.4	3.26
	기초자치단체	12	33.3	.0	.0	8.3	.0	58.3	3.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71.4	9.5	9.5	.0	.0	9.5	1.84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22.6	3.3	2.9	.2	.6	70.3	3.29
기관성격별	문화재	25	24.0	4.0	4.0	.0	.0	68.0	2.50
	전통문화	96	18.8	3.1	2.1	.0	.0	76.0	1.87
	예술전반	217	21.2	2.8	4.1	.0	.9	71.0	4.41
	문화산업전반	122	30.3	4.1	1.6	.8	.8	62.3	2.63
	교육	14	7.1	7.1	.0	.0	.0	85.7	2.50
	기타	4	.0	.0	.0	.0	.0	100.0	.

○ 지난 1년간 중국과 국제 교류 횟수

〈표〉 지난 1년간 중국과 국제 교류 횟수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1~2회	3~4회	5회 이상	10회 이상	20회 이상	경험 없음	평균 회수
전체		569	29.7	4.6	2.1	1.4	.7	61.5	2.49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58	34.5	10.3	5.2	1.7	.0	48.3	2.40
	기초자치단체	12	25.0	.0	8.3	8.3	.0	58.3	4.4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57.1	4.8	9.5	4.8	.0	23.8	2.69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28.0	4.0	1.3	1.0	.8	64.9	2.43
기관성격별	문화재	25	40.0	4.0	.0	.0	.0	56.0	1.36
	전통문화	96	28.1	4.2	.0	3.1	.0	64.6	2.38
	예술전반	217	28.6	1.4	1.8	.9	.9	66.4	2.55
	문화산업전반	122	26.2	9.0	.8	.0	1.6	62.3	2.49
	교육	14	14.3	.0	7.1	.0	.0	78.6	3.00
	기타	4	25.0	.0	.0	.0	.0	75.0	2.00

(2) 한·중·일 국가와의 문화 교류협력 실태

○ 지난 1년간 교류 진행 권역

〈표〉 지난 1년간 교류 진행 권역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동북 아시아	동남 아시아	서유럽	북미	중앙 아시아	동유럽	오세 아시아	중남 미	중동	아프리카
전체		309	100.	28.2	23.6	20.7	12.3	12.0	11.3	9.4	6.5	6.5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38	100.	36.8	23.7	21.1	18.4	15.8	10.5	7.9	5.3	10.5
	기초자치단체	8	100.	12.5	25.0	12.5	12.5	.0	12.5	.0	25.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0	100.	55.0	45.0	30.0	25.0	40.0	20.0	15.0	10.0	10.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243	100.	25.1	21.8	20.2	10.3	9.5	10.7	9.5	5.8	5.8
기관성격별	문화재	14	100.	14.3	14.3	14.3	14.3	.0	14.3	7.1	7.1	7.1
	전통문화	47	100.	21.3	10.6	17.0	10.6	8.5	17.0	6.4	4.3	10.6
	예술전반	105	100.	29.5	29.5	23.8	12.4	14.3	11.4	13.3	6.7	5.7
	문화산업전반	71	100.	25.4	19.7	19.7	7.0	5.6	4.2	7.0	5.6	2.8
	교육	5	100.	.0	20.0	.0	.0	.0	20.0	.0	.0	.0
	기타	1	100.	.0	.0	.0	.0	.0	.0	.0	.0	.0

○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형태

〈표〉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형태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초청	파견	둘다
전체		193	44,6	33,7	21,8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27	33,3	33,3	33,3
	기초자치단체	5	20,0	8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52,6	26,3	21,1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46,5	33,1	20,4
기관성격별	문화재	8	37,5	37,5	25,0
	전통문화	23	43,5	34,8	21,7
	예술전반	63	39,7	36,5	23,8
	문화산업전반	46	56,5	28,3	15,2
	교육	2	100,0	.0	.0

○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형태

〈표〉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형태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초청	파견	둘다
전체		219	43,8	35,2	21,0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30	56,7	20,0	23,3
	기초자치단체	5	20,0	40,0	4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43,8	37,5	18,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42,3	37,5	20,2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27,3	45,5	27,3
	전통문화	34	41,2	47,1	11,8
	예술전반	73	42,5	32,9	24,7
	문화산업전반	46	45,7	37,0	17,4
	교육	3	66,7	.0	33,3
	기타	1	.0	100,0	.0

○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장르

〈표〉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장르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문화재	전통문화	예술전반	문화산업전반
전체		193	5.2	14.0	50.3	30.6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27	3.7	7.4	66.7	22.2
	기초자치단체	5	.0	40.0	6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10.5	10.5	57.9	21.1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4.9	14.8	45.8	34.5
기관성격별	문화재	8	87.5	12.5	.0	.0
	전통문화	23	.0	82.6	13.0	4.3
	예술전반	63	.0	.0	95.2	4.8
	문화산업전반	46	.0	2.2	4.3	93.5
	교육	2	.0	.0	.0	100.0

○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장르

〈표〉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장르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문화재	전통문화	예술전반	문화산업전반	교육
전체		219	6.4	16.9	48.9	26.9	.9
기관별	광역자치단체	30	3.3	3.3	76.7	16.7	.0
	기초자치단체	5	.0	20.0	60.0	2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12.5	18.8	50.0	18.8	.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6.5	19.0	43.5	29.8	1.2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90.9	.0	.0	9.1	.0
	전통문화	34	.0	85.3	11.8	2.9	.0
	예술전반	73	.0	1.4	93.2	5.5	.0
	문화산업전반	46	2.2	.0	2.2	95.7	.0
	교육	3	.0	33.3	.0	.0	66.7
	기타	1	.0	100.0	.0	.0	.0

○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비용

〈표〉 지난 1년간 일본,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비용

(단위 : 명, 천원)

응답자 특성		사례수	총비용	정부 지원 금액	지자체 지원 금액	수익 사업 등 자체 조달금액	민간기업 협찬금액	기타
전체		569	161,673	40,431	52,027	39,056	19,863	11,899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58	155,562	60,000	70,893	19,043	5,625	-
	기초자치단체	12	53,000	1,333	47,500	3,833	-	333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21	91,085	20,085	-	20,142	857	50,00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478	171,872	39,810	52,909	45,548	24,752	11,415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25	20,250	3,181	1,818	11,636	-	1,818
	전통문화	96	29,605	810	10,635	12,581	864	2,000
	예술전반	217	186,156	54,234	38,085	59,632	13,405	23,807
	문화산업전반	122	307,630	61,583	125,437	56,135	68,270	4,229
	교육	14	42,400	6,000	-	34,400	2,000	-
	기타	4	200,000	-	-	200,000	-	-

(3) 한중일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만족도

○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만족도

〈표〉 지난 1년간 일본과 실시한 문화교류 만족도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하는편	보통	불만족 하는편	긍정	보통	부정	만족도 (5점 기준)
전체		193	13.0	62.7	20.7	3.6	75.6	20.7	3.6	3.85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0	74.1	22.2	3.7	74.1	22.2	3.7	3.70
	기초자치단체	5	.0	80.0	20.0	.0	80.0	20.0	.0	3.8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10.5	52.6	31.6	5.3	63.2	31.6	5.3	3.6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16.2	61.3	19.0	3.5	77.5	19.0	3.5	3.90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8	.0	75.0	25.0	.0	75.0	25.0	.0	3.75
	전통문화	23	13.0	73.9	.0	13.0	87.0	.0	13.0	3.87
	예술전반	63	25.4	54.0	17.5	3.2	79.4	17.5	3.2	4.02
	문화산업전반	46	8.7	60.9	30.4	.0	69.6	30.4	.0	3.78
	교육	2	.0	100.0	.0	.0	100.0	.0	.0	4.00



○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만족도

〈표〉 지난 1년간 중국과 실시한 문화교류 만족도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만족	만족 하는편	보통	불만족 하는편	긍정	보통	부정	만족도 (5점 기준)
전체		219	12,3	62,6	21,5	3,7	74,9	21,5	3,7	3,84
기관별	광역시자치단체	30	.0	66,7	26,7	6,7	66,7	26,7	6,7	3,60
	기초자치단체	5	40,0	40,0	20,0	.0	80,0	20,0	.0	4,2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18,8	43,8	37,5	.0	62,5	37,5	.0	3,81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3,1	64,3	19,0	3,6	77,4	19,0	3,6	3,87
기관성격별	문화재	11	18,2	54,5	18,2	9,1	72,7	18,2	9,1	3,82
	전통문화	34	11,8	67,6	17,6	2,9	79,4	17,6	2,9	3,88
	예술전반	73	11,0	61,6	23,3	4,1	72,6	23,3	4,1	3,79
	문화산업전반	46	17,4	65,2	15,2	2,2	82,6	15,2	2,2	3,98
	교육	3	.0	100,0	.0	.0	100,0	.0	.0	4,00
	기타	1	.0	100,0	.0	.0	100,0	.0	.0	4,00

(4) 일본과 문화교류를 통해 얻는 효과

○ 일본문화의 이해

〈표〉 일본문화의 이해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1,6	18,7	58,5	21,2	20,2	79,8
기관별	광역시자치단체	27	3,7	11,1	55,6	29,6	14,8	85,2
	기초자치단체	5	.0	.0	80,0	20,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47,4	52,6	.0	47,4	52,6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1,4	16,9	59,2	22,5	18,3	81,7
기관성격	문화재	8	.0	.0	75,0	25,0	.0	100,0
	전통문화	23	4,3	8,7	56,5	30,4	13,0	87,0
	예술전반	63	.0	20,6	58,7	20,6	20,6	79,4
	문화산업전반	46	2,2	17,4	58,7	21,7	19,6	80,4
	교육	2	.0	50,0	50,0	.0	50,0	50,0

○ 창조적 자극 획득

〈표〉 창조적 자극 획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1,6	17,6	56,0	24,9	19,2	80,8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7,4	14,8	40,7	37,0	22,2	77,8
	기초자치단체	5	.0	60,0	20,0	20,0	60,0	4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52,6	42,1	5,3	52,6	47,4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7	12,0	62,0	25,4	12,7	87,3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12,5	62,5	25,0	12,5	87,5
	전통문화	23	4,3	8,7	56,5	30,4	13,0	87,0
	예술전반	63	.0	9,5	60,3	30,2	9,5	90,5
	문화산업전반	46	.0	17,4	65,2	17,4	17,4	82,6
	교육	2	.0	.0	100,0	.0	.0	100,0

○ 우호 관계 형성

〈표〉 우호 관계 형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1,0	2,1	50,3	46,6	3,1	96,9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3,7	.0	33,3	63,0	3,7	96,3
	기초자치단체	5	.0	.0	60,0	40,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5,3	.0	68,4	26,3	5,3	94,7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0	2,8	50,7	46,5	2,8	97,2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0	37,5	62,5	.0	100,0
	전통문화	23	.0	4,3	43,5	52,2	4,3	95,7
	예술전반	63	.0	3,2	49,2	47,6	3,2	96,8
	문화산업전반	46	.0	2,2	58,7	39,1	2,2	97,8
	교육	2	.0	.0	50,0	50,0	.0	100,0

○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표〉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1.0	3.1	43.5	52.3	4.1	95.9
기 별	광역자치단체	27	3.7	.0	33.3	63.0	3.7	96.3
	기초자치단체	5	.0	.0	80.0	20.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5.3	57.9	36.8	5.3	94.7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7	3.5	42.3	53.5	4.2	95.8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0	62.5	37.5	.0	100.0
	전통문화	23	4.3	4.3	39.1	52.2	8.7	91.3
	예술전반	63	.0	4.8	34.9	60.3	4.8	95.2
	문화산업전반	46	.0	2.2	50.0	47.8	2.2	97.8
	교육	2	.0	.0	50.0	50.0	.0	100.0

○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표〉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1.6	17.6	51.8	29.0	19.2	80.8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0	14.8	66.7	18.5	14.8	85.2
	기초자치단체	5	20.0	20.0	40.0	20.0	40.0	6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42.1	47.4	10.5	42.1	57.9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1.4	14.8	50.0	33.8	16.2	83.8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37.5	50.0	12.5	37.5	62.5
	전통문화	23	.0	8.7	43.5	47.8	8.7	91.3
	예술전반	63	1.6	11.1	55.6	31.7	12.7	87.3
	문화산업전반	46	2.2	17.4	45.7	34.8	19.6	80.4
	교육	2	.0	50.0	50.0	.0	50.0	50.0

○ 국가이미지 제고

〈표〉 국가 이미지 제고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5	10.4	54.4	34.7	10.9	89.1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3.7	3.7	48.1	44.4	7.4	92.6
	기초자치단체	5	.0	20.0	60.0	20.0	20.0	8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31.6	57.9	10.5	31.6	68.4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0	8.5	54.9	36.6	8.5	91.5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0	62.5	37.5	.0	100.0
	전통문화	23	.0	4.3	52.2	43.5	4.3	95.7
	예술전반	63	.0	11.1	50.8	38.1	11.1	88.9
	문화산업전반	46	.0	8.7	60.9	30.4	8.7	91.3
	교육	2	.0	.0	50.0	50.0	.0	100.0

○ 교류 수행자로서 자부심 강화

〈표〉 교류 수행자로서 자부심 강화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193	.5	8.3	53.4	37.8	8.8	91.2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0	7.4	55.6	37.0	7.4	92.6
	기초자치단체	5	.0	20.0	40.0	40.0	20.0	8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0	31.6	52.6	15.8	31.6	68.4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7	4.9	53.5	40.8	5.6	94.4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0	62.5	37.5	.0	100.0
	전통문화	23	.0	4.3	39.1	56.5	4.3	95.7
	예술전반	63	1.6	4.8	54.0	39.7	6.3	93.7
	문화산업전반	46	.0	6.5	58.7	34.8	6.5	93.5
	교육	2	.0	.0	50.0	50.0	.0	100.0

## (5) 중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얻는 효과

### ○ 중국문화의 이해

〈표〉 중국문화의 이해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1.4	11.4	63.9	23.3	12.8	87.2
기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10.0	50.0	36.7	13.3	86.7
	기초자치단체	5	.0	.0	100.0	.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43.8	56.3	.0	43.8	56.3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2	8.9	66.1	23.8	10.1	89.9
기관 성격 별	문화재	11	.0	.0	81.8	18.2	.0	100.0
	전통문화	34	2.9	2.9	58.8	35.3	5.9	94.1
	예술전반	73	1.4	15.1	64.4	19.2	16.4	83.6
	문화산업전반	46	.0	6.5	69.6	23.9	6.5	93.5
	교육	3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 ○ 창조적 자극 획득

〈표〉 창조적 자극 획득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1.4	16.9	56.2	25.6	18.3	81.7
기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6.7	23.3	23.3	46.7	30.0	70.0
	기초자치단체	5	.0	40.0	40.0	20.0	40.0	6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50.0	50.0	.0	50.0	50.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6	11.9	63.1	24.4	12.5	87.5
기관 성격 별	문화재	11	.0	9.1	72.7	18.2	9.1	90.9
	전통문화	34	2.9	8.8	58.8	29.4	11.8	88.2
	예술전반	73	.0	11.0	63.0	26.0	11.0	89.0
	문화산업전반	46	.0	13.0	67.4	19.6	13.0	87.0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0	100.0	.0	100.0

○ 우호 관계 형성

〈표〉 우호관계 형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9	4.6	55.7	38.8	5.5	94.5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10.0	50.0	36.7	13.3	86.7
	기초자치단체	5	.0	.0	40.0	60.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6.3	62.5	31.3	6.3	93.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6	3.6	56.5	39.3	4.2	95.8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9.1	54.5	36.4	9.1	90.9
	전통문화	34	2.9	.0	50.0	47.1	2.9	97.1
	예술전반	73	.0	5.5	60.3	34.2	5.5	94.5
	문화산업전반	46	.0	2.2	56.5	41.3	2.2	97.8
	교육	3	.0	.0	66.7	33.3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표〉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5	5.5	46.6	47.5	5.9	94.1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6.7	43.3	46.7	10.0	90.0
	기초자치단체	5	.0	.0	40.0	60.0	.0	10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12.5	31.3	56.3	12.5	87.5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0	4.8	48.8	46.4	4.8	95.2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0	63.6	36.4	.0	100.0
	전통문화	34	.0	2.9	41.2	55.9	2.9	97.1
	예술전반	73	.0	9.6	49.3	41.1	9.6	90.4
	문화산업전반	46	.0	.0	47.8	52.2	.0	100.0
	교육	3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표〉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2.3	16.4	54.8	26.5	18.7	81.3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33.3	56.7	6.7	36.7	63.3
	기초자치단체	5	20.0	.0	80.0	.0	20.0	8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25.0	50.0	25.0	25.0	75.0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8	13.1	54.2	31.0	14.9	85.1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45.5	36.4	18.2	45.5	54.5
	전통문화	34	2.9	8.8	44.1	44.1	11.8	88.2
	예술전반	73	1.4	12.3	58.9	27.4	13.7	86.3
	문화산업전반	46	2.2	10.9	56.5	30.4	13.0	87.0
	교육	3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 국가이미지 제고

〈표〉 국가이미지 제고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5	7.3	57.1	35.2	7.8	92.2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13.3	50.0	33.3	16.7	83.3
	기초자치단체	5	.0	20.0	40.0	40.0	20.0	8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12.5	68.8	18.8	12.5	87.5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0	5.4	57.7	36.9	5.4	94.6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9.1	45.5	45.5	9.1	90.9
	전통문화	34	.0	2.9	52.9	44.1	2.9	97.1
	예술전반	73	.0	6.8	58.9	34.2	6.8	93.2
	문화산업전반	46	.0	4.3	60.9	34.8	4.3	95.7
	교육	3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 교류 수행자로서의 자부심 강화

〈표〉 교류 수행자로서의 자부심 강화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효과	강한 효과
전체		219	.5	7.3	59.4	32.9	7.8	92.2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0	13.3	63.3	23.3	13.3	86.7
	기초자치단체	5	.0	20.0	40.0	40.0	20.0	8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0	18.8	68.8	12.5	18.8	81.3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6	4.8	58.3	36.3	5.4	94.6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9.1	63.6	27.3	9.1	90.9
	전통문화	34	.0	5.9	50.0	44.1	5.9	94.1
	예술전반	73	1.4	5.5	61.6	31.5	6.8	93.2
	문화산업전반	46	.0	2.2	56.5	41.3	2.2	97.8
	교육	3	.0	.0	100.0	.0	.0	100.0
	기타	1	.0	.0	.0	100.0	.0	100.0

(6) 일본과 문화교류를 통해 느끼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력 부족

〈표〉 인력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20.7	35.8	30.6	13.0	56.5	43.5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11.1	25.9	44.4	18.5	37.0	63.0
	기초자치단체	5	20.0	80.0	.0	.0	10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26.3	36.8	26.3	10.5	63.2	36.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21.8	35.9	29.6	12.7	57.7	42.3
기 관 성 격	문화재	8	12.5	50.0	37.5	.0	62.5	37.5
	전통문화	23	13.0	34.8	34.8	17.4	47.8	52.2
	예술전반	63	30.2	30.2	27.0	12.7	60.3	39.7
	문화산업전반	46	17.4	41.3	28.3	13.0	58.7	41.3
	교육	2	.0	50.0	50.0	.0	50.0	50.0



○ 예산 부족

〈표〉 예산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14.0	24.9	25.4	35.8	38.9	61.1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3.7	18.5	18.5	59.3	22.2	77.8
	기초자치단체	5	20.0	20.0	20.0	40.0	40.0	6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15.8	47.4	26.3	10.5	63.2	36.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15.5	23.2	26.8	34.5	38.7	61.3
기 관 성 격	문화재	8	12.5	37.5	25.0	25.0	50.0	50.0
	전통문화	23	26.1	17.4	17.4	39.1	43.5	56.5
	예술전반	63	15.9	19.0	23.8	41.3	34.9	65.1
	문화산업전반	46	10.9	28.3	37.0	23.9	39.1	60.9
	교육	2	.0	50.0	.0	50.0	50.0	50.0

○ 정보 부족

〈표〉 정보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26.4	46.1	19.7	7.8	72.5	27.5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14.8	29.6	40.7	14.8	44.4	55.6
	기초자치단체	5	40.0	40.0	20.0	.0	80.0	2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47.4	36.8	10.5	5.3	84.2	15.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25.4	50.7	16.9	7.0	76.1	23.9
기 관 성 격	문화재	8	.0	62.5	12.5	25.0	62.5	37.5
	전통문화	23	17.4	43.5	26.1	13.0	60.9	39.1
	예술전반	63	38.1	42.9	12.7	6.3	81.0	19.0
	문화산업전반	46	15.2	65.2	17.4	2.2	80.4	19.6
	교육	2	50.0	.0	50.0	.0	50.0	50.0

○ 기획력 부족

〈표〉 기획력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31.1	45.1	16.6	7.3	76.2	23.8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14.8	25.9	37.0	22.2	40.7	59.3
	기초자치단체	5	40.0	40.0	20.0	.0	80.0	2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52.6	42.1	.0	5.3	94.7	5.3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31.0	49.3	14.8	4.9	80.3	19.7
기 관 성 격	문화재	8	12.5	62.5	25.0	.0	75.0	25.0
	전통문화	23	13.0	47.8	30.4	8.7	60.9	39.1
	예술전반	63	44.4	39.7	9.5	6.3	84.1	15.9
	문화산업전반	46	23.9	63.0	10.9	2.2	87.0	13.0
	교육	2	50.0	.0	50.0	.0	50.0	50.0

○ 프로그램 부족

〈표〉 프로그램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30.6	46.1	16.6	6.7	76.7	23.3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14.8	33.3	37.0	14.8	48.1	51.9
	기초자치단체	5	.0	100.0	.0	.0	10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57.9	31.6	5.3	5.3	89.5	10.5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31.0	48.6	14.8	5.6	79.6	20.4
기 관 성 격	문화재	8	12.5	62.5	12.5	12.5	75.0	25.0
	전통문화	23	13.0	47.8	26.1	13.0	60.9	39.1
	예술전반	63	42.9	41.3	9.5	6.3	84.1	15.9
	문화산업전반	46	26.1	58.7	15.2	.0	84.8	15.2
	교육	2	50.0	.0	50.0	.0	50.0	50.0

○ 법·제도 미비

〈표〉 법·제도 미비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193	30.1	51.3	11.9	6.7	81.3	18.7
기관 별	광역자치단체	27	11.1	59.3	18.5	11.1	70.4	29.6
	기초자치단체	5	20.0	80.0	.0	.0	100.0	.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9	52.6	36.8	5.3	5.3	89.5	10.5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42	31.0	50.7	12.0	6.3	81.7	18.3
기관 성격 별	문화재	8	12.5	75.0	12.5	.0	87.5	12.5
	전통문화	23	21.7	47.8	17.4	13.0	69.6	30.4
	예술전반	63	39.7	42.9	7.9	9.5	82.5	17.5
	문화산업전반	46	26.1	60.9	13.0	.0	87.0	13.0
	교육	2	50.0	.0	50.0	.0	50.0	50.0

(7) 중국과 문화교류를 통해 느끼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인력 부족

〈표〉 인력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16.0	41.6	28.8	13.7	57.5	42.5
기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30.0	46.7	20.0	33.3	66.7
	기초자치단체	5	20.0	60.0	20.0	.0	80.0	2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18.8	25.0	43.8	12.5	43.8	56.3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7.9	44.6	24.4	13.1	62.5	37.5
기관 성격 별	문화재	11	.0	45.5	45.5	9.1	45.5	54.5
	전통문화	34	17.6	44.1	29.4	8.8	61.8	38.2
	예술전반	73	21.9	38.4	27.4	12.3	60.3	39.7
	문화산업전반	46	17.4	54.3	10.9	17.4	71.7	28.3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0	100.0	.0	100.0

○ 예산 부족

〈표〉 예산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10.5	26.0	25.1	38.4	36.5	63.5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3.3	13.3	33.3	50.0	16.7	83.3
	기초자치단체	5	20.0	20.0	.0	60.0	40.0	6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12.5	43.8	37.5	6.3	56.3	43.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1.3	26.8	23.2	38.7	38.1	61.9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0	27.3	27.3	45.5	27.3	72.7
	전통문화	34	5.9	32.4	17.6	44.1	38.2	61.8
	예술전반	73	15.1	15.1	26.0	43.8	30.1	69.9
	문화산업전반	46	13.0	39.1	21.7	26.1	52.2	47.8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0	100.0	.0	100.0

○ 정보 부족

〈표〉 정보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18.7	47.0	26.9	7.3	65.8	34.2
기 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6.7	23.3	50.0	20.0	30.0	70.0
	기초자치단체	5	40.0	20.0	40.0	.0	60.0	4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37.5	31.3	25.0	6.3	68.8	31.3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8.5	53.6	22.6	5.4	72.0	28.0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9.1	45.5	45.5	.0	54.5	45.5
	전통문화	34	20.6	55.9	20.6	2.9	76.5	23.5
	예술전반	73	20.5	45.2	26.0	8.2	65.8	34.2
	문화산업전반	46	17.4	67.4	10.9	4.3	84.8	15.2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100.0	.0	.0	100.0

○ 기획력 부족

〈표〉 기획력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19.6	49.8	26.9	3.7	69.4	30.6
기 관 별	광역시자치단체	30	6.7	26.7	56.7	10.0	33.3	66.7
	기초자치단체	5	40.0	20.0	40.0	.0	60.0	4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56.3	31.3	12.5	.0	87.5	12.5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7.9	56.5	22.6	3.0	74.4	25.6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9.1	54.5	36.4	.0	63.6	36.4
	전통문화	34	17.6	61.8	20.6	.0	79.4	20.6
	예술전반	73	20.5	47.9	26.0	5.5	68.5	31.5
	문화산업전반	46	17.4	67.4	13.0	2.2	84.8	15.2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100.0	.0	.0	100.0

○ 프로그램 부족

〈표〉 프로그램 부족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21.9	47.9	25.6	4.6	69.9	30.1
기 관 별	광역시자치단체	30	6.7	23.3	60.0	10.0	30.0	70.0
	기초자치단체	5	40.0	40.0	20.0	.0	80.0	2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56.3	25.0	18.8	.0	81.3	18.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20.8	54.8	20.2	4.2	75.6	24.4
기 관 성 격 별	문화재	11	9.1	45.5	45.5	.0	54.5	45.5
	전통문화	34	17.6	55.9	23.5	2.9	73.5	26.5
	예술전반	73	24.7	50.7	17.8	6.8	75.3	24.7
	문화산업전반	46	21.7	63.0	13.0	2.2	84.8	15.2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100.0	.0	.0	100.0

○ 법·제도 미비

〈표〉 법·제도 미비

(단위 : 명,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매우 약함	약함	강함	매우 강함	약한 문제	강한 문제
전체		219	18.3	54.8	17.4	9.6	73.1	26.9
기관 별	광역자치단체	30	10.0	46.7	30.0	13.3	56.7	43.3
	기초자치단체	5	20.0	60.0	.0	20.0	80.0	20.0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기관	16	37.5	43.8	12.5	6.3	81.3	18.8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168	17.9	57.1	16.1	8.9	75.0	25.0
기관 성격 별	문화재	11	.0	54.5	27.3	18.2	54.5	45.5
	전통문화	34	14.7	67.6	11.8	5.9	82.4	17.6
	예술전반	73	23.3	50.7	15.1	11.0	74.0	26.0
	문화산업전반	46	17.4	60.9	15.2	6.5	78.3	21.7
	교육	3	.0	66.7	33.3	.0	66.7	33.3
	기타	1	.0	.0	100.0	.0	.0	100.0

## 한중일 삼국 간 문화교류 협력실태에 관한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한중일 삼국 간 문화교류 협력실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문화 관련 정부 부처 소속 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교류 실태에 대해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 본 설문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정정숙 (Tel) 02)2669-9861

(휴)유니온 리서치 대표 최장택 (Tel) 02) 2090-1200

주 소 : 우)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BD 6F, Fax: 02) 2090-1299,

URL : <http://www.union.re.kr>

### ■ 다음은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질문들입니다.

SQ1. ○ ○님께서 소속하신 기관(단체)은 어떤 기관(단체)입니까?

- ① 광역자치단체 ; ( )시 · 도
- ② 기초자치단체 ; ( )시 · 도 ( )구 · 군 · 시
- ③ 중앙부처 산하 및 소속 기관 ; (부처명 : ) (기관명 : )
- ④ 중앙부처 등록 민간단체 ; (부처명 : ) (단체명 : )

SQ1-1. (※ 민간단체의 경우) 귀 단체의 성격은 아래의 보기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문화계 ② 전통문화 ③ 예술전반(공연, 문학, 미술, 음악, 공예, 디자인 등)
- ④ 문화산업전반(영화, 드라마, 방송, 음반, 만화, 게임, 저작권, 신문, 출판 등)

응답자	성 명		전화번호	-	-
	소 속				
검증원	성 명		검증결과		

## 한중일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여부와 빈도

- ☞ **교류대상국가** : 일본, 중국에 한함.  
 ☞ **문화** : 문화재, 전통문화, 예술전반(공연, 문학, 미술, 음악, 공예, 디자인 등), 문화산업전반(영화, 드라마, 방송, 음반, 만화, 게임, 저작권, 신문, 출판 등의 교류)에 한함.  
 ☞ **교류협력** : 행사, 지원, 초청, 파견 등 일본, 중국의 정부나 민간단체와의 관련 교류사업 전반

문 1. 귀 기관(단체)에서는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일본, 중국과 문화관련 국제 교류협력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②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임      ☞ 문2로  
 ③ 교류협력이 없었음      ☞ 문1-1로

문1-1. (문1의 ③ '교류협력이 없었음' 응답자만) 귀 기관(단체)이 일본, 중국과 문화관련 국제 교류협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① 인력 부족      ② 예산 부족      ③ 정보·프로그램 부족  
 ④ 법·제도 미비      ⑤ 필요성 없음      ⑥ 기타( )

문1-2. 귀 기관(단체)에서는 향후 일본, 중국과 문화관련 교류협력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① 반드시 교류할 것이다      ② 아마 교류할 것이다      ☞ 문1-3으로  
 ③ 아마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④ 절대 교류하지 않을 것이다      ☞ 설문종료

문1-3. (문1-2의 ①, ② '교류할 것'이라는 응답자만) 귀 기관(단체)에서는 향후 일본, 중국 등과 문화관련 국제 교류협력을 하실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협력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 )

- ① 일본      ② 중국      ③ 러시아      ④ 북한      ⑤ 몽골  
 ⑥ 동남·남아시아      ⑦ 중앙아시아      ⑧ 북미주·유럽  
 ⑨ 기타 ( )

문 2. 귀 기관(단체)에서는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모든 국가, 단체들과 국제교류협력을 몇 번 실시하였습니까?  
 ( ) (구체적인 실시 횟수 : \_\_\_\_\_ 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10회 이상      ⑤ 20회 이상

문 3. 귀 기관(단체)에서는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일본과 국제교류협력을 몇 번이나 실시하였습니까?  
 ( ) (구체적인 실시 횟수 : \_\_\_\_\_ 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10회 이상      ⑤ 20회 이상

문 4. 귀 기관(단체)에서는 지난 1년간(2011.1.1~2011.12.31) 중국과 국제교류협력을 몇 번이나 실시하였습니까?  
 ( ) (구체적인 실시 횟수 : \_\_\_\_\_ 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10회 이상      ⑤ 20회 이상

## 한중일 국가와의 문화 교류협력 실태

문 5. 다음 국가 중 귀 기관(단체)에서 지난 1년간 문화관련 교류협력을 진행한 권역은 어디입니까?  
 해당 권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동북아시아 ( )      ② 동남·남아시아 ( )  
 ③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 )  
 ④ 중동(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 )      ⑤ 북미 ( )      ⑥ 중남미 ( )  
 ⑦ 서유럽(영국, 프랑스 등) ( )      ⑧ 동유럽(체코, 헝가리 등) ( )  
 ⑨ 아프리카 ( )      ⑩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



문 6. 귀 기관(단체)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일본, 중국과의 문화교류 관련 대표 사업명을 적고, 형태와 장르를 선택해 주십시오..

(1) 일본	• 사업명 : ( )	• 형태 : ① 초청( ) ② 파견( )
• 장르 ( )		
① 문화제 ② 전통문화 ③ 예술전반(공연, 문학, 미술, 음악, 공예, 디자인 등)		
④ 문화산업전반(영화, 드라마, 방송, 음반, 만화, 게임, 저작권, 신문, 출판 등)		
(2) 중국	• 사업명 : ( )	• 형태 : ① 초청( ) ② 파견( )
• 장르 ( )		
① 문화제 ② 전통문화 ③ 예술전반(공연, 문학, 미술, 음악, 공예, 디자인 등)		
④ 문화산업전반(영화, 드라마, 방송, 음반, 만화, 게임, 저작권, 신문, 출판 등)		

문 7. 지난 1년간 귀 기관(단체)에서 실시한 일본, 중국과 문화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 비용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경상적 인건비 제외) 기준입니다.

총 비용 : _____ 원		
세부내역	① 정부 지원 금액	_____ 원
	② 지자체 지원 금액	_____ 원
	③ 수익사업 등 자체조달 금액	_____ 원
	④ 민간기업 협찬금액	_____ 원
	⑤ 기타	_____ 원

■ 한중일 국가 간 문화 교류협력 만족도, 효과, 문제점

문 8. 귀 기관(단체)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일본과의 문화관련 교류협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불만족하는 편	⑤ 매우 불만족	

문8-1. 귀 기관(단체)에서 실시한 일본과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해 만족하시거나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 9. 귀 기관(단체)에서 지난 1년간 실시한 중국과의 문화관련 교류협력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불만족하는 편	⑤ 매우 불만족	

문9-1. 귀 기관(단체)에서 실시한 중국과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해 만족하시거나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 10. 귀 기관(단체)이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 협력을 하여 얻는 다음의 7개 효과에 대하여 각각 그 정도를 표시해주시십시오.

(1) 일본

	①매우 약함	②약함	③강함	④매우 강함
(1) 일본문화의 이해	( )	( )	( )	( )
(2) 창조적 자극 획득	( )	( )	( )	( )
(3) 우호 관계 형성	( )	( )	( )	( )
(4)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 )	( )	( )	( )
(5)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 )	( )	( )	( )
(6) 국가이미지 제고	( )	( )	( )	( )
(7) 교류 수행자로서 자부심 강화	( )	( )	( )	( )

(2) 중국

	①매우 약함	②약함	③강함	④매우 강함
(1) 중국문화의 이해	( )	( )	( )	( )
(2) 창조적 자극 획득	( )	( )	( )	( )
(3) 우호 관계 형성	( )	( )	( )	( )
(4) 차후 지속적 교류사업 기획	( )	( )	( )	( )
(5) 문화산업 및 관광 영역의 파급효과	( )	( )	( )	( )
(6) 국가이미지 제고	( )	( )	( )	( )
(7) 교류 수행자로서의 자부심 강화	( )	( )	( )	( )

문 11. 귀 기관(단체)이 일본, 중국과 문화교류협력 시 느낀 다음의 6개 문제점과 애로사항의 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1) 일본

	①매우 약함	②약함	③강함	④매우 강함
(1) 인력 부족	( )	( )	( )	( )
(2) 예산 부족	( )	( )	( )	( )
(3) 정보 부족	( )	( )	( )	( )
(4) 기획력 부족	( )	( )	( )	( )
(5) 프로그램 부족	( )	( )	( )	( )
(6) 법·제도 미비	( )	( )	( )	( )

(2) 중국

	①매우 약함	②약함	③강함	④매우 강함
(1) 인력 부족	( )	( )	( )	( )
(2) 예산 부족	( )	( )	( )	( )
(3) 정보 부족	( )	( )	( )	( )
(4) 기획력 부족	( )	( )	( )	( )
(5) 프로그램 부족	( )	( )	( )	( )
(6) 법·제도 미비	( )	( )	( )	(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중·일 문화 교류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2-02-09	한·중·일 문화 교류협력관계 비교분석과 전망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연주 연구보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기은 교수 (공동연구)
세명대학교	문효진 교수 (공동연구)